

이사야 1

1-33

이사야 1

2020년 1월 12일 초판 발행

펴낸이 김광욱 김영준 이영란 정한조

펴낸곳 100주년기념교회

표지 이지영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길 46

전화 02-332-9177

팩스 02-332-9175

비매품

새벽묵상

이사야 1

1-33

100주년기념교회

새벽묵상

이사야 1

1-33



작성

| | | | |
|-------------|-----|-------------|-----|
| 이사야 1:1~31 | 정한조 | 이사야 17:1~14 | 박성호 |
| 이사야 2:1~22 | 김대인 | 이사야 18:1~7 | 김완영 |
| 이사야 3:1~26 | 김영준 | 이사야 19:1~25 | 김소리 |
| 이사야 4:1~6 | 정한조 | 이사야 20:1~6 | 이광희 |
| 이사야 5:1~30 | 백정수 | 이사야 21:1~17 | 김광욱 |
| 이사야 6:1~13 | 강요섭 | 이사야 22:1~25 | 정한조 |
| 이사야 7:1~25 | 박성호 | 이사야 23:1~18 | 이성유 |
| 이사야 8:1~22 | 이성실 | 이사야 24:1~23 | 오웅식 |
| 이사야 9:1~21 | 이영란 | 이사야 25:1~12 | 정한조 |
| 이사야 10:1~34 | 이성유 | 이사야 26:1~21 | 이성실 |
| 이사야 11:1~16 | 임용완 | 이사야 27:1~13 | 이영란 |
| 이사야 12:1~6 | 정재규 | 이사야 28:1~29 | 정한조 |
| 이사야 13:1~22 | 정한조 | 이사야 29:1~24 | 김대인 |
| 이사야 14:1~32 | 김대인 | 이사야 30:1~33 | 최정운 |
| 이사야 15:1~9 | 김광욱 | 이사야 31:1~9 | 정한조 |
| 이사야 16:1~14 | 정한조 | 이사야 32:1~20 | 백정수 |
| | | 이사야 33:1~24 | 김광욱 |

이사야가 본 계시라

이사야 1:1~31

1 유다 왕 웃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2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
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
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4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 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
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5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
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짜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
도다 7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
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
폐하였고 8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 같이, 참외밭의 원두막 같이, 예
워 싸인 성읍 같이 겨우 남았도다 9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
우리로다 10 너희 소돔의 관원들이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
모라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1 여호와께서 말
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

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
 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나라 13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
 디지 못하겠노라 14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
 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6 너희는 스스
 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18 여
 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
 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
 게 되리라 19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
 라 21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
 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뿐이로다 22 네 은
 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23 네 고관들은 패역
 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24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
 라 25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
 결하게 하며 네 혼잡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26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
 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

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27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28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29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30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31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끝 사람이 없으리라

여호와를 거역한 이스라엘(1~9)

오늘부터 약 두 달 반, 이사야 속으로 말씀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가 기록한 성경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11에 있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이 이사야의 핵심구절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이 이 책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1) 유다 왕 웃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10대 왕인 웃시아 때부터 13대 왕인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실제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선지자의 삶을 살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웃시아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전부터 활동을 하였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14대 왕이었던, 므낫세 때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톱으로 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하는데, 그가 이사야 선지자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모두 66권인데,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모두 66장인데, 양분하면 1~39장까지 39장과 40~66장까지 27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사야 1장은 창세기, 2장은 출애굽기 등 성경의 권과 이사야의 장이 맞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구약의 주제와 이사야 첫 부분의 주제, 신약의 주제와 이사야의 둘째 부분의 주제도 일치합니다. 구약성경이 ‘인간의 죄’로 시작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끝맺습니다. 이사야도 ‘인간의 죄’에서 시작해서 ‘의의 왕이 오시는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첫 부분이 끝납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은 ‘세례요한의 외침’에서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사야의 둘째 부분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서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맺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부릅니다.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 유다 왕 웃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우리 성경에는 ‘계시’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나오지만, 히브리 어성경(영어성경에도)에는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스바냐 등에도 ‘여호와와 의 이상(vision of God)’, ‘여호와와 말씀(word of Lord)’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지서들은 선지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한 것이 예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전한 것이 예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알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 보여 주신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서를 대할 때마다 선지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 펴보게 될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들어야 하며, 이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지서를 대하면서 꼭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언의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것은 현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 올해 제가 공무원 시험을 봅니다. 제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합격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날마다 놀러 다녀도 시험을 통과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합격할 것이다’는 응답은 그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험 보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지서가 미래 일을 말해도 그 말씀을 지금 내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바른 태도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사가야 인간의 죄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2~3)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고발하십니다. 우리들도 대화할 때에 자신이 하는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답받고 싶을 때 “내가 하늘에 맹세한다.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 아니면 내가 네 아들/딸이다. 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등등을 표현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속이 터질 것 같으셔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부모에게 대들 때에, “내가 낳아 달라고 했느냐?”와 같은 해서는 안 될 말도 서슴지 않고 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밥도 먹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전이나 반려모는 “내가 방 안에서 키워달라고 했느냐?”며 대드는 일도 없습니다. 또 반려전이나 반려모가 단식투쟁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5~6)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찌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구절은 유다 백성들의 곤고함이나 상처보다도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에 더 가슴을 저밉니다. 이렇게 읽힙니다. “내가 너희들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고 때려도, 너희는 종아리가 터져 피가 줄줄 흘러내려도 맞고 있는 줄도 모르더라. 혹시 외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면 나에게로 돌아올까 해서 지켜보고 있었더니, 매일 터지고 깨져서 새로운 상처는 계속해서 생기는데,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그것도 모르냐? 이 미련한 것들아”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깨어지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죄 때문인지도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결

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9)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고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곳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그들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거나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
라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엉뚱한 길로 가고,
셀 수 없이 넘어지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
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막아주셨기 때문이고, 넘어질
때에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들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성전 뜰만 밟는 사람들 vs. 우리가 변론하자(10~20)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머리가 병들고, 마음이 피곤하고, 온
몸이 상처투성이인 것이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도 생각했
을 것입니다. 또 완전히 넘어지거나 파산을 당하지 않는 것은
재수가 좋아서라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라
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1~13)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바른 제사(예배)를 드리지 않음에 대한 꾸중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중단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아주 열심히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물도 최상의 것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가 역겹다고 하십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당만 밟는다’고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제사 자체에 관심이 많았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단지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분히 이어주는 끈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매 주일, 매 수요일, 매 새벽에 예배당을 찾고, 또 주중에 성경공부나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움직임 자체가 하나님과의 깊고 두터운 관계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당을 찾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 명의 친구를 동일한 횡수로, 동일한 장소에서

만나다 할지라도, 모든 친구들과의 우정의 깊이와 넓이가 동일하지 않은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공부에 참석하며, 봉사를 할 때에 중심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것입니다.

(15)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무능력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인격과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일터를, 교회와 국가를 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으로 더 바르고, 더 가치 있게 만들어 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청산유수의 말보다도 중요하고, 긴 시간의 옆드림보다도 중요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목이 터져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데,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창기처럼 되었고, 살인자와 같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에 하나님의 힘을 보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들어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형편없

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유다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역겨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맞는지 확인해보자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된다고 하시는 것은 저절로, 또는 결심하면 그렇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에의 예언(21~31)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26~27)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지금 유대와 예루살렘은 불의하기 짝이 없고, 불성실하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들의 삶은 복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욕망을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롭게, 신실하게 만들어가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롭고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것은 그들이 비워야 할 것과 채워야 할 것을 반대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예배)를 드려서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으로 자신들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채워야 할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일상생활 속에서 신실한 삶은 비워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시거나 내치지 않으시고,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받아들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이 새벽 시간에 이사야 속으로 말씀의 순례를 떠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비워야 할 것과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함으로 진리와 생명을 짓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욱 또렷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타난 유다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비난을 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비추어주는 거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워야 할 것과 채워야 할 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해 주십시오. 진리와 생명을 짓지 않고, 욕망과 죄를 지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어 함께 지어져 감으로,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 주는 '이사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유다 백성들은 종교적인 행위(제사)를 한 것만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신앙이 형식적인 것에 빠졌던 적은 언제이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돌이키셨습니까?
2.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어지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체험은 언제 가지셨습니까? 혹 이와 같은 체험을 소망하신다면, 지금 진지하게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3.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고, 불성실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로 불리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한 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바르게 인도해 주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4. 비울 것과 채울 것을 혼동하지 않고, 진리와 생명을 짓는 사람이 되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2

사랑은

이사야 2:1~22

1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2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4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5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6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7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8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9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10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11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

으시리라 12 대저 만군의 여호와와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13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14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
 오른 작은 언덕과 15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16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17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18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19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
 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20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 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21 암혈과 험
 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22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써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평화의 시대(1~4)

오늘날 우리는 모두 평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남북문제는 우리
 나라의 주도적인 역할로 남한의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기를 기다립니다. 여야(與野)
 각 당은 상식적인 협치와 대화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치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
 다.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학생들이 꿈과 미래를 쌓아가기를 바
 라고 누구 하나 낙오되는 아이들 없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기
 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하기를 바라며, 나와 네가 이웃으로 평화롭게 지

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남과 북을 중심으로 많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함께 국내의 여론도 제각각이다보니 남과 북의 평화는 멀게 만 느껴집니다. 정치가 여야(與野) 모두 국민을 위한 정치라기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집단으로 탈바꿈하여 민생을 쥐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친구들을 떨어뜨려 숨지게 만들고, 체육계의 코치와 선수 간에 나타난 성폭력 파문은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암사동 대로변에서는 칼부림이 일어나고, 미세플라스틱으로 바다는 오염되었고, 초미세먼지로 우리는 마음껏 숨 쉴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평화는 꿈꾸고 기다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희생과 내려놓음, 신뢰를 밑거름으로 하여 얻을 수 있기에 쉽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선 1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다면 2장의 첫 서두에서는 하나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2)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고 모여들 것이라

물론 현재는 고난입니다. 지금은 칼이 춤을 추고, 창이 날아다닙니다. 여기저기 피가 터지고 목숨을 잃는 일들이 쉽게 일어납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말일이 되면,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고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것들의 꼭

대기에 설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구속하신 사랑이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며, 많은 백성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배우는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전적인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말입니다.

(4)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날(5~22)

이사야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선지자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 열방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여 복의 메시지만 선포한 것이 아니며, 이방 나라라고 하여 심판의 메시지만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이방나라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향해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모두를 향해 회개 이후의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성전에만 갇혀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시며, 그들을 모두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편애하지 않으시고, 죄악 가운데의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6)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택한 민족이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저들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에게 이사야는 우리의 하나님이 특정한 누군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공의롭게 다스리실 그 때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2)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은 그 날을 자신들이 높아지는 날이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날이라고 착각했지만, 그 날은 모두가 낮아지며, 모두가 겸손해져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높아지는 날이었습니다.

(17)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는 모두 평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평화할까 하여 집안 곳곳 1년 내내 사용하지 않을 물건들로 잔뜩

채우고, 냉장고는 검은 비닐봉투에 가득가득 들어있어도 또 새로운 것을 삽니다. 더 많이 배우면 평화할까 하여 이름 있는 학교를 앞 다투어 들어가고 많은 자격증으로 우리 삶을 도배합니다. 더 아름다워지면 평화할까 하여 값비싼 옷과 가방, 화장품으로 치장합니다. 더 높아지면 평화할까 하여 힘과 권력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나는 낮아지고 우리 주님만 높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진 내가 비천한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십니다.

(22절, 새번역)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에 샘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코에 달린 숨에 매달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숨을 쉬는 자, 수로 가치를 매기지 않고 영혼으로 가치를 매기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The peacemaker'입니다.

오늘의 기도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쟁터처럼 참혹하며, 광야처럼 차가운 인생에서 살아가기가 이토록 힘이 드는지요. 해야 할 업무는 늘 과중하고, 짊어진 이름들은 늘 무거우며, 살아가야 할 인생은 어둡기만 합니다. 불안하고 답답하던 이 인생, 코에 달린 숨으로 살아가는 이 미약한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은금이 가득해도, 병거는 무수할지라도, 모든 것이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여호와와의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화의 빛을 붙잡고 살아가는 'The peacemaker'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진정한 평화를 우리 모든 기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나는 어떤 평화를 바라고 있습니까?
2.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진정한 평화를 열어줍니다. 십자가에는 어떤 정신과 의미가 있는지 묵상해봅시다.
3. 모든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묵상해봅시다.
모든 민족과 열방 안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4. 내 삶에 평화를 깨뜨리는 교만한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교만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3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요

이사야 3:1~26

1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2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3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4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5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6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네게는 잘못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네 손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7 그 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8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9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 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10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요 11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12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네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13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14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
 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15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
 난한 자의 얼굴에 멧뚫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16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늘인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
 를 낸다 하시도다 17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18 주께서
 그 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19 귀
 고리와 팔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20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21 반지와 코 고리와 22 예복과 겹옷과 목도리와 손 주머니와
 23 손 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24 그 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술한 머
 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 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
 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25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
 란에 망할 것이며 26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오늘 본문은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해서 증
 거하고 있습니다.

(1)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이사야는 본문 1~3절을 통해, 여호와께서 남유다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심판을 행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주 만군의 여호와’를 사용하면서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싸우시는 여호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여 악을 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면모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고가 집 나간 탕자를 문 밖에서 기다리며 애태우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아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쟁을 치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을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물과 양식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 전 분야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도자들의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이 모든 것을 제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주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올바른 의뢰와 의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지팡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나 혼자 거동하기에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이 지팡이는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물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그 지팡이가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지탱시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외의 다른 것을 마치 지팡이처럼 의지

하며 사는 불신앙적인 모습 또한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4~7절에서는 여호와와의 엄정한 심판으로 발생하게 될 남유다 사회의 전반적인 혼란상에 대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년들이 어른들을 다스리며, 서로 학대하고 싸우며, 젊은이가 노인들에게 대드는 형국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바로 질서의 파괴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이처럼 권위가 무너지고, 질서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와 같은 전조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8)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위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가 쓰러진 이유는, 바로 여호위를 거역하고 영광의 눈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유다 백성이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의 ‘범하였다’는 의미의 히브리어는 본래 맛이 쓴 것을 나타내는 ‘마라’라는 단어인데, 구약에서 이 단어는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께 거역하고 반항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를 범하되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조차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공공연히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호와께서 보고 계심

을 뻔히 알면서도 짐짓 범죄함으로써 양심까지 포기하고 자신들의 심판을 더 크게 하였던 것입니다. 작금의 우리의 모습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유다 백성이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할 정도로 부패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들이 있었습니다.

(12) 내 백성을 확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네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바로 남유다 멸망의 근본 책임은 그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바르고 정직하게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그들이,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알랄’은 구약성경에 총 18회 사용되는데, 아이로 번역된 곳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 외에는 ‘더럽히다, 모욕하다, 조롱하다’란 뜻으로 사용되어, 통치자들이 미숙하고 불완전하며 무책임하고, 어그러진 정책이나 온전치 못한 방향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그들을 괴롭게 하고 있음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이사야가 사역할 당시 아하스를 위시한 남유다의 사악한 왕들, 불경건한 왕들, 백성의 신앙과 삶을 도탄에 몰아넣은 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옳고 바른길, 행여 그 길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

도, 궁극적으로는 복되고 변영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심판의 길로 유혹한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드디어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13)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기에서 ‘변론하러’라는 단어의 뜻은 ‘싸우러’라는 의미입니다. 드디어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시기 위해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14~15절을 통해 장로들과 고관들과 같은 사회 지도층의 인사들을, 16~23절을 통해서는 남유다의 상류층 여성들의 교만과 사치와 음란을,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25~26절을 통해서는 유다의 상류층 여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으로 인해 겪게 될 처절한 참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왔으며, 앞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시간을 통해, 삶과 신앙 가운데 비움과 채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비움은 또 다른 채움, 더 바른 채움, 영원한 채움을 위한 전 단계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우님들은 주님 안에서 비워 놓은 우리 삶의 자리를 지금껏 무엇으로 채우셨으며, 앞으로는 무엇으로 채워 가지겠습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 바르고 영원한 것으로 채운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채우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대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채움이란 오늘 본문 가운데 '의지'라는 단어로 대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이름들이 본문 가운데 등장했습니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자, 군인, 우상숭배를 부추기는 자. 하지만 그들 중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이름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 심판을 받는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 안에 거할 때, 그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또 다른 채움, 더 바른 채움, 영원한 채움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복이 우리 안에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진정한 채움과 진정한 의지를 오직 우리 주님에게만 두는 귀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 1절에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유다 백성이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할 정도로 부패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름은 무엇입니까?
3. 오늘 본문 8절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오늘 하루, 아니 우리 전 생애를 걸쳐서 교우님은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4

그 날에...

그 날에...

이사야 4:1~6

1 그 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2 그 날에 여호와와 짝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3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4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5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6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그 날에1-심판(1)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 그 날에

이사야 2-4장은 악을 행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메시아의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오늘 본문 1절은 2-3장에서 말한 악을 행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결론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앞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6~9) 주께서 주의 백성 아굽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유다 백성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방’은 팔레스타인 동쪽에 있는 나라들인 아시리아, 아람(시리아), 바빌로니아 등을 가리킵니다. 당시 그 나라들은 강대국들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강대국의 신들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자신들도 강해질 것이라고 오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가정에 자녀가 자기 마네킹을 집안에 들여다 놓고, 그것을 자신의 부모로 여긴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자녀가 행한 일이 유다 백성들이 행한 것과 유사했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은 점을 치는 것도 거리낌 없이 행했습

니다. 점을 친다고 하는 것은 역술인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도우심)을 기대하기보다, 이방인과 손을 잡고서 그들의 도움을 더 기대하였습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유대 백성들은 자기가 만든 신을 자기가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은 언제나 병든 이기심과 세속적으로 가득한 합니다.

이사야 1:1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윗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왕이 다스리던 때라고 합니다. 그 네 왕 중에서 아하스왕만 악했고, 나머지 세 왕은 선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말할 필요도 없고, 남유다 전 역사에게 그런 시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누리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번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고, 남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치자가 선정을 베풀고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시대가 선하고 신실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때의 영적이 상황은 몹시 피폐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6장이나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을 나무라기도 하고 위로도 해야 할 정도로 그들은 영적인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어제 살폈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신앙적인 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집 안에 채워놓고 (3:14), 여인들도 발목에도 장식 고리를 차고 다니면서, 허영에 가득한 삶과 욕망을 따르는 삶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러한 신앙과 삶을 심판하셔서,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시온(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어서 슬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론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 그 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여자 일곱 명이 남자 한 명을 잡고서 애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전쟁으로 남자들은 대부분 죽어서 여인들이 결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남녀 성비를 계산할 때에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로 나타냅니다. 이상적인 남녀 성비는 102-107이라고 합니다. 즉 여자 100명당 남자 105명 내외입니다. 남자들이 많아야 하는 것은 남자의 평균수명이 여자보다 짧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생 인구 남녀 성비는 100.5라고 합니다. 남녀의 수가 거의 같은 것입니다. 2015년에 중국의 출생 인구 남녀 성비가 113.51이었는데,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이 말하는 결혼 적령기의 남녀 성비가 14.3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100명이 있는데, 남자는 1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 일곱 명이 남자 한 명을 붙잡고,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입을 옷도 우리가 마련할 터이니, 다만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부르게만 해주세요. 시집도 못 갔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결혼할 때에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오는 방법을 취했는데, 그때 반드시 지참금이 있어야 했습니다. 지참금이 없으면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다가 리브가를 만나고서 지참금을 주기 전에 먼저 그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½세겔(5.7g)의 금코걸이, 10세겔의 손목고리 한 쌍(228g)을 주었습니다. 금 1g을 5만원이라고 하면, 1100만원이 넘습니다. 그것이 선물이었습니다. 후에 지참금으로는 은금 패물과 의복, 보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망할 때에는 많은 남자들이 죽고 없어서, 여자들이 지참금을 받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먹는 것, 입는 것은 알아서 할 테니 제발 결혼만 해 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남자 한 명에 여자가 일곱 명씩이나 아내가 되기

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에 내려진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동방에서 가져온 우상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허영이 가득한 삶의 결과로 겪게 될 참상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 날에2-회복과 구원(2~5)

2절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2) 그 날에

1절과 2절의 시작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1절의 ‘그 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 그래서 좌절과 절망의 그 날이라면, 2절의 ‘그 날’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날, 그래서 기대와 소망의 그 날입니다.

(2)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호와의 싹(가지)’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의로운 가지’라고 했고, 스가랴 선지자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모두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3차에 걸쳐서 멸망을 했습니다. BC 605년이 1차인데, 이때에 다니

엘이 끌려갔습니다. 또 BC 598년이 2차인데, 이때에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임금이 당한 최고의 수모 중에 하나는 ‘삼전도 굴욕’일 것입니다. 병자호란에서 패배하여 청나라와 굴욕적인 강화를 맺고, 인조임금은 남한산성에서 내려와 삼전도(지금의 송파구 삼전동)에서 청나라 황제(송덕제)에게 절을 하면서 머리를 세 번 짚 조아린 것을 세 번, 즉 세 번 무릎을 꿇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인조 임금이 겪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눈 앞에서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고, 자신의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러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는 2절에 나온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와 다 동일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표현이 전부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남거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남아 있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은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거룩하다’고 불릴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이 구별됨은 2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는 구별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물질을 따로 떼어 놓는 것, 또 시간을 따로 떼어 놓는 것 등이 거룩입니다. 또 하나는 신실하고 정결하기 위해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속적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말씀의 가치관, 생명의 가치관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입니다.

(4)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시온(예루살렘)에서 자행된 범죄는 더러움(오염)과 피흘림이었습니다. 그것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영(정당한 재판)과 소멸하는 영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소멸’은 사라져 없어지게 하는 의미의 소멸

(消滅)이 아니라, 태워서 없애는 의미의 ‘소멸(燒滅)’입니다. 무엇을 태워서 재가 되면 원 모습이 사라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오염된 것과 착취와 약탈을 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던 것을 태워서 정결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정결하게 되고 구별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목도하게 됩니다.

(5~6)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들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구름과 연기’와 ‘화염의 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지날 때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불기둥이 움직이면 장막을 걷고 이동을 했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장막을 쳤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공개적인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고개만 들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둥은 낮에는 사막기후와 같은 광야에서 그들이 되어 주었고, 밤에는 급격한 일교차로 급격히 온도가 떨어질 때에 히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때와 같이 남겨두신 사람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둥이 움직이고 서고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듯이, 남겨진 사람들도 그러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이나 구름기둥 하나로만 인도하지 않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두 개의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두 개의 기둥이 동일하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움직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 인생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바르게 받는 것이며, 가장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날’과 ‘그 날’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욕망이나, 세속적 가치관을 섬기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날’이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놀기만 하면 그에게는 시험 보는 날이 ‘그 날’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무분별하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낭비하며, 허랑방탕하게 살면, 자기 손에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그 날’이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 되고,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김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복을 짓는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 자녀가 보게 될 것이고, 또 이 땅에서 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을 사모하며, 함께 지어져 가고, 복을 지으며 사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그리고 신실하게 섬기지 않고, 우리의 욕망과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살면, 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용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 심판의 ‘그날’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또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하고,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망의 ‘그 날이 있음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진리와 생명으로 복을 짓고 경작하며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이 다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피하다가 낭패를 겪은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이길 수 있었습니까?
2. 당신의 가정과 일터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당신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놓은 곳이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까?
3.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당신을 인도해 주셨음을 가장 뚜렷하게 느꼈던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4. 오늘도 함께 지어져 감으로 ‘그 날’이 아니라 또 다른 ‘그 날’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사야 5:1~30

1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쁜 산에로다 2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3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4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이고 5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걸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6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찢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7 무릇 만군의 여호와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박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8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 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9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녕히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10 열흘 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11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12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
 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13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
 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
 이라 14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15 여느 사람은 구푸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16 오직 만군의 여호
 와는 정의로우시므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므
 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17 그 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
 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
 에서 먹으리라 18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 줄로 함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19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
 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20 악을 선하
 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
 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
 을진저 21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22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
 저 23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
 를 빼앗는도다 24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킬 같이, 마른 풀
 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
 을 멸시하였음이라 25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

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 같이 되었고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26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27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메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28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29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처럼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30 그 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포도원 경작(1~6)

이사야 5장은 포도원 노래로 시작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농업은 주로 포도나무에 의존되어 있었습니다. 와인(Wine)이라는 단어가 바로 포도즙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야인(Yain)에서 유래될 정도로, 사실 포도는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열매입니다. 창세기 9:20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나무를 심어 농사를 시작했는데, 이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한국 사람하면 김치가 떠올리듯이, 이스라엘의 상징은 포도며, 중요한 삶의 부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산지에서는 양질의 포도가 많이 생산됩니다. 이스라엘인처럼 포도를 잘 이해하고 밀접한 민

족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포도나무와 관련된 농사에 대한 비유가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1~2)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쁜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본문 1~2절은 포도원을 제일 처음 만들 때, 주인이 준비하는 과정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돌이 많기 때문에,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는’ 작업이 제일 먼저 이루어졌고, 그렇게 가려낸 돌들은 포도원 가장자리에 쌓아서 담장을 만드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여기서 극상품이란 붉고 탐스러운 최고의 포도나무를 상징합니다. 심은 그 해에 제대로 된 열매를 얻을 수는 없었고, 극상품의 포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약 2, 3년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기다리는 동안 포도원의 나머지 시설들을 만들었습니다. 원두막 같은 "망대"도 만들고, 다른 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낮은 돌울타리도 만들고 그 위에 가시덤불을 올려놓았습니다. 또한 포도즙을 짜는 ‘술틀’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온 정성과 힘을 다해, 이처럼 포도원을 가꾼 이유는 다름 아닌, 극상품의 포도열매를

연기 위함이었습시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하던 이야기는 갑자기, 주인의 한탄과 탄식으로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왜 한탄과 탄식이 나오니까? 주인이 온 정성과 힘을 다해 포도원을 가꾸었지만, 극상품의 포도열매는 커녕 보통 포도도 아닌, 작고 시어 아무 상품 가치도 없는, 들포도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수고가 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때 포도원 주인의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의 심정을 느껴보라는 것이 본문 4절입니다.

(4)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됴임고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너희들이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라.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노력한 주인의 잘못이냐? 아니면 포도나무가 문제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며, 포도원은 세상이고, 포도나무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히 기뻐진 산에 두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땅을 파서 돌을 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이기에 우리는 극상품의 포도나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망대를 지었다는 것은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로부터의 보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망대의 주된 목

적은 포도원에서 자라고 있는 포도나무를 보며 즐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말씀의 거름으로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4절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에 답은 '더 해줄 것이 없다.' 우리는 내 삶의 어려움과 좌절은 모두 환경 탓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적의 환경을 주신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환경이 아닌 우리 자신을 직면해야 합니다.

인간의 타락(7~24)

왜 이런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는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본문 7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고 탄식하십니다. 여기에서 '정의'인 '미쉬파트' 와 '포학'인 '미쉬파흐' 는 원어상 어감이 비슷합니다. 또 '공의' 인 '체다카' 와 '부르짖음' 인 '체아카' 도 비슷합니다. 일종의 언어유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겉모양은 비슷하나 속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신앙의 열심을 갖고 있으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타락의 예를 8절부터 23절에 5가지 죄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탐욕>입니다. 8~10절에서 부유한 자들이 더 큰 부를 누리기 위해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있습니다. 탐욕은 이기심이며, 생명까지도 뺏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아합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기 위해, 그의 생명을 빼앗고 포도원을 강압적으로 탈취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도 다윗은 성적인 탐욕을 위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충신 우리야를 사망으로 이끌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방탕>입니다. 11절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술에 취해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음주로 인한 각종 폭력과 운전 등으로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12절에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로 칭하시며, 13절부터 17절을 통해 어떤 심판이 닥쳐올지에 대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많은 봉사자를 필요로 합니다. 나의 즐거움이 아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나의 즐거움 보다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짓>입니다.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끄는”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결국 내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야곱도 일평생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으로 산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25에도 “그러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

체가 됨이라.” 남에게 거짓을 말하면, 남을 속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체이기에 남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은 결국 나를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는 <뒤틀린 기준>입니다. 어떤 일부 부모들은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떠들거나 제 멋대로 행동해도 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이에 대해 지적하면 ‘왜 남의 집 아이 기를 죽이느냐고 되레 따집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내가 끼어들기하면 급한 것이고, 남이 끼어들면 비난을 합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아전인수격인 행동을 합니다. ‘안락사 없는 동물구조활동’을 벌이던 동물보호단체 대표는 안락사의 잔인함을 고발하고, 안락사 시키는 사람들을 비난하며 구조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단체의 대표는 지난 4년간 동물 200마리 이상을 비밀리에 안락사를 시켰다는 내부고발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윤리적 기준은 절대 사람의 생각이 될 수 없습니다. 말을 잘 하는 사람이 그럴싸한 말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의 행동양식을 일깨우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윤리적 기준과 행동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교만함>입니다. 21절에 스스로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22절에 술의 힘으로

살아감과 동시에, 분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경고합니다. 사사 기드온은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알았기에 철저히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8장까지 그의 인생에서 반복되는 말은 ‘여쭙되, 이르시되’ 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께 여쭙되, 기드온이 또 여호와께 여쭙되”, 이에 대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기드온은 “하나님께 또 대답하되”, 기드온은 그의 인생을 긴밀한 하나님의 대화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민족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 그러나 기다림(25~30)

이런 5가지 죄악의 결과, 이스라엘은 결국 총체적인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을 저지르는 개인, 사회, 나라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26)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기치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전쟁의 깃발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 나라들 즉 앗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을 보내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예

고하시지만,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닌 <회복>입니다. 그래서 다음 6장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2절, 4절, 7절을 보면 "바라셨더니," "기다렸거늘," "바라셨더니"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 세 동사의 원어는 같은 말, '기다리다(wait)'는 단어입니다. 이 기다림에는 '바라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라셨더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셨거늘'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랜 시간 온전히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설명된 그리스도와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바라보십니다. 그 하나됨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분별하여 들포도가 아닌, 극상품의 포도를 맺어 복을 짓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이란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극상품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죄악에 빠진 모습으로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하나됨으로 죄악의 끈으로 버리고, 신령한 은혜를 깨달으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의 열매로 복을 짓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내가 타했던 환경은 무엇입니까?
2. 내 삶에서 들포도 같은 죄악은 무엇이며, 이 죄악을 끊기 위한 결단은 무엇입니까?
3. 주님과 하나됨(연합됨)을 결국 관계입니다.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생각해봅시다.
4. 극상품포도나무의 삶은 어떤 것일지 생각해봅시다.

6

내가
여기 있나다

이사야 6:1~13

1 옷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4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5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라 하였더라 6 그 때에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8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11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13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세워지는 소명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어떤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늘 보좌의 모습(1~4)

이사야는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1)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웃시야 왕 시대에 유다는 경제적으로 부강하였고 정치적으로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다는 사실은 겉으로는 부강했으나 속은 썩어가고 있던 유다의 영적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해 경제성장률에 민감

해하고 스포츠강국이라는 것에 기뻐하며 우리나라의 한류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적으로 보이는 경제, 정치, 문화적 힘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시대인지 분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잘 흘러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잘 살아가는 것이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겉으로는 근육질인데 몸 안에 이것저것 병이 있다면 결코 건강하다고 할 수 없듯이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이 화려하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시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 보좌는 높이 들린 보좌였습니다. 이 ‘높이 들린 보좌’는 하나님의 높으신 위엄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또한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신부의 머리 위로 자신의 술을 펼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는 결혼을 하면서 신랑이 신부를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는 여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나가다가 교만하여 제사를 주관하려다 나병에 걸려 죽은 옷시야의 삶과 성전에 대한 묘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세상 권세와 영광과 나라는 사라지나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

이 누구인지 어떤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2~4)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스랍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의 한 종류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날개 6개 곧 3쌍을 가지고 있는데 한 쌍의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한 쌍은 발을 가리고 나머지 한 쌍의 날개로 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이나 거룩하다고 외치자 그 화답하는 소리로 인하여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스랍은 날개로 자신의 얼굴과 발을 가렸을까요? 인간 임금도 용안이라 하여 함부로 임금 앞에 얼굴을 마주 대지 못합니다. 히물며 스랍이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함부로 내밀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발은 우리의 몸 중 지저분한 곳 중 하나로 유대문화에서 발과 신발은 ‘더러움과 죄’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랍이 발을 가린 것은 하나님을 곁에서 찬양하는 천사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발을 가려야 할 정도로 하

나님의 거룩하심이 압도적이라는 것입니다. 밭을 땅에 잘 딛지도 않는 스랍이 이 정도라면 날마다 세상에 두 밭을 디디고 살아가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밭가벗겨진 것 같은 두려움과 엄청난 위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후 본문에 바로 그것을 느낀 이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사야의 부정을 제하심(5~7)

먼저 이사야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5)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라 하였던대

죄인 된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자신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썩 관찮고 의롭고 착한 사람이라 생각했다가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비로서 자신이 세상에 돌도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고 스스로 '죄인의 괴수'라 불렀고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죄인이기에 떠나달라고 부탁드린 것입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가 빛 가운데 스스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과 영광의 빛 가운데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실은 그의 마음의 중심이 악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이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술은 모든 악한 것들이 배출되는 배설구와도 같습니다. ‘불평, 저주, 욕설, 비아냥, 비방, 거짓, 이간질’ 같은 악한 마음이 입으로 표출됩니다. 그렇기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가운데 스스로 내면의 부정함을 깨닫고 자신의 입술을 통해 악한 죄를 지었던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은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앞에 서다니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는 뜻입니다. 마치 음주운전 중에 경찰을 만난 사람처럼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6~7) 그때에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원래대로 하면 이미 이사야는 죽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하수에로왕이 에스더

에게 금 규를 내밀어 맞아들인 것처럼 천사를 보내어 그의 입술의 부정함을 제단 숯불로 제하여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금이나 은이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나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능력을 키우고 스펙을 갖추는 것 보다 우선해야 할 사실은 내 중심이, 내 입술이 제단숯불로 거룩하여 졌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단의 숯불은 희생제물을 태우는 불을 담당합니다. 그 위에는 제물의 피가 흘러 내려 태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의 피가 부어진 제단 숯불은 정화의 의미로 이사야의 입술과 중심을 깨끗케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제단의 숯불은 곧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불같이 임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내면의 죄악과 더러움을 회개하고 씻음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 이사야같이 제단의 숯불로 깨끗이 함을 받지 못했다면 불같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더러움을 제하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는 능력의 피임을 믿으시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사야의 사명(8~10)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깨끗하여진 이사야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사람이 있는지 찾으시고 이사야는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8)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은 일할 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9장 37~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우리는 이 음성을 교역자의 요청에서 주보의 광고에서 벽에 붙어있는 봉사자 모집 벽보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교사가 부족하고 봉사부서에 일꾼이 부족하여 찾고 계신데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못들은 채 하면 얼마나 마음아파 하시겠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이렇게 화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요청에 귀를 막지 않았

고 마음을 막지 않았고 오직 믿음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구체적으로 자신을 부르신 것도 아님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아담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로 두려워하며 부르심에 응답하지도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외치는 이사야입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주님 안에 함께 지어져 갈 것입니다.

(9~10)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기서 우리는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니, 선지자를 부르신 목적은 그 백성으로 죄를 회개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인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보아도 알지 못하게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는 것은 도대체 무

슨 말이며 또한 그들이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담긴 내용이란 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왜 이사야의 소명장이 1장이 아니라 6장에 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답과 같습니다. 왜 이사야의 소명장이 6장에 나오는 것일까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디 가서 ‘저는 김치를 싫어해요’라고 말한다면 한국 사람들은 저를 향해 ‘너는 한국 사람이 아니냐? 한국 사람이 김치를 먹어야지, 아직 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순서를 바꾸어서 이유를 먼저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다섯 살 때 김치를 먹었다가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호흡곤란으로 죽을 뻔 했어요. 그 뒤로 김치 냄새만 맡아도 두통이 오고 땀이 나는 트라우마가 생겨서 김치를 싫어해요’라고 말한다면 고개를 끄덕이며 ‘나 같아도 싫어 하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사야의 소명장을 보고 싶어서 처음부터 6장을 폈다면 이렇게 오해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기껏 이사야를 불러서 주신다는 사명이 유다백성들이 회개할까봐 강박하게 만들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야? 게다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까봐 염려하신다고?’ 그러나 1장부터 차근차근 유다백성의 완고함과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들은 아니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가나안땅에서 행한 모든 악행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합니다. ‘내가 하나님 같아도 그렇게 했겠다, 아니 나는 지금까지 참지도 못하고 이미 심판해 버렸겠다’

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5장에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심판을 경고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의 문이 닫아 지면서 감히 열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한없이 넓고 큰 은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엄밀하고 강력한 심판을 통해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참아주실 때 돌이켜야 합니다.

심판의 때와 회복의 약속(11~13)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악한 우상숭배와 죄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 심판을 돌이켜 달라는 간청을 차마 드리지 못하고 대신 그 심판이 언제까지 지속되겠는지에 대하여 여쭙습니다.

(11~12)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땅이 완전히 황폐하여 질 때까지라고 답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할 것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땅의 백성들에게 동화된 유다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슬프고 처량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직 한 절이 남아있습니다.

(13)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만약 십분의 일이 되는 유다의 백성들이 끌려가지 않고 남아 있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잘려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구원자 예수님께서서 유대인의 몸으로 오셔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들의 태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를 먹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가 고파 뿌릴 종자를 먹는다는 것은 스스로 농부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

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심판을 행하시지만 그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소명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부강했으나 서서히 병들어가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보이셨습니다. 스랍마저 자신을 숨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도한 이사야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사야를 제단숯불로 거룩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동일하게 서 있습니다. 죄인 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일꾼으로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어두운 세상가운데 하나님의 선명한 구원과 심판을 전하는 하나님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입술이 부정한 이사야같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도 죄악이 가득합니다. 제단 숯불 입술에 대어 거룩하게 하셨듯이 불같은 주의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리사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곁은 부요하나 속은 썩어가던 유다를 보시며 탄식하신 아버지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화답했던 이사야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과 충성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표적이 되어 세상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언행으로 빛을 비추는 거룩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며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영광을 다시 한 번 묵상해봅시다.
2. 이사야는 스스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입술은 어떤지 살펴보며 내가 마음과 입술로 지었던 죄악을 돌이켜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3.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거절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며 내가 주님과 함께 지어저가기 위해 부르시는 봉사의 자리는 없는지 찾아봅시다.
4. 그루터기 같은 백성을 거룩한 씨로 남겨놓으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묵상해 봅시다.

7

이사야,
임마누엘

이사야 7:1~25

1 웃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2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3 그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숨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4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깥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5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6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7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8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육십오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9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0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12 아하스가 이르

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13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
 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5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영긴 젖과 꿀을 먹을 것
 이라 16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
 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17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
 하게 하시리니 곧 앗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18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괴와 앗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19 다 와
 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20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앗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 털과 발 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21 그 날
 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22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영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는 영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23 그 날에는 천 그루에 은 천 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24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25 보습으로 갈
 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의 임신 소식에 그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마 1:22~23)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중요한 징조였습니다. 이는 약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 전해진 예언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배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합군의 침략과 예언(1~9)

(1) 웃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남유다의 왕 웃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 예루살렘에서 전투를 벌였으나 승리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독자들의 흥미는 고려하지 않은 채 결과부터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결과를 먼저 이야기하면 흥미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앞서 기록한 이유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이야기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남유다의 위기의 상황에 대한 결과보

다 더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무엇 일지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이었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연합군의 동맹 소식을 들은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 표현으로 하면, 그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불특정 인이 찾아와 소식을 전한 곳을 ‘다윗의 집’으로 명명합니다. 이는 고대 막강한 영향력을 다윗 왕국 때를 상기시키며, 오늘날의 초라한 아하스 왕국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4)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삼가며, 조용하며,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연합군의 위용은 아하스 왕을 두려움에 떨게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이미 불에 다 타버리고, 연기만 피어오르는 부지깽이 끝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본 절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왕을 향해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1절에서 이사야가 호칭한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베가 왕이라 명명할 수 있었음에도 르말리아의 아들 이라 부르신 데는, 반역을 통해 차지한 북이스라엘의 왕좌를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 번 7절에서 연합국과 남유다 전쟁의 결과를 간결하게 말씀하시고는, 남유대를 향해 연합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최후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8~9) 시리아의 수도는 언제나 다마스쿠스의 국한될 뿐, 르신이 그 영토를 더 이상 넓히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도 65년 안에 패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언제나 사마리아에 국한되고 베가의 왕권도 더 이상 신장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너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의 말미에 남유다의 최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왕국의 최후를 야기하는 요인이 군사력도 재력도 권력도 아닌, 믿음에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하스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남유다에 보이신 징조(10~16)

(10~11)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또’ 라고 기록된 것을 통해 이어질 상황이 일회적 사건이 아닌 최소 2회 이상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합군으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과 아하스 왕. 하나님께서 앞서 언급한 결과를 입증해주시고자 친히 어떤 징조든지 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는다며 강청하는 것이 자연스런 전개일 것 입니다. 분명한 징조를 통해 확신을 얻고, 불안에 떨고 있는 백성들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12)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시험하지 말라’(신 6:16)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근간으로 한 불신앙적 행위로서 시험을 금한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과는 전혀 다릅니다. 본 절은 하나님께 어려운 징조

를 구함으로써 동시에 믿음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순간에서는 징조를 구하는 것이 믿음을 증거하고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아하스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대답했습니다. 이는 강한 부정을 의미하는 ‘로(לֹא)’와 함께 미완료 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영원히 구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풍전등화. 그럼에도 아하스 왕이 이와 같이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성했던 앗수르 제국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더는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실 징조의 내용을 선포합니다.

(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의 임마누엘의 실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생물학적 환경 가운데서의 탄생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어 그가 국가적 혼란기에 태어나며, 그가 어린아이일 때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을

15절과 16절에서 예언합니다. 그로부터 약 700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징조를 구하지 않던 아하스 왕으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남유다를 향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남유다의 패망 예언(17~25)

(17)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나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앗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앗수르’라는 이름의 첫 등장과 함께 그들이 오는 날은 남유다가 이제껏 당하여 보지 못한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 구체적 현상에 대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18~19)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앗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파리는 애굽을 벌은 앗수르를 상징합니다. 당시 북아프리카와 지중해 일대는 애굽 왕조에 통치를 받거나 그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서남쪽을 향하여 무서운 속도로 세력을 확장하던

북동쪽의 앓수르와의 전쟁은 불가피했고, 이들은 자연스레 중간 지대인 팔레스틴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 지역의 백성들은 수염을 비롯한 모든 털이 밀리고(20), 기르던 가축 중 한 마리의 어린 암소와 두 마리의 양 밖에 남지 않고(21),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있던 자리는 불모지가 될 것(23)이라 예언되었습니다.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게 될 상황과 환경이 예고된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원인은 분명했습니다.

(17)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앓수르 왕이 오는
날이나라

여전히 연합군이, 앓수르 왕이 보이십니까?

남유다의 처참한 상황은 표면적으로는 강성했던 제국으로 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함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하스 왕은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으로 인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눈앞에 있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그는 이미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렸던 것입니다. 막강했던 앓수르의 도움을 기대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우려했던 연합군으로 인함이 아닌 도리어 믿고 의지했던 앓수르에 의해 폐허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를 대면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하스와 같이 행동한다면, 우리 삶을 통해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물질만능주의가 왕노릇하는 세상. 이 세상 속이 아닌, 저 세상을 보며 믿음으로 이 세상 위를 살아갑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구원 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삶을 소망하며 결단하는 오늘은 함께 지어져 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선하신 하나님. 이른 새벽 고단한 몸을 깨워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삶을 소망하고 결단하였음에도 여전히 우리 삶은 세상의 지식과 상황, 환경에 반응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음을 돌아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이 되심을 깊이 새기며 다시 한 번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허락해 주신 오늘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 안에서 주님의 표적으로 드러지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오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이사야의 심정으로 본문을 묵상하여 봅시다.
2. 우리의 지난 삶에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시다.
3. 우리에게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4. 하나님을 믿고 사는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떠할지 상상해 봅시다.

여호와 구원이다

이사야 8:1~22

1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하스바스라 쓰라 2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아의 아들 스가라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3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 하라 4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내, 내 어머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앗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5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7 그러므로 주 내가 흥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앗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8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9 너희 민족들이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이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10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11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 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12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

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번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13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
 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14 그
 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
 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울무가 되시리니
 15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덧
 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16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
 들 가운데에서 봉합하라 17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18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9 어떤 사람이 너희에
 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
 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
 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20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
 하고 21 이 땅으로 해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22 땅을 굶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
 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고통을 느끼지는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흔히 선천성 무통증 무
 한증이라고 부르는 병입니다. 뇌신경에 전달하는 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뜨거운 것, 차가운 것,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125만
 명 중 한 명꼴로 걸린다고 합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은 극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눈을 비비는데 고통이 느껴지면 적당히 비비다가 그만두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안구가 빠질 때까지 비비게 된다’는 겁니다. 또 뜨거운 것을 느끼지 못하면 땀을 흘려도 더운지 몰라 열사병으로 죽을 수 있고, 손가락이나 혀를 깨물어도 뼈가 부러져도 깨닫지 못하면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에 걸린 사람을 ‘지뢰를 밟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웃시야 때부터, 요담, 아하스, 그리고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했으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에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이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을 받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앗수르 제국의 도움을 받아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물리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앗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외쳤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북이스라엘도 아람도 앗수르도 아닌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당시 죄악 가운데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 할 것이라 예언하면서, 더불어 남유다도 하나님 보다 앗수르를 더 신뢰하면 자신이 믿었던 앗수르에 의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고통받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곧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선 자에게 고통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도 형통하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가장 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1)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하스바스라 쓰라

마헬살랄하스바스. 그 단어에 4) 표시가 있는데 아래에 보면, ‘노락이 속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락이 속함이란 노락이 속히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이 속히 임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남유다를 공격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앗수르에 의해서 속히 노락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싸우겠다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하나님께서는 앗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남유다의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간의 전쟁에 개입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 큰 서판에 마헬살랄하스바스라 쓰게

하셨습니다. 남유다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아 벌벌 떨고 있습니다.

(3~4)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앗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큰 서판에 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로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도 전에 앗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재물들이 앗수르에 의해 속히 노략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마헬살랄하스바스를 백성들 앞에 부각시키는 이유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앗수르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8) 그러므로 주 내가 흥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앗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 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떠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큰 하수는 앗수르 왕과 그의 능력을 말합니다. 큰

하수가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유다의 목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큰 하수와 대비되는 표현은 6절에 나오는 실로아 물입니다. 실로아 물은 실로암 물을 말합니다. 큰 하수에 실로암 물을 비교하면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실로암 물을 버리고 큰 하수를 받았습니 다. 이는 하나님을 버리고 앗수르 왕을 더 의지한다는 뜻입니 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그 다음으 로 남유다에게 고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의 적, 곧 북이스라엘과 아람만 심판하시면 좋을 텐데 남유다까지 고통 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 엘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가 외세의 침입으로 고통당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임마누엘 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므 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그 인생에서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노예 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 로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곧 임마누엘임을 삶 으로 보여준 사람이 요셉입니다. 고통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경 험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

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9~15절까지는 앓수르에 대한 심판의 예언과 더불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백성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9) 너희 민족들이 함성을 질러 보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나라 백성들이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하나님은 앓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몽둥이로 사용하셨습니다. 몽둥이는 몽둥이 일 뿐입니다. 그 역할을 다하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게 몽둥이입니다. 이처럼 함성을 질러도, 허리를 동여도, 허리에 띠를 띠어도 앓수르는 끝내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앓수르를 향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앓수르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14~15)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울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뒹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소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함정과 올무가 되시고, 돌부리가 되시고 덧이 되셔서, 그를 넘어지게 하고 덧에 걸려 잡히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일어나는 고통입니다.

(16)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까지 증거한 말씀을 싸매며 봉함하여 읽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신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실은 그 반대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싸매며 봉함하게 했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을 읽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범죄한 인간에게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10가지 재앙을 다 받게 하신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마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결과 불순종하게 만들어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읽혀집니다. 그러나

실은 그 반대입니다. 바로는 잔인한 독재자였습니다. 남자들이 태어나면 살해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완악함에 그대로 내버려두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경고하셨지만, 바로는 완악한 사람이었기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완악함에 바로를 그대로 내버려두신 것을 그리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독재자 바로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잔혹한 앗수르의 왕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사랑이 많은 분이십니다. 참고 참고 또 참으시는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18)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고 외칩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나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징조가 되고 예표가 된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첫째 아들은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뜻으로 ‘스알야슥’이라고 지었으며, 둘째 아들은 ‘노략이 속히 온다’는 뜻으로 ‘마헬살랄하스바스’로 지음으로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가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잡혀갈지라도 다시 살아 돌아올 것이라 알려주셨고, 둘째 아들을 통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 대신 앗수르를 더 의지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고통이 찾아올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경고와 심판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로 접어든 자식을 위해 부모는 회초리를 듭니다. 그러나 그 회초리는 하나님 당신을 때리는 채찍이었습니다.

(사 53:5~6)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시다’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은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재물로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뜻은 이사야 이름과 같은 뜻으로 ‘여호와는 구원하시다’입니다. 이

사야는 자신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듯이,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꽃길을 걷어가는 것처럼 평안할 때에는 교만하지 않음으로, 흑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하지 않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서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예표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가만히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 꽃길을 걷는 것처럼 평안한 때도 있었고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처럼 흑암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길이 꽃길이든 고난의 터널이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징조와 예표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알세불이 판치며 유라굴로 광풍이 요동치는 세상일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내 이름의 뜻은 무엇이며 내 이름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2. 세상의 풍상을 겪을 때마다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3.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기 쉬운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4.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or 평안할 때..
5.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이사야 9:1~21

1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3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4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멘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5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겹옷이 불에 쏘 같이 사라지리니 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8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9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어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10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뿔나무들이 썩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11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12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13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14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15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16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17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18 대저 악행은 불 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찢레와 가시를 삼키며 뺨뺨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19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에 썩과 같은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20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주리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21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오늘 본문은 평강의 왕인 메시야가 탄생할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1~7)

(1~2)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1절 말씀에는 고통, 흑암, 멸시, 사망이라는 좀 어두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흑암이 거치고 빛이 비추이므로 어둠에 있던 백성에게 큰 변화가 왔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1절에 등장하는 지역은 사사시대 이래로 주변국들의 침입으로 항상 시달림을 받았고, 이방 민족들과 접경하고 있다는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팔레스타인의 다른 지역들보다 이방적인 색채가 짙었던 땅입니다. 또한 앗수르 군대의 침략으로 이 근방은 거의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정치적, 문화적, 인종적 요인으로 인해 갈릴리 지역은 같은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새 날이 밝아올 때는 흑암이 깊은 이 땅이 가장 먼저 비춰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큰 빛은 세상의 빛을 의미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의하면 이 큰 빛이 맨 먼저 스블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 마을부터 비추이기 시작했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 가르치신 곳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곳도 바로 갈릴리 해변가입니다. 이사야 9장의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3)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1절과 2절의 어두운 표현들과 다르게 3절의 말씀은 찬양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일,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 것과 즐거움을 더하게 해 주신 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성하게 하셨다는 것은 백성의 수를 많게 하셨음을 의미하며, 즐거움을 더하셨다는 것은 고통과 흑암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멩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시고, 선발된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을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합니다.

(6~7)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6절과 7절 말씀에서 메시아를 묘사하는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에서 ‘한 아기’는 태초부터 계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신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심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의미합니다.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는 권위의 상징으로 주어진 금 고리나 열쇠를 어깨에 걸친 데서 연유한 것으로 만물을 통치하실 권한을 가지셨다는 의미입니다. ‘기묘자, 모사’는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실 것이며 그 일을 이루신 것임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육신을 입으신 힘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을 영원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표현 중 평강에 해당되는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 평화로운 상태는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인과 공동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된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백성을 돌보고 책임질 왕, 모든 것이 충족되도록 다스리실 왕, 그분은 왕이라 칭함을 받았으나 사람들은 왕을 왕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자리에 모시고 있는지, 여전히 나의 필요만을 채워주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살펴본 표현들을 통해 태초부터 참된 평안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한 분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평강의 왕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며 그 나라를 영원히 유지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림받는 백성의 평안은 잠시 주어졌다가 사라질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왕으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현재 우리는 성령으로 임하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8~21)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에 처한 백성에게 빛을 비추고 전쟁과 압박을 종식시키며 평강의 왕이 태어나 통치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나라에서는 여호와를 거부하는 악한 세력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을 거부한 악한 세력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조롱하는 북이스라엘을, 13절에서 17절은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북이스라엘을, 18절에서 21절은 여호와 앞에서 악행을 일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17)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부류로 장정, 고아, 과부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을 통칭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단순히 지도자의 죄로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의 잘못된 인도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간 모든 백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공황과 자비의 대상인 고아와 과부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공황을 상실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또한 이스라엘의 죄악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공황이 더 이상 남겨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심판과 파멸 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교만했을 뿐만 아니라 불의한 지도력으로 백성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세우실 메시아 왕국의 이상과 전혀 무관한 가치관을 가지고 국가 전체를 패역으로 몰아갔으며, 그들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남 유다를 호시탐탐 노리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공허함의 노예로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해 심판 계획을 세우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의지대로 살았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갔던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접한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파멸의 길, 멸망의 길이 아니라

평화의 길,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며, 표적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일삼던 나라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펴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악행을 일삼던 이스라엘로 인함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도 동행하며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표적들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현재 자신의 삶을 고통과 흑암으로 이끄는 요소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2. 자신을 고통과 흑암으로 이끄는 요소는 자신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로부터 온 것입니까?
3.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정의와 공의 안에 머물고 계신지 묵상해 보십시오.
4.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정의와 공의 안에 머물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5. 내가 거짓말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거나, 미혹케 하는 인도자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묵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진노가

이사야 10:1~34

1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2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3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4 포로 된 자 아래에 구푸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5 앗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6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 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7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8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9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10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11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12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앗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13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
 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
 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14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
 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
 다 하는도다 15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
 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러 함과 같음이다 16 그
 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괴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
 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17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18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
 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19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20 그 날에 이스라엘
 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21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22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23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24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
 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이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
 워하지 말라 25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26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
 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

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27 그 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28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므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29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30 딸 갈림아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돗이여 31 맛메나는 피난하며 게뱌 주민은 도망하도다 32 아직 이 날에 그가 높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33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꺾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34 쇠로 그 뾰뾰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베임을 당하리라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이며 5절에서 마지막 절인 3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데 사용하셨던 앗수르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경고(1~4)

(1~2)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본문 1~2절은 북이스라엘의 부패한 모습, 더 구체적으로는

지도자들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불의한 법을 공포했으며 섬겨야 할 백성들을 오히려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기는 커녕 그들의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지배층들이 약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시켜 주었습니다. 법의 목적이 공의와 정의의 실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심판입니다.

(3~4) 별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 된 자 아래에 구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나라
그렇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는 커녕 도리어 포로들 밑에 깔려 밟혀 죽거나, 시체 더미 밑에 깔려 질식하는 화를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지도자는 어떤 집단의 통일을 유지하며 그 성원이 행동함에 있어,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구실을 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인기가 있는 사람이거나 대표자와는 구별되는 사람, 아니 구별되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옳은 방향

으로 이끌어 가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과 지배층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법제도를 남용하며 자신들의 배만 채웠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멸망이라는 징벌을 선포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경고 심판대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화를 입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모두 지도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이신 주님을 삶으로 가리켜야 하고, 하나님의 살아 있는 표적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해 가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흘러갈 수 있는 삶의 투명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배려의 모습이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삶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표적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이제 5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앗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예언입니다.

앗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5~19)

(5~6) 앗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 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목적으로 앗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회개시키려는 하나의 도구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중도 모른채 그들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7) 그의 뜻은 이갈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갈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선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앗수르는 잔인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파괴해 나갔습니다. 자신만의 제국을 세워나가려는 야망이 그들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2)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앗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도구로 사용하셨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로 성취된 일임에도 마치 스스로 절대권력자인 것으로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지혜로 된 일이라 착각하는 그들의 교만한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표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표적으로 세우며 지탱해 나가는 일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닌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 삶의 능력되시는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지혜 주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 진리를 마음속 표적으로 잘 세워 놓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마치 우리가 잘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교만함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함이시지 결코 우리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죄가 다 악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죄를 범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지니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남은 자들’의 회개와 귀환(20~23)

(20~22)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의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유다 백성들은 앗수르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
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멸절이 아닙니다. 분명 남은 자들이 있
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
님께서 남겨 두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겨
두실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
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세
상의 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고 계
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오롯이 주님을 향
한 믿음을 삶의 그루터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
나님께서 남겨주시고 남아 있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표적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표적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표적이
갈대처럼 흔들리면 표적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
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어야 표적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
님의 표적으로 남겨지고 남아 있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절대믿음
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절대믿음입니다. 그런 절대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표적으로 남겨 두시고 남아 있게
하십니다. 결국 그런 우리를 통해 못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

오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앗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 약속(24~34)

이제 10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25)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앗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 멸망 당하게 될 것이지만 남 유다의 경우는 다릅니다. 비록 앗수르에 의해 고통을 겪을 것이지만 전멸이 아닙니다. 절대민음의 소유자들은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앗수르를 향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채찍으로 쓰임 받았지만 이제는 그 채찍이 오히려 그들을 향하게 됩니다.

(33~34)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꺾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뾰족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베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꺾으시고 마치 나무를 베어 버리듯이

앗수르를 베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앗수르군은 규모에서나 전력상 지상 최고의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힘없이 꺾여지고 베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오늘 우리를 당신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이 땅에 남겨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흘러갈 수 있는 삶의 투명성이 없다면,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자비와 배려가 없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된 것임을 망각하며 교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에 의해 꺾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가리켜 영어로 history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His story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표적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나가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표적다운 모습으로 이 하루를 가꾸어나가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하나님 구원역사의 현장으로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표적으로 삼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흘러갈 수 있는 삶의 투명성과 약자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속에 오늘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표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저희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 구원역사의 현장이 되는 은총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1~2절)?
2.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앗수르가 도리어 심판의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12절)?
3. 하나님 앞에 남는 사람, 곧 하나님께서 남겨 두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20절)?
4.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또렷하게 느꼈던 적이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5. 오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표적다운 모습은 무엇일지 묵상해 봅시다.

메시야가 다스리는 나라

이사야 11:1~16

1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3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4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6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7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 젓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젓 떼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10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11 그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서 그의 남은 백성을 앗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12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

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흠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13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14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15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테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16 그의 남아 있는 백성 곧 앗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메시아(1~5)

쇠퇴일로로 걷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말입니다. 반면에 주변 강국 앗수르의 위세는 무섭습니다. 제국주의적 야심과 군사적 힘으로 주변나라를 거침없이 짓누릅니다. 그들의 야만적인 폭력과 포악에는 피가 흥건합니다. 그들의 위협은 이스라엘에게도 위기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맞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주전 8세기의 주변 상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역사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가감 없이 전합니다. 어쭙지 않은 희망과 위로가 아니라, 사탕발림의 텅 빈 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전합니다. 이사야 10장에서는 거칠 것이 없던 서슬 퍼런 앗수르의 멸망을 가감 없이 예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새로운 메시아 나라를 소개합니다. 세계 패권이 앗수르 제국에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새로운 왕국으로의 전환을 선포합니다.

(1)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합니다. 희망적인 그림입니다. 밝은 미래상입니다. 하지만 단서가 있습니다. 그 시작점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여야 합니다. '줄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게자'는 잘려진 나무의 '그루터기'(밑동치)라는 의미입니다. 이새의 후손들이 마치 잘려나간 나무와 같게 됩니다. 다시 말해 다윗 왕조가 잘려서 쓰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여전히 건재한 다윗 왕조를 향해, "너희는 끝난다!, 곧 망해!, 잘려질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선포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다윗 왕조는 잘려나가고, 새로운 왕의 탄생이 절실한 것이 현실입니다. 첫 번째 다윗 왕조는 실패입니다. 이제 이새의 줄기(그루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새로운 왕조를 고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실패와 몰락의 그루터기에서부터 새싹이 돋음을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그 원점에서부터 새롭고 이상적인 왕을 고대합니다.

"이 쓰러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여기 그루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새로운 구원의 왕, 메시아를 바라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루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완전한 멸망의 자리에서, 나 자신의 실패와 무력,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내가 조금 부족한데, 그 부족함만 좀 채워주시고, 조금 고쳐주시면 됩니다."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의 완전한 사형선고 이후에,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게 전적인 구원이 절실합니다. 내 안에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살아있는 것, 건질만 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의 고백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발점입니다. '이새의 줄기', "그루터기!" 그 자리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적인 통치자자, 메시아는 지금까지의 다윗 왕조의 임금들과는 다릅니다. 2~4절을 새번역성경으로 읽겠습니다.

(2)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메시아에게 주님의 영이 풍성하게 임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권능의 영이요,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합니다.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은 이상적인 왕입니다(사61:1~4).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임금들의 통치와는 전향지차입니다.

(3~4)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우리의 눈의 구멍이 얼마나 작습니까? 귀의 구멍 또한 조그마합니다. 이 작은 눈구멍으로, 이 조그마한 귓구멍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제한되고 한계가 있습니까? 다 보고 다 들을 수도 없을뿐더러, 화려한 언변과 큰 소리에 휩쓸리기 십상이고, 춤사위에 우리 눈이 현혹되기 십중팔구입니다. 눈과 귀로 제한된 판단과 결정은 옹졸할 때가 많고, 힘과 여론에 요동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왜 세상 임금들은, 아니 우리는, 눈과 귀에 의존해 판단하고 결정하며 사는 것이겠습니까? 눈과 귀로 즐거움을 삼는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제일 큰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눈과 귀에 의존하여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고, 억눌린 사람들의 신음이 들리는 겁니다. 힘과 권력을 거침없이 부리는 앗수르의 통치방식이 아니라, "나는 힘과 권력이 없어요." 하며 겸손한 척은 다해도 눈과 귀로만 판단하고 결정하는 까막눈 통치가 아니라, 마음 상한 자와 지치고 힘겨워하는 자들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 메시아의 성품, 그 메시아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담겨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

로 믿는 우리인데, 그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소망한다고 밥
먹듯 찬양하는 우리 일진데, 그런데 어찌 주님의 성품과는 이리
도 엇나가 있는 것입니까?

메시야가 다스리는 나라(6~9)

(6~9)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떼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상상이 안 됩니다. '정글 같은 약육강식의 이 시대에서 이
런 이상적인 평화의 나라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아니, 이
리가 어린양과 함께 사는 것,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어린 양과 어린 염소 같은 서
민들이 먹고 입고 사는데 염려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이면 얼마
나 좋겠습니까? 메시야가 다스리는 이 아름다운 나라, 이 평화
로운 나라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보란 듯이 완성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
부터 미약하게나마 시작될 수는 없는 것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요, 순진한 생각입니까? 내적으로는 극심한 빈부 격차로 반

목과 갈등, 기득권층의 압제와 횡포에 대한 사회적 울분, 입에 풀칠도 어려웠던 빈민 소작농들의 비천함, 그리고 외적으로는 앗수르의 야만적인 폭력으로 신음하던 주전 8세기 이스라엘 공동체 한복판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평화로운 메시아의 나라를 꿈에 그리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그 나라가 오늘 바로 여기에도...'

그런데 무려 2800년이 지난, 작금의 시대 역시도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여전히 사회적 신음과 아픔이 쟁쟁합니다. 이 서글픈 공동체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외치고 바라고 꿈꿔야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울 거란다.'의 외침만으로, 공동체가 무너진 오늘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우리의 책임을 회피해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차고 넘쳐서, 정의와 평화가, 그렇게 사람 사는 세상다음이 하수처럼 흘러넘치는 나라가, 그 날에만 완성되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찬양하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사자들이 어린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사막에 샘이 넘쳐흐르리라' 찬양 중)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살아가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역사적인 위기의 그루터기 상황에서, 메시아를 고대하며 그 나라를 꿈꿨던 이사야처럼 우리도 겸손히 그 그루터기의 자리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평화로운 나라가 오늘 바로 여기, 우리 안에서 시작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이새의 '줄기'(그루터기, 1절)가 새로운 시작점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그루터기'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 본문(2~4절)에서 메시아의 성품을 찾아보십시오. 오늘 당신의 성품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3.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을 본문(6~9절)에 비쳐 상상해 보며 그려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공동체와는 무엇이 다릅니까?
4. 오늘 새롭게 결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날

이사야 12:1~6

1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2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
 회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3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 4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
 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5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6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그 날(1~3)

오늘 본문인 12장에는 포로에서 해방될 그 날에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1)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 날은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회복되는 날입니다. 비록 불의를 미워하시기에 죄에 대해 분노하셨지만, 그것은 그 백성을 멸절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백성에게서 불의를 떼어내어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회복의 그 날을 약속하셨습니다. 위기 같은 상황에서도 이 약속을 붙들고, 과거의 현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은 마를 날 없는 인생의 눈물이 그치는 날이고, 이 땅에서의 고통도 그치고 완전한 쉼 속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 날’은 현재를 이겨낼 힘을 주고, 현재를 바로 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그 날’이 있음을 늘 상기하고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그 날’에 대한 소망의 눈으로 보고 해석함이 중요합니다.

(2)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할 유다 백성들은 위기 앞에서 여지없이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다른 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당신의 힘으로 계속 그 백성을 이끌어

오셨지만, 현실의 눈만 가진 그들은 위기에 처하자 힘의 진정한 실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눈만 가진 이방인들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 백성이 선택한 그 결정으로 포로기라는 혹독한 시간을 지나게 하시며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결코 그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음과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며, 삶으로 고백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향은 이와 같습니다.

말과 생각만 하나님이 나의 구원되심을 고백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절실히 느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고통 앞에서, 위기 앞에서 아무런 실제적인 힘이 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막막한 절벽 앞에서 있다고 느끼는 그때 친히 우리를 안고 그 절벽을 넘어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는 실제적인 힘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위기 앞에서도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에 눈을 돌리기에 하나님의 힘을 그 정도밖에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순간에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신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진정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주님께 온전한 신뢰를 드리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당신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3절에서는 그 날 유다 백성이 누리게 될 기쁨을 적고 있습니다.

(3)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이다

여기서 물은 생명력과 풍성함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더라도, 광야의 길을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또한 그 은혜를 통해 영적 생명력의 깊이와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생명력과 풍성함은 우리에게 진정한 숨을 쉬게 해 줍니다. 많이 가졌고, 많이 누린다고 숨이 쉬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숨은 그렇게 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와의 교제를 통해 주님 주시는 물을 마실 때에 진정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 숨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4~6)

그 날이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그 날은 포로에서 회복될 그 날입니다. 그 날 회복을 경험한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감사입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회복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얻어진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는 한 번의 인사로 마쳐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 잊어 말고 기억해 내야 하는 단어입니다. 그 감사와 함께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서 하신 아름다운 일과 그분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는 것입니다.

(4~6)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서 우리 삶에 행해오신 아름다운 일과 그분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요 사명입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리지만, 지난 시간을 되짚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여 행해오신 아름다운 일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평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해오신 감사의 이유를 떠올린다면 감사는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고, 그 감사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넘어 세상으로 흘러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삶에 행해오신 그 아름다운 일을 늘 떠올리며 감사를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닿든 닿지 않든 주님께서서 우리 삶에 아름답게 행해오신 그 일을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알리고 흘러보내는 하루이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지어져 가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마르지 않는 우리의 눈물이 닦여질 그 날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허망한 세상을 부여잡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 삶에 행해오신 아름다운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세상에 흘려보내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교제 가운데 진정한 숨을 쉬는 하루이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고통과 수고의 눈물이 닦여질 ‘그 날’이 있음이 지금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합니까?
2.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3. 진정한 숨이 쉬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4.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해오셨는지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를 찾아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회에 허락 되든 되지 않든 삶으로 주님을 전하기 위해 애써 본적이 있습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받은 경고라

이사야 13:1~22

1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2 너희는 민둥 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3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4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남이여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5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음이여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6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7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로다 8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 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9 보라 여호와와 그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10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돌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11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12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13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14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
 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15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리지겠고 16 그들
 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
 락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17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
 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
 게 하리니 18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
 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19 열국의 영광이
 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빌론이 하나님께 멸망 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20 그 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
 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
 며 목자들도 그 곳에 그들의 양 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21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뿔 것이요 22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개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심판날의 도래에 대한 경고(1~8)

66장으로 된 이사야의 개관이 이러합니다. 크게 3부분으로 나
 누면, 1~35장에는 하나님을 배반한 유대와 열방에 대한 심판과
 경고, 그리고 회복의 약속을 담고 있고, 36~39장에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인 아시리아 산헤립의 침략과 히
 스키야왕의 병치유 등을 담고 있고, 40~66장에는 바빌론 포로

귀환의 예언과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미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첫 부분인 1~35장은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12장, 13~23장, 24~27장, 28~35장입니다. 어제까지 살핀 1~12장은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를 향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었고, 오늘부터 살필 13~23장은 유다와 주변의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이 아닌 주변 나라들에 관한 내용이기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이 익숙하지 않고, 어려울 수 있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면,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에 영적인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과 내일 살필 14장은 ‘바빌론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솔로몬왕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었던 이스라엘은 각각의 역사를 이어오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자국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자 혼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아시리아 제국도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110년이 지난 후인 B.C. 612년에 수도 니느웨가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을 더 버티다가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빌론 제국도 남유다를 B.C. 586년에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갔지만, 그 나라도 영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빌론은 B.C.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1)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경고(히. 맛사)’란 단어는 ‘신탁(oracle)’이란 의미도 있지만, 문자적인 뜻은 ‘짐’입니다. 그것도 ‘짐승에 싣는 무거운 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받은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바빌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이 말씀을 심각하게 여겨서 반드시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바빌론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나 의미를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세속적 가치관을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무너뜨릴 군대를 소집하신다고 하십니다.

(2~3)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며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민둥산(문질러서 다 닳아버린 산, 나무가 하나도 없는 벌거

숭이 산)에 기치(깃발)를 세워서 사람들을 소집하라고 하는 것은, 만약 산에 나무가 많으면 깃발을 세웠는지 아닌지 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여도 그것이 깃발인지 나뭇가지인지 헷갈리지 않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왕과 귀족들이 살고 있는 귀한 자의 문으로 쳐들어갈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바로 바빌론을 공격할 이방 군대인 ‘메대와 파사(메디아와 페르시아)’의 군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다 자손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를 짓는 삶과 우상숭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빌론도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를 통해서 징계하셨습니다.

한 나라를 세우고, 흠으시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나온 우리나라의 역사를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만큼이나 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과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의 삶만큼이나 차이가 큼니다. 하나님께서 소집하신 군대의 현황(現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4~5)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남이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음이여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멀히려 함이로다

미디어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올라왔는데 사람이 많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더니 하나님께 사열, 하나님 앞에서 출서려고 그랬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에는 아시리아가 강대국이었고, 바빌론(바빌로니아)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 바빌론이 후에 강성해서 아시리아도 무너뜨리고, 유다도 함락할지라도, 바빌론은 영원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 나라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바빌론 사람들이 겪을 공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8)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 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도다

‘손의 힘이 풀린다’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저항 불능의 상태가 되어 자포자기하게 된다는 의미이고, ‘마음이 녹는다’는 것은 싸울 용기마저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의미이며 ‘놀란다’는 것은 당황하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산의 고

통은 여인이 느끼는 최상의 아픔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바빌론에 임할 고통이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것일 정도일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얼굴이 불꽃같다’는 것은 얼굴이 극도의 수치와 고통, 공포 등으로 인해서 핏빛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의 참상에 대한 경고(9~22)

9~22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그 참상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9~12)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서는 심판의 날에 바빌론 땅을 황폐화시킨다고 말하십니다. 그 때에는 하늘의 일월성신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어두워진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어 가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바빌론 사람들이 태양신을 비롯하여 하늘에 있는 별들을 숭배하였는데 그것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빌론뿐

만 아니라 고대세계에서 하늘의 해와 달, 별 등 천체는 인간의 숭배 대상이었습니다. 그 천체가 인간의 길흉화복을 주관하고, 운명을 좌지우지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미신적 신앙에 정문일침을 가합니다.

그래서 바빌론 사람들이 순금보다 희소하게 되고,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빌’은 정확한 위치는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당시의 유명한 금산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금산지라고 할지라도, 금을 가치가 있는 금속으로 여기는 것은 그 불변성과 희소성 때문입니다. 아마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은 돌이 되고, 모든 돌이 금이 된다면, 사람들은 금 대신에 돌을 모을 것입니다.

바빌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는 것은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교만을 그렇게 하나님께 싫어하는 것은 인간이 피조물 됨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학교 시험에서 전 과목 빵점을 받아오는 것과 자기가 아버지, 어머니가 되겠다고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전 과목을 낙제해도, 심지어 0점을 받아도 부모는 자녀를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버지, 어머니라고 착각하는 것은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한 것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교정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빌론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았던 외국인들도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14~16)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 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엮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락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바빌론은 제국의 전성기에는 세계 곳곳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큰 상권을 형성했습니다. 마치 지금 미국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제국이 몰락하고, 멸망 직전이 되자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겁에 질린 노루가 도망가는 것과 같고, 목자가 모아 주어야 하는 양들이 모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또한 심판의 날에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장정들만이 아니라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죽임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메어침을 당하는 고통을 겪는 것은 유대와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할 때에 당했던 것입니다. 바빌론은 자신들이 행했던 그대로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7~22절은 바빌론이 멸망을 당한 후에 얼마나 황폐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19)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바빌론은 갈대아 사람들의 노리개와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된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지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즉 바빌론이 망한 것은 군사력이 약해졌기 때문이거나, 경제적으로 못살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 그 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 곳에 그들의 양
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라비아 사람들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떠도는 유랑민족으로 목축과 수렵에 능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데서나 천막을 치고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마저도 그곳에 장막 치기를 거부한다는 말은 바빌론 땅이 사람의 주거지로서만이 아니라 잠시 유숙하는 곳으로도 사용되지 못할 만큼 철저히 황폐해질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1~22절에 보면 완전히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야생 동물원 같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당시까지는 극히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바빌론의 이야기를 유다 자손들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숭배를 했다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보다, 그러한 길을 가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

기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한 호소이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평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은 최상의 은총이자 행복입니다. 지난 주일의 설교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수레의 양쪽 바퀴와도 같습니다. 어느 하나가 없이는 결코 지어져 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불순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치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0년 뒤의 바빌론 이야기를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실 정도로 그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시며, 자상함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의 삶은 늘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와 같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빌론이 아무리 대제국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개를 가로 저으시면, 한순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실 수 있음도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오늘 하루 분량만큼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바빌론은 자신들의 오만함과 거만함,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길을 걸음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당신을 더 크게 여겼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2.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이 흠어질 수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흠어지게 하셨거나, 모일 수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모으신 일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3. 하나님은 미래에 강대국이 되었다가 무너질 바빌론 제국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깨우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통해서 현재의 당신을 깨우쳐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이사야 14:1~32

1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2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와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3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4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5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6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7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8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으니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9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10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11 네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음이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

다 12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
 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
 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15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
 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16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
 펴 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17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
 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18 열방의 모든 왕들
 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마는 19 오직 너는 자기 무
 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
 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20 네가 네 땅을 망하
 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21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
 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22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
 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3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
 고 또 멸망의 빛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
 니라 24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
 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25 내가 앗수르를 나의 땅
 에서 파괴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 때에 그의 명예가 이스
 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26 이것
 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27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28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29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30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네게 남은 자는 살륙을 당하리라 31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32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바빌론에 대한 조롱(1~23)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던 이스라엘은 각각의 역사를 이어오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앗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앗수르 제국은 피지배국의 힘을 무력하게 만들고자 혼혈 정책을 썼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앗수르와 혼혈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앗수르 제국도 B.C. 612년에 수도 니느웨가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됨으로 무너졌습니다. 앗수르를 무너뜨린 바빌론 제국도 남유다를 B.C. 586년에 함락하고 많은 사람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갔지만, 그 나라도 영원하지 않아 B.C.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를 정복한 바빌론은 메소포타미아 남쪽의 고대 왕국으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남동쪽에 위치했습니다. ‘바빌로니아’라는 이름은 바빌론(Babylon)에서 유래하였고, 경작이 용이하고 상업이나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형이어서 이민족의 침략을 많이 받았기에 힘이 강성해진 이후에 정복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한 민족입니다. 6번째 통치자이던 함무라비 왕 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였고, 일찍부터 왕권강화를 위해 세금과 관료제도, 법치국가 형태의 중앙정부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한 나라가 일어나고 한 나라가 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찌 영원한 나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의 섭리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패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박국 1:3~4, 새번역)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악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헐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1:6, 새번역)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 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렇다면 바빌론이 강성하게 된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이 있는 동안 바빌론은 그 힘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에 권세를 부리고 억압을 가했으며, 절대 권력과 학대를 가했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에 함락되면, 자신의 힘이 자신의 것인 줄 압니다. 바빌론이 많은 나라에 학대를 가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십니다.

(1~2)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여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와 그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하나님의 공의는 죄악의 길을 걷는다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라도 심판을 받게 하시며, 심판의 도구가 되라고 주신 힘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면 바빌론이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교만하던 바빌론이 하나님의 꺾으심에 패하고 나자, 레바논의 향나무와 백향목도 바빌론의 종말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8)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풀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바빌론이 이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도 안식의 자리가 거부되고 있으며, 모두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배경은 바빌론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기 때문입니다.

(12~15)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짚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계명성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헬렐’은 ‘할랄’에서 유래한 단어로 그 의미는 ‘빛나다’의 의미입니다. 계명성은 동트는 아침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 중 가장 밝게 빛나는 금성의 의미합니다. 바빌론은 이처럼 영화롭고 높은 위치를 차지하면서 찬란한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으나, 결국 스올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빌론이 멸망의 빗자루로 깨끗이 청소되어 그 이름이나 남은 자, 아들이나 후손이 없는 황무지로 변해 버릴 것입니다.

(22~23)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롭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빛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느끼던 중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가는 세속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손길을 구하고 계십니까? 비전은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는 길이며,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2:3~4)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앗수르와 블레셋을 향한 심판(24~32)

이어서 앗수르와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예언되고 있습니다. 앗수르에게도 분명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지난 10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와 몽둥이로서 역할을 해야 했던 앗수르도 역시 교만하여져서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일삼았습니다. 그 즉시 자신의 교만이 자신을 치는 심판대가 되어 스스로 몰락해버린 것

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27)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퍼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블레셋은 자신들을 치던 앗수르나 바빌론의 멸망을 바라보
며 기뻐합니다. 유다의 12대 왕 아하스 왕이 죽던 해와 비슷하
게 블레셋을 괴롭히던 앗수르의 살만에셀 5세가 사망하자 블레
셋은 앗수르에 대한 반역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교만한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30)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네게 남은 자는 살륙을 당하리라

앗수르와 블레셋의 멸망 속에서 바빌론 제국의 등장과 최
종 멸망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
다. 지금 힘이 있다고 그 힘을 절제하지 않고 공의롭게 사용하
지 못하면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꺾이게 됩니다. 지금 곤고
하다고 하여 절망하고 낙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
시 보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빌론, 앗수르, 블레셋
이 하나님의 심판에 꺾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32)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여기며 의지하는 모든 이들을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바빌론, 앗수르,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단지 심판으로만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심판의 메시지는 어서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이 외침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굳게 서서 환경에 눌려 억압당하고, 절망의 눈물을 흘리며,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성숙해져가는 길입니다.

오늘의 기도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은 그저 무섭게만 여겨졌습니다. 꺾으시고 멸하시겠다는 말씀 안에는 실상 어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숨어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피난처가 없는 이 시대에, 오늘날 교회가 교만을 내려놓고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교회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곤고한 자들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더욱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최근 내 주변에 항상 있을 것 같았으나 없어진 것(사람, 물건, 환경 등)은 무엇입니까?
2. 그 경험을 통해 느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3. 교만으로 꺾인 나라들(바빌론, 앗수르, 블레셋)을 보며, 내려놓아야 할 나의 교만은 무엇인지 묵상해봅시다.
4. 모든 곤고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결단해봅시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사야 15:1~9

1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일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 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2 그들은 비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3 거리에서는 굵은 베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4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5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예글랏 슬리 시야까지 이르고 울며 루히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니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6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7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8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돌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예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엘림에 미치며 9 디본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사야 12장까지는 남 유다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관한 예언이 중심 내용이라면 13장부터는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세계 열국에

관한 심판이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주요 열국으로는 바빌론, 앗수르, 블레셋, 모압, 에디오피아, 애굽, 아라비아 등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특정 민족이나 국가에 한정되지 않으며 어느 민족이나 국가라도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와 심판을 내리심을 알게 됩니다. 15장과 16장에는 모압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사야 15장의 특징

이사야 15장에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앞 장에서 나타난 바빌론, 앗수르, 블레셋에 대한 경고와는 달리 고유명사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에 대한 경고시 지명을 많이 언급하셨겠습니까? 9개 구절에 약 16곳이나 언급된 많은 지명들은 당시 예언을 듣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대 예언서를 듣거나 읽게 될 사람들에게 이 예언의 성취에 대한 확실성을 강하게 느끼도록 합니다. 지명들에 대한 언급은 미래에 있을 법한 한 예언가의 막연한 예언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비록 모압에 대한 지리나 역사적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열거된 지명들로 인해 경고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곳 지리에 익숙한 사람이 듣는다면 그 예언의 사실적(寫實的) 묘사로 인해 경고의 말씀은 전혀 다른 느낌으로 와 닿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언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지역들의 명

칭들로 열거되어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서울의 무슨 구가 황폐할 것이며, 그래서 그 구 주민들이 북한산에 올라가서 통곡할 것이며’라는 식의 예언을 듣는다면 그 느낌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막연한 예언으로 여기거나 무심코 지나치기 어려운 정도의 사실적 표현에 마음을 졸이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15장에 지명들을 언급한 또 다른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일부 지역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요단강 동편에 차지해서 살았던 지역임을 알리고, 그것을 모압이 빼앗았고 또한 그 강탈이 모압에 대한 경고와 무관하지 않음도 알리는 것입니다.

모압의 기원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 발생한 족속이며, 이들로 형성된 나라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의 형제 국가인 셈입니다. 모압은 국가명, 지명이기도 하지만 인명입니다. 과거 멸망했던 죄악의 도시 소돔에 거주했던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이 멸망하기 전 탈출하여 피신한 곳이 소알이었고, 이곳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던 롯은 인근 산으로 피신하여 굴에서 한동안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롯이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취했을 때에 그의 딸들이 동침하였고, 이후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알이 언급되는데 소알이 왜 모압 족속의 영역이 되었는지 롯의 거주 경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소알은 사해 최남단에 위치하면서 모압이 태어나서

생활했던 영역이었습니다. 모압과 모압의 후손들이 자연스럽게 소알 지역을 포함해서 사해 동남쪽 지역에 터전을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창19장).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그모스를 섬겼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로부터 군사적 공격을 받았을 때 그 환난을 자신들이 믿는 국가신의 힘을 빌어 극복하고자 만아들을 극악무도하게 인신제사로 바쳤습니다.

또한 모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40년 광야생활의 막바지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압은 이스라엘의 통과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삿1:17~18).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압의 영역 밖 동쪽으로 우회해서 힘들게 요단강 동편까지 이동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은 인접국가로서 교류나 갈등관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모압의 압제를 받은 적이 있었고(삿3:12~30), 반대로 다윗 시대에는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받쳤으며(삼하8:2),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기에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산당이 예루살렘 앞에 지어지기도 했습니다(왕상11:1~8). 이런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며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패망과 애곡

- (1)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일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사해의 대략 중간 지점에는 동쪽으로 연결된 아르논 강이 있습니다. 모압의 ‘알’과 ‘기르’는 아르논 강의 남쪽에 있던 성읍들입니다. 아르논 강 위쪽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쪽을 점령했는데 이때 르우벤 지파가 아르논 강 위쪽부터 시작해서 사해 최북단 조금 위까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모압의 ‘알’과 ‘기르’는 아르논 강 남쪽의 성읍이기에 이스라엘 땅이 아닌 모압의 원래 영토입니다. 이 두 성읍이 하룻밤에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하룻밤에 망하고 황폐된다는 것은 갑작스럽게 예상도 못하게 닥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정이나 국가가 서서히 망하고 황폐할 수 있겠지만 순식간에 망하여 황폐할 수도 있습니다.

(2~3)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굶은 베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그들은’ 모압의 ‘알’과 ‘기르’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드리는 산당에 올라가서 멸망을 슬퍼하며 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거주하던 지역이 아닌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한다는 것은 사해 북단에 위치한 ‘느보’와 ‘메드바’까지 멸망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느보’

와 ‘메드바’ 성읍은 이스라엘 르우벤 지파가 차지했던 땅에 속했는데 모압이 탈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멸망으로 인해 산당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공간에서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을 정도로 애통하며 슬피 울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모압 사람들은 멸망을 당할 때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없는 우상 신에게 슬피 울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만약에 괴롭고 슬픈 일을 당할 때 누구에게 그것을 아뢰며 도움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4)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아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사해는 북쪽 갈릴리 호수로부터 내려오는 요단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아하스’ 성읍들은 사해 최북단에서 조금 위쪽, 요단강 남단에서는 동쪽에 있는 성읍들로서 이스라엘 르우벤 지파가 차지했던 가장 북단의 성읍입니다. 2절에 나오는 두 성읍과 마찬가지로 모압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았던 성읍들입니다. 모압의 군사들이 모압의 북방 한계선에서 영토를 지키는 군사라고 볼 때, 모압 국민들의 슬피 울부짖는 소리에 모압의 국경방위 군사들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상세한 예언에 이사야는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선지자의 아픔과 심판의 확실성

(5~6)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히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선지자의 마음이 패망할 모압을 생각할 때 애통해서 부르짖을 정도이니 그 비참함을 엄청날 것입니다. 이 예언 이후에 모압은 역사적으로 바빌론에 의해 패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빌론은 모압 지역보다 북동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북동쪽에서 바빌론 군대가 내려오니 피난민들의 피난경로는 요단강과 사해가 가로막혀 있는 서쪽이 아닌, 남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알’ ‘에글랏 슬리시아’, ‘루히’, ‘호로나임’은 사해의 남단의 동쪽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환난 때에 생필품으로써 마실 물이 필요한데, 설상가상으로 모압 남쪽 지역에 있는 강, 니므림 물이 말라서 마실 물도 없을 것이고 가축들에게는 먹일 풀이 없을 것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북쪽 지역 사람들이 피난을 위해 남쪽으로 내려가겠지만 그곳은 피난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국경의 남방 한계선을 넘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7)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버드나무 시내는 모압과 에돔의 국경선의 역할을 했던 ‘세렛 강’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피난민들이 많은 소유물과 가축을 데리고 건너기가 쉽지 않은 장애물입니다. 모압의 피난민들은 많은 소유물을 버려야하고, 가지고 갈 수 있는 만큼의 소유물만을 가지고 타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 이후부터는 해외 난민 신세가 되는 셈입니다.

(8~9)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러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라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에글라임’과 ‘브엘엘림’은 모압의 중부 지역의 성읍입니다. 사해 동쪽에 있는 우물이 있는 지역으로써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중간 휴식처에 해당합니다. 먼저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간 사람들이 남방한계 국경선을 넘기 전에 생존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고민하며 소유물 중에 일부를 버리고 아우성치며 슬피 부르짖음이 들리니, 후발 피난민의 심리적 상태는 극도로 불안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유에 대한 애착과 움켜쥔 것을 놓을 줄 모르는 인간의 탐욕을 보게 됩니다. 디몬은 물을 얻기 좋은 장소로 보이며, 피난민들이 물을 쟁취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곳이 되거나 아니면 피난 중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죽어 그 물을 제대로 얻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점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살아남은 이곳 거주민과 각처에서 온 피난민들에게 맹수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시대적 사명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범죄한 나라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숙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서에서 환난의 때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람의 죄로 인해 이 땅이 더 이상 비참해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죄와 맞서 이겨야 합니다. 환난은 하룻밤에 닥칩니다. 그리고 환난은 맞서 이길 수 없습니다. 환난이 오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죄와 맞서 이겨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죄악에 빠져 멸망하기 직전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야 선지자가 모압의 멸망에 애통하며 부르짖었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멸망할 줄 모르고 죄악된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십시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모압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저희들과 무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옵고, 이 시대에 이 나라와 세계 나라 사람들이 모압이 행했던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그 길에서 돌이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세계 나라들이 모압의 경고를 받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모압이 멸망의 경고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역사적으로 모압은 멸망의 경고를 받은 후 멸망해 역사에 사라졌습니다. 나라나 사람이 멸망의 경고를 받았다면 그 멸망이 필연적으로 닥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오늘날 한국 주변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내려진다면 무슨 이유로 내려지겠습니까?
4. 이사야 15장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처럼 이 땅에 비슷한 경고가 내려진다고 가정하여, 예언자적 입장에서 도시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글(픽션)을 간략히 써 보십시오.
5. 교회가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사람에게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이사야 16:1~14

1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2 모압의 딸들은 아르는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3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 같이 그들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4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5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6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7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8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십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짝이 지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9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십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네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10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

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11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 같이 소리를 발하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12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13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 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14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삼 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패망을 피할 두 방안 제시(1~5)

이사야 13~23장까지 열 한(11)장은 유대와 주변의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3~14장 상반부는 바빌론 제국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 14장 하반부는 아시리아와 블레셋을 향한 말씀입니다. 15~16장은 모압을 향한 말씀이고, 17장은 다메섹(아람_시리아)과 에브라임(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입니다. 18~20장은 애굽을 향한 말씀이고, 21장 상반부는 바빌론을 향한 2차 예언의 말씀이고, 21장 하반부는 두마(에돔)와 아라비아에 대한 말씀, 그리고 23장은 두로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장은 어제에 이은 모압을 향한 말씀입니다. 15장이 모압이 받을 심판에 대한 경고라고 한다면, 16장은 모압이 심판을 받지 않는 방안과 그 결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특히 1~5절은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

2가지를 제시합니다.

(1~2)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는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지금 모압 사람들의 형편은 내려앉을 곳이 없어 계속 날아다니는 새와 같고, 또 등지인 보금자리에서 떨어진 새 새끼와 같다고 합니다. 새가 하늘을 나는 짐승이라고 해도, 쉬지도 않고 날아다닐 수 있는 로봇이 아닙니다. 로봇이라 하더라도 전원을 공급받아야 계속해서 날 수 있습니다. 새도 날아다니다가 힘들면 나뭇가지 위에서든지, 절벽 바위 위에서든지 내려앉아 먹이도 먹고 쉬어야 힘이 회복되어서 다시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지도 쉬지도 않고 계속 날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또 새가 하늘을 나는 짐승이라고 해도, 태어나는 그날부터 창공을 날아다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정 기간 등지 속에서 어미새가 물어다 주는 벌레와 같은 먹이를 먹으면서 힘을 기르고, 그리고 반복된 나는 연습을 통해서 비로소 하늘을 날게 됩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새가 나무 위 등지 위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그저 땅바닥에서 파닥파닥 거리기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는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앓을 곳이 없어서 날아다니는 새와 갓 태어나 등지에서

떨어져 땅바닥에서 날지 못하는 새끼 새의 모습이 모압의 자화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양을 드리라’ 즉, 모압이 남유다에 조공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의 아합왕 때에는 북종의 표시로 매년 암양과 수양 각각 10만 마리씩, 20만 마리를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래도 남유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망하게 된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것 만해도, 엄청난 일인데 조공까지 바치라고 합니다.

그것은 유다가 강대국이어서 모압을 책임져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압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압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라고 우회적으로 권유하는 것입니다.

(3~5, 표준새번역)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모압이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방안은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모압 땅으로 피난 온 유다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숨겨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는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윗 가문의 왕권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압의 우상숭배와 범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인이라도 멸망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압은,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 모압으로부터 국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유다)과는 형제국가입니다. 그리고 롯기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롯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다윗도 사울왕에게 도망을 다닐 때에, 그 부모를 돌볼 수가 없어서, 그 부모를 모압왕에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교만으로 권고를 거부함과 그 참상(6~14)

구원과 회복의 길을 제시받은 모압의 반응은 참 이 쉽고 안타깝습니다.

(6)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모압은 하나님께서 내밀어주신 자비의 손길을 뿌리치고, 멸망을 자초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모압이 가진 중한 질병은 ‘교만’이었습니다. 6절 한 절에만 ‘교만’이 3번, ‘거만’이 1번 등 모두 4번이나 나옵니다. 교만과 거만은 같은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교만’을 사전에서 찾으면,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자신의 실제보다 크게 생각하는 것이고, 자신을 자신보다 더 크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은 항상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할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과 거만한 사람은 패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잠16:8).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만한 모압이 어떻게 되는지 본문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7~8)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심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색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모압이 통곡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7절 전반부를 ‘그러므로 모압이 통곡하되’라고만 해도 충분한데,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라고 말씀합니다.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한다’는 것은 모압이 통곡할 때에 모압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압만 모압을 위해서 울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슬픈 일이나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곁에서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는 것은 큰 복입니다. 인생의 꽃길을 걸을 때 함께 즐거워 해 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 나중에는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함께 울어준 사람은 잊어지지 않고 평생 고맙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와서 함께 웃어준 친구보다, 장례식에 와서 함께 울어준 친구가 더 오래 기억됩니다. 그러나 모압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길하레셋’은 모압의 대표 과일인 건포도 산지로 보입니다. 또 ‘헤스본’과 ‘십막’도 포도산지로 유명하였습니다. 와인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년 11월 3째 주 목요일 자정을 기다립니다. 프랑스에서 숙성시키지 않고, 발효 즉시 내놓는 신선한 포도주, ‘보졸레 누보(Beaujolais Nouveau)’를 판매하는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보졸레 지역은 프랑스 리옹(Lyon) 약간 위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프랑스의 보졸레 같은 도시가 모압의 길

하레셋, 헤스본, 십마였습니다. 그 도시들에서 생산되는 포도가
그토록 자랑스러웠지만 이제는 그 가지들이 다 꺾이고 말았습니
다.

(9~11) 그러므로 내가 아벨의 울음처럼 십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네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 같이 소리를 발하며 내 창자가 갈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과거에는 결실기가 되면 소출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는데, 이제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주 틀
에서 포도를 밟을 사람조차 없다고 탄식합니다. 고대 중동 사람
들은 창자를 감정의 좌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11절의 모압과
갈하레셋을 생각하니 창자가 수금같이 소리를 낸다는 것은, 수
금을 튕기면 소리가 나듯이, 꼬였던 창자가 풀리면서 뱃속에서
악기소리가 나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사
야 선지자가 모압을 위하여 느끼는 슬픔과 고통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
다.

(12)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다

모압의 신은 ‘그모스’였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 산당에 가서 지극정성을 드리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슬픔을 걷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비는 대상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허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허상의 신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사람을 행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는 ‘저 사람은 미신이 세다’고 말합니다. 바른 신앙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13~14)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 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삼 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은 처음이 아니라 예전부터 하셨던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 당장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3년의 기한도 주셨습니다. “내가 예전부터 말했고, 또 기한도 주었으니,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내(하나님)게로 돌아오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
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B.C. 582년 바빌
로니아 제국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고 말
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에게 그렇게 살
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망하게 된다고 엄중하게 경고의 말
씀을 하셨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유다에게 조공
을 바치고, 유다 사람을 거두어 주라)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포도생산으로 대변되는 자신들의 경제력, 자신들
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또 그모스 신에게 빌면 될 것이라고 스
스로 위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
니다. 그들이 그런 비극적인 결론을 맺은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
님을 믿는 것도 없었고, 하나님을 아는 일도 없었기 때문이었습
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르지 못한 삶,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설교를 통해
서나 성경읽기를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신앙생
활하면 낭패를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도 자세하게 일깨워주십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자기가 가진 것
을 더 신뢰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을 더 고집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모압 사람들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갑시다. 그때에 오늘 하루는 어제와 다른 새로운 은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모압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특별하였습니다. 그들의 바르지 못한 삶과 믿음을 지적해주시고, 어떻게 해야 패망의 길로 가지 않는지, 또 어떻게 해야 국가적으로 낭패를 당하지 않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너무 교만하였고, 거만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난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고, 그들의 미신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오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앓도 없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주실 때, 교만하여 목이 곧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오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분량만큼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은총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당신이 허물과 실수, 연약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2. 모압은 자신들이 가진 것이 충분히 자신들을 지켜 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신뢰하였다가 낭패를 당한 일은 없습니까? 그 때에 어떤 교훈을 받으셨습니까?
3. 모압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듣지 않다가, 순종한 적은 없습니까? 그 때에 어떤 유익이 있으셨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오직 주 안에서

이사야 17:1~14

1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정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2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3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 그 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5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6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뵈겠고 8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9 그 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린 바 된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10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11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네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12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13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14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대와 주변의 10개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다메섹(아람_시리아)과 에브라임(북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1~3)

(1)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람의 수도 다메섹은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연결하는 거점 도시로서 장구한 역사를 지닌 강성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도시를 향한 분명한 경고를 선포하시면서, 쓰레기 더미로 전락할 도시의 형편을 말씀하십니다.

(2)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로엘의 성읍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명으로 해석하여 요단강 동편지역의 성읍들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히’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데 아드(אֲדֵ אֲדָ)가 전승과정에서 ‘아로에르(אֲרֹעֵר)’로 잘못 번역되었다는 것입니다. 후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의 특징과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보면 충분히 타당성 있는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을 표기하지 않았습니 다. 자음만을 연속해 기록했습니다. 보다 중요한 부분은 히브리어 알파벳 달렛(ד)과 레쉬(ר)의 모양이 꺾음쇠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보다 쉽게 설명 드리면 우리말 기역(ㄱ)을 좌우상하 90°의 각을 세워 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자음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더욱이 당시에는 종이 가 아닌 파피루스나 양피지 따위에 글을 기록했기에 기록이 쉽게 흐려지거나 마모되기 일쑤였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LXX)에서는 ‘아로에르’에 해당하는 단어를 ‘영원히(εἰς τὸν αἰῶνα: forever)’로 번역하고 있고, 일부 번역본(공동번역, NRSV 외)에서는 이와 같은 해석을 그대로 취하고 있습니다.

전자이건 후자이건 본 절에서의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성읍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폐허가 된 도시에 남아 있는 생명은 짐승뿐이었습니다. 제아무리 강성한 나라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아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메섹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

판을 확증하는 동시에 북이스라엘이 함께 언급됩니다.

(3)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공동번역은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보다 쉽게 전달합니다.

(3) 그리하여 다마스쿠스가 그 주권을 잃어 에브라임의 기뻐할 곳이 무너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영화가 사라지듯 시리아의 남은 자도 사라지리라. 이는 내 말이니 어김이 없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이후 북이스라엘에서 주도적인 세력이였기에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점차 영토를 확장해오던 신흥 강국 앗수르를 견제하기 위해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아닌 다메섹을 의지했습니다. 다메섹과 동맹을 맺으며, 남유다와의 전쟁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결국 역시 다메섹과 그 운명을 같이 할 것이 전해집니다.

단락의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이 발신자를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마치 문서를 작성한 후에 왕이 도장을 찍어 그 내용의 발효를 알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진 호칭과 더불어 그 메시지가 때가 되어 성취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4~6).

(4~5) 그 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앞선 하나님의 경고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날, 이스라엘이 처하게 될 비참한 상황의 묘사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한 사람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대대손손 영광을 누렸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진 순간 그 영광은 시들고, 아위게 되는 것은 자연스레 이어질 결과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추수자로 북이스라엘을 밭에 심겨 있는 곡식 줄기로 비유하여, 추수자에 의해 곡식은 다뺏히고 이삭조차 남지 않은 황량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앞서 언급된 다메섹을 향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은 그들과의 차이를 이야기 합니다.

(6) 그러나 그 안에 주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앞서 다메섹을 향한 예언에서는 남은 자의 멸절이 예고되었습니다. 그와 달리 본 절에서는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 비유를 통해 미미하지만 남은 자들이 존재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어 단락의 마지막에는 3절에서와 같이 발신자를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예언의 내용의 발효를 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기록되었던 '만군'이라는 호칭과는 달리 여기서는 특별한 관계를 부각시키는 '이스라엘'이라는 호칭과 더불어 메시지가 선포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그날의 일들에 대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그 날에 일들(7~14)

(7~8)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뵈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비로소 눈앞에 강성해 보이던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헛된 것임을 눈으로 보아 깨닫게 될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손으로 만든 우상과 그의 재단을 등지고 자신을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우상을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때가 멸망의 경고가 이루어지는 '그 날에' 일이 아닌 '그 전(날)에' 일일 수는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안타까운 그날의 환경에 대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9) 그 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린바 된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11)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네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그 날에는 제 아무리 견고한 성읍을 쌓았을지라도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와 같이 황폐할 것임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이 내쫓았던 히위 족과 아모리 족의 성읍들을 이와 같이 은유함으로 결국 이스라엘 성읍이 그들과 같이 폐허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작물을 심고, 수고하여 열매를 누리게 될 것으로 보였으나, 수고함과는 달리 열매가 없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비극적 상황을 마주하게 될 원인은 분명했습니다.

(10)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증하는도다

비참한 상황과 환경에 처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결코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이방의 신이 그들의 땅에 그들의 마음에 심기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던 그들에게 출애굽을 통해 자유를 허락하시고, 머무를 곳이 없어 떠돌던 그들에게 기업(땅)이 허락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토록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세속의 열매를 향

한 탐심으로 인해 하나님은 점차 잊혀 갔고,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이방의 신들도 분별없이 받아 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열망을 향한 암시와 비유로 예언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열방을 향한 예언(12~14절)

(12)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물이 물러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문장의 첫머리는 ‘슬프다’ 는 감정의 표현으로 번역되었으나, 원문에는 비통한 심정을 나타내는 탄식을 표현하는 감탄사(ㄱ)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언자는 탄식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다 파도치는 소리로 비유하여 열망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삽시간에 몰려들어 무섭게 충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보이고, 또 들리는 바다의 파도도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얻게 될 결과 역시 분명했습니다.

(13~14)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물러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제 아무리 강한 열방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꾸짖음으로 표현된 심판 앞에서는 ‘바람 앞에 거의 흠어짐’과 ‘폭풍 앞에서 떠도는 티끌’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속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세력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저 연약한 피조물들의 군집에 불과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노략하고 강탈한 자들이 받게 될 몫과 보응은 결코 은과 금이 아닌, 부귀와 영화가 아닌 하나님의 그 꾸짖음, 심판이 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강조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기인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입니다. 본문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지 교훈을 건넵니다. 제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세상의 국가, 사조,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동체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표어의 말씀의 기록된 에베소서 2장22절의 후반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공동체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새벽묵상을 통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자연스레 함께 지어져갈 것 입니다.

오늘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허락해주신 오늘. 결코 대단해 보이는 세상의 헛된 것을 좇지 않고, 오직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기를 힘쓰며, 주의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저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이사야의 심정으로 본문을 묵상하여 봅시다.
2. 때때로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3.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4. 오늘 하루의 삶도 주안에서 함께 지어저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결단해 봅시다.

너희는 들을지니라

이사야 18:1~7

1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2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3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4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짝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5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낮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짝여 버려서 6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 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7 그 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에 이르리라

이사야 13~23장은 유대와 주변의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이며 경고입니다. 그중에서 본문 18장은 구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스에서 보내는 사자들(1~3)

(1)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1절 말씀은 ‘슬프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슬프다’라는 단어는 원문으로 봤을 때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선포에 대한 놀라움과 두려움을 표현한 감탄의 뜻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라는 말은 마치 곤충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연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구스(에디오피아) 건너편 나일 강 상류를 가리키며, 상선들이 분주하게 강을 따라 오르내리는 것을 마치 벌레들이 날아다니는 것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상선들이 많이 다니던 나일 강에는 상업 말고 다른 이유로 배가 다니기도 했는데 바로 중요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절단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2)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이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2, 현대인의성경) 그 땅에서 사절단이 갈대로 만든 배를 타고 나일 강으로 내려오는구나. 날쌔 사자들이, 집으로 돌아가거라. 땅이 강으로 나누어진 나라, 막강하여 다른 민족을 짓밟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거라. 키가 크고 탄력 있는 피부를 가진 백성, 온 세상을 두렵게 하던 너희 백성에게 돌아가거라.

2절에서는 갈대로 만든 배를 타고 사절단을 나일 강을 통해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아기 모세를 구하기 위해 모세의 부모가 갈대상자를 만들어 물에 띄운 것처럼 당시에는 갈대를 엮어 배를 만들었습니다. 갈대로 만든 배는 강을 지나기에 가볍고 빠른 배로써 정보를 전달하기에 가장 적합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사절단을 보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남유다는 앗수르의 대군에게 공격을 받고 있어서, 수도 예루살렘이 점령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것을 주변 나라 구스의 왕이 알고 사절단을 보내어 남유다에 지원군을 보내 전쟁에 동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2절 상반절에서는 구스에서 유다로 사절단을 보내는 것이고, 2절 하반절에는 남유다에 왔던 사절단을 다시 구스로 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사절단을 돌려보내며 남유다에서 전달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3)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니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도움을 주겠다는 구스의 왕에 대한 대답은 구스라는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거민, 더 나아가 지상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는 두 가지인데 먼저 산들 위에 기치(깃발)를 세우거든 그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 기치는 모두가 볼 수 있게 산들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한 가지는 나팔을 불거든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 대한 신호를 기치와 나팔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4~7)

그러나 간혹 하나님의 신호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분명하게 기치를 세우고 나팔을 들려주시지만 어느 때는 철저히 침묵하시기 때문입니다.

(4)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찌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4, 새번역성경)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보겠다.” 추수철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한여름 폭염 속에서 띄약별이 고요히 내리쬐듯이,

하나님은 신호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침묵하시며 지켜보십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조용히 내려다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앗수르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기 직전이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연현상으로 비유하십니다. 아무리 전쟁이 있다고 해도, 자연은 자신의 일만 할 뿐입니다. 추수철 더운 밤에 이슬이 내려앉듯이, 폭염 속에서 띄약별이 내리쬐듯이 시간

이 지나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자연 현상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힘을 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때와 계획대로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연현상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의 생각으로 가늠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5~6)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낮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짚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 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서는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낮으로 가지를 베며 추수를 하시어 그 연한 가지를 짚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때에 그 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독수리들과 들짐승들에게 던져 주리니 그것으로 여름과 겨울을 지내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며, 이 비유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에서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19:35)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십팔만 오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서는 하룻밤 사이에 앗수르 군대 십팔만 오천 명을 치셨습니다. 셀 수 없이 많던 군대는 하룻밤 사이 모두 송장이 되어 있었고, 수많은 시체들이 생겼기에 독수리들과 들짐승들이 여름과 겨울을 지내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본문에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투였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원수들은 하룻밤 사이에 모두 진멸 당했고, 이 소식을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강성하던 앗수르가 멸망하였다는 소식은 사절단을 보냈던 나라 구스 역시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구스의 반응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7) 그 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에 이르리라

2절에서 나왔던 구스는 7절에서는 다른 모습입니다. 등장할 때는 전쟁을 하러 나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나눔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선포하였던 것처럼 만방이 그리로 모여 들며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스가 만일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구스 역시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러나 이내 하나님의 기치(깃발)와 나팔소리를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되며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호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보내지지만 그것을 발견하는 자와 발견하지 못하는 자로 나뉘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도 속이 밝을 때에는 하나님의 신호를 발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그의 속이 어두울 때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여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의 속이 밝을 때에 하나님의 신호를 듣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호를 듣고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을 믿으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기치와 멀리서도 들을 수 있는 나팔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운 우리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속이 어두운 나를 다시 밝히 비취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스가 예물을 가지고 시온 산에 이른 것처럼 주님께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세워주신 기치(깃발)와 들려주시는 나팔 소리는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2.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침묵하시며 감찰하시던 때는 언제인지 돌아봅시다.
3. 구스가 멸망당하지 않고 끝내 시온 산에 이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4.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 묵상하고 실천해 봅시다.-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다

이사야 19:1~25

1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니 2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3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니 4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박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잿아서 마르겠고 6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르므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7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 가까운 곡식 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8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 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9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베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10 그의 기둥이 부식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11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라 12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말할 것이니라 13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놉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잇돌이거늘 애굽

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14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15 애굽에서 머리카락이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16 그 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17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18 그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19 그 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20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21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22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23 그 날에 애굽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앗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앗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24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앗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25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애굽 땅은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집이었고 그들은 가혹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였습니다. 세속적 기준으로 볼

때는 강대국이며, 산업과 문화가 가장 발전된 화려한 성, 스카이 캐슬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생명과 빛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망과 어두움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 이니라.”고 요구할 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는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답변했습니다(출 5:1~2). 이스라엘은 이러한 죄악 된 세력 속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인도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민 14:4)라고 말했던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위협이 날로 커가는 것에 위협을 느낀 유다의 지도자들은 애굽이 자신들을 지켜 줄 수 있는 스카이 캐슬로 생각하고 동맹을 맺으려 했지만 실제로는 의지했다가 낭패를 당할 것이 뻔한 상한 갈대에 불과하다고 이사야는 반대했습니다(사 30:1~5). 오늘 19장에서 우리는 죄악 된 세력의 상징인 애굽에 관한 경고(1~15절)와 죄 가운데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복(16~25절)이라는 상반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1~15)

- (1)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하늘에서 구름이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도 놀라기 마련입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
다는 말은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시편 18편에는 하나님
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심판하기 위해 바람 날개를 타고 뺨뺨한
구름으로 자기를 두르셔서 임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시
18:9~10). 다윗의 나라에게 마치 친구처럼 다가오지만 실상은
치명적 위협인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 신속하게 임하시는
모습은 그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애굽의 헛
된 신들의 심판이었습니다(출 12:12). 애굽은 우상을 많이
섬겼는데 태양, 황소, 파리 심지어 양파까지도 신으로 섬기
는 헛된 종교심을 지닌 애굽인에게 자연만물을 다스리는
여호와의 신속한 강림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와해로 이어집니다.

(2~4)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학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형제에서 시작하여 이웃, 성읍, 마지막으로 나라까지 점차 정도를 높여갑니다. 주님께서도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2:25).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시지 않는다면 마음과 정신은 쇠약해지고 용기와 지식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된 지혜와 마음의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혼란한 시기에 언제나 그러하듯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우상에게 찾아가 장래의 일을 물어보고 신접한 자들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잔인한 주인(들), 포악한 왕의 독재가 언급되며 애굽인이 여러 군주에게 예속할 것이라고 말하는 데, 이들의 정체는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주전 730년에 상부 이집트를 접수한 에디오피아인 피안키를 시사하거나, 사르곤 2세 또는 산헤립의 정복, 앗수르바니팔(주전 668년), 바사인 아닥사스다 3세에 의한 애굽 침공과 정복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5~10)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잿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르므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 가까운 곡식 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 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베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숴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자기들을 만족시키고 풍족히 제공하고 지켜주는 것으로 생각했던 요새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리라고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나일강물이 말라 갈대와 부들 즉 해초와 습지대가 말라서 전국 지역에 급수가 불가능해지게 되어 농업이 망하고, 물고기는 잡히지 않아 어업은 와해되고, 강변에 나는 파피루스로 섬유와 종이를 만드는 게 불가능해지자 제조업도 쇠퇴해집니다. 각 산업을 떠받치는 사회의 기둥들은 부수어지고, 그들이 고용한 품꾼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것을 언급하며 애굽의 경제적 붕괴를 경고합니다.

(11~15)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놉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잇들이거늘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장차 애굽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는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의 지혜가 출생 문벌에 달린 듯이 자랑하는 신하들의 실상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모퉁잇들은 방백과 지도자들로 상징되어 백성을 어리석은 길로 인도하는 소경들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자기 앞에 닥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전도자의 말을 기억하며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머리와 종려나무 가지의 지도자부터 꼬리와 갈대의 일반 백성, 애굽의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미친 화에 대하여 무능력함을 보여줍니다.

정리해보면 애굽과 함께 하는 것은 여호와와의 진노 아래 있는 나라와 손을 잡는 것이고, 분열된 나라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며, 경제가 와해된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어리석음만 있는 나라에서 지혜를 기대하는 것이며, 그들 자신의 문제들조차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 다른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여기며 우리에게 구원과 영광을 줄 수 있다고 거짓 유혹하던 세상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이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애굽인에게 임하는 놀라운 복(16~25)

(16~17) 그 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여호와의 놀라운 역사가 행할 때 공중누각에 불과한 애굽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떨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수치를 당하다.’ 또는 ‘언어 맞다.’는 뜻이 있어 유월절 절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유월절의 사건, 특별히 장자의 죽음(출 11~12장)을 기억하는 애굽인들에게 여호와의 계획이 되풀이될지 모른다는 생각은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나타내어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심으로 세상의 공허한 정체를 폭로하시고 이를 의지하던 죄인들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18~21) 그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 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참된 신앙의 일차적인 증표는 언어입니다. 애굽 땅이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것은 마치 창세기 11장의 온 땅이 한 입이었던 나라로 돌아가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단순히 서로 같은 언

어로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진리를 담았다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백성과의 하나 됨을 나타냅니다. 마치 성막이 이스라엘 진 중앙에 위치해 있음 같이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이 세워지고, 변경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확대되어 전 세계적인 하나님 백성의 연합에 참여하여 주께 헌신하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하시듯이 애굽 사람들을 대하십니다. 여러 재난을 겪은 가운데 구원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십니다.

(22)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세상의 권위에 의지하여 박수 보내고 환호하는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베풀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는 분이시지 죄인을 미워하는 분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대표하는 죄악 된 세상으로부터 죄인을 건져 내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입니다. 이 구원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의 죄를 미워해야지 죄인을 미워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23~25) 그 날에 애굽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앗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앗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앗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유다 안에 머물렀지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끊임없는 원수들이었고 다른 모든 나라보다 먼 사이였으며 은총의 소망에 서부터 더욱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던 아시리아와 애굽이 유다 민족과 함께하는 그 날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원수들조차 하나로 만듭니다. 옛적에 애굽을 향해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출 5:1)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애굽을 향해 “내 백성 애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업, 장자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은 그들이 똑바로 섰을 때만 열방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넘어진 연약한 자리에도 은혜를 부으시자 온 세상에 복음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민족의 명절 ‘설’입니다. 유대인 최고의 명절인 율절처럼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 가족과 친척들이 모인 그 자리가 무너질 세상의 성에서 얼마나 높아졌는지 비교하며 자랑하고 낙심하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의 영적인 어두움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것을 소

망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참된 평화의 왕이신 주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감으로 영광의 날을 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명절을 보내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겉으로는 휘황찬란하게 보이거나 실상은 어두움뿐인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거나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실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들과 하나 되는 영광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나의 백성이라 부르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애굽의 결국이 어떠하다고 이사야는 예언합니까?
2. 징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3.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할 분은 누구라고 생각됩니까?
4.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당하는 고난이나 우리의 죄악 때문에 베푸신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취하던 해니라

이사야 20:1~6

1 앓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2 그 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지어다 네 허리에서 베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삼 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4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앓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불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5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6 그 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앓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본문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도 전해야 했던 자신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그는 베옷을 입되, 허리에서 베를 끄르고 발에서 신을 벗어 삼 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삼 년 동안 교회에 올

때마다 허리띠를 풀고 벗은 몸에 맨발로 와야 한다고 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은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순종할 때까지의 엄청난 고민, 실행 했을 때의 부끄러움, 매일의 고통스러움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이사야에게 하셨던 본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대를 사는 우리가 본문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취하던 해나라

(1) 앗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나라

20장은 시기적인 배경을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블레셋의 견고한 성읍이었던 아스돗이 앗수르 군대에 의하여 공격당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앗수르의 왕은 사르곤이었고, 군대 장관은 다르곤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살던 시기를 ‘폭력과 점령’의 때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세상이 폭력으로 얼룩진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왕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폭력과 점령의 원인은 바로 ‘사르곤 왕’ 때문이었습니다. 1~12장은 아하스 왕을 샘플 삼아, 통치권의 주체를 하나님이 아닌 자신으로 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했습니다. 7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셨음에도,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

하겠나이다' 라고 부드럽게 들리지만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합니다. '자기 정치력'을 극대화 해 다른 나라들의 힘을 끌어낸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럴만한 능력도 있다고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3~23장은 이러한 잘못된 통치가 비단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님을 설명하며, 유다를 기준으로 주변의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13~14장 상반부와 21장 상반부는 바빌론 제국, 14장 하반부는 아시리아와 블레셋, 15~16장은 모압, 17장은 다메섹(아름_시리아)과 에브라임(북이스라엘), 18~20장은 구스(에티오피아)와 애굽(이집트), 21장 하반부는 두마(에돔)와 아라비아, 23장은 두로에 대한 경고입니다. 20장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과 경고의 맥락 안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지역이 다르고, 정치체계가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폭력과 점령의 시기입니다. 한 명이든, 백 명이든, 천 명이든, 만 명이든 간에 각자의 왕국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전통의 힘으로, 자기 논리로, 위협으로, 사회에서의 배제로.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타인을 짓밟고, 내몰고, 침묵하게 만들며 점령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폭력은 더욱 정교하고 은밀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사야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말씀을 또 다른 폭력의 명분으로 삼지 않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거나, '그것 봐 내 말이 맞지'라는 식의 태도 또한 취하

지 않습니다. 사랑과 인내와 자기희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을 적용하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자기 생각을 입증’하거나 ‘자기 존재감을 확장’하기 위해 타인에게 폭력적이진 않았는가입니다.

그 때에

(2) 그 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베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그 때에’, 과연 그 때를 1절과 같이 표현한 이유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유다 왕 누구의 몇 년째’라는 식의 표현 대신 이스라엘이 아닌 주변 국가의 정세를 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메시지의 1차 독자가 애굽과 구스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애굽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욕당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알던 지인을 위해 어느 정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명령을 통해 '이사야의 사랑과 희생의 범위를 확장'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고통 받았던 역사적 상처가 있습니다. 그는 민족의 원수를 위해서도 부끄러움을 무

를 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수치를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물어보십니다. 내 사람, 내 가족, 내 지인, 내 직장, 내 구역, 내 봉사팀이라는 테두리를 갖는다면 본문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관심을 확장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우리 삶의 범위가 알지 못하는 자들과 원수에게까지 확장되길 원하십니다.

징조와 예표

(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삼 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마음을 먹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오랜 기간 동안 변함없이 타인을 위해 수치를 감당했습니다. 그는 18장부터 전했던 메시지의 진실성을 3년 동안의 자기희생으로 증명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고통스러웠겠지만, 기약 없는 순종의 일상을 계속했습니다. 이토록 말씀 앞에서 정직했던 이사야의 반응을 2절에서 ‘그대로 하여’ 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분기점에 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했음에도 순종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터무니 없는 것 같아서, 부당한 것 같아서, 안 지켜도 이해해주실 것 같아서, 못 들을 척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핑계로 합리화하며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으려 합니다. '내 기준'이라는 필터를 거친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깁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이사야라는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그대로 했기에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종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명령입니다. 명령을 그대로 지킬 때, '징조와 예표'가 되었습니다. 징조라는 단어 모페트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기적'이라고 번역되었고(출7:3; 대상16:12; 느9:10; 시105:5), 예표란 '증거'라고 번역되었습니다(창4:15; 9:17; 출3:12).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한 경험이 몇 번이나 되는지 묻습니다. 그대로 지킬 때, 삶에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 날에

(4~6)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앗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불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 날에 이 해변 주인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앗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비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파하리요 하리라

이사야가 삼 년 동안 미친 사람과 같이 살아갈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그 날’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6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 정도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고정관념의 마지노선을 넘기 위해서는 ‘말씀이 이뤄지는 마지막 날’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종착지가 분명할 수록 가는 길도 선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을 소망하는 이는 반드시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연결되어 어두움을 벗고 빛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20장 1~6절을 통해 우리는 현재를 폭력과 점령의 시기로 여겨야 하고, 이에 저항하기 위해 사랑의 지경을 넓히며 자기희생을 강화해야 함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그 대로’ 지키는 ‘하나님의 종과 기적(징조)과 증거(예표)’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말씀이 이뤄질 그 날’을 소망하며 하루를 결단해야 합니다. 1절에서 등장한 ‘다르곤’은 후일에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앗수르 왕 산헤립의 명령을 따라 히스기야 왕을 공격하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애굽을 의지했던 블레셋이 점령당했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더 큰 힘에 의해 점령당할 수 있음을 경고로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남의 일이지만, 곧 우리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점령하거나 점령당하는 폭력의 역사가 종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이사야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폭력과 점령의 시대 가운데 우리 또한 폭력과 점령으로 말씀을 전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랜 기간 기꺼이 부끄러움을 감당하는 자기희생으로, 듣지 않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길 소원합니다. 한 구절이라도 삼 년을 정직하게 순종해본 적 있는지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함께 점검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증거로 지어져 가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우리 주변에 어떠한 '폭력과 점령'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사회와 교회와 가정에서 '강자'는 누구이며, '약자'는 누구인지 생각해 봅시다.
2. 우리 또한 폭력적인 방법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제압하려고 하지 않는지 돌아봅시다.
3.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희생'할 방법을 찾아봅시다.
4. 성경 구절 중 삼 년 이상 순종하려 했던 부분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대로' 말씀을 지키기를 위해 결단하고 적어봅시다.
5.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그리는지 이사야 1~66장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본심

이사야 21:1~17

1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집 회오리바람 같이 몰려왔도다 2 흑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3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4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5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이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6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7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8 파수꾼이 사자 같이 부르짖기를 주어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9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10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11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12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

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13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14 데마 땅의 주민들이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15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뺨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16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 같이 일 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17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창조세계에서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지만 사람이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죄악에 빠져 살아간다면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없기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미워하시기에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사람의 멸절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지 않고 심판 전에 사람이 회개하여 죄악에서 돌이켜 더 이상 죄악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열국에 대한 경고 역시 마

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에 대한 심판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으셨다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경고를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사야 21장은 앞서 애굽에 대한 경고에 이어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애굽에 대한 경고에서 애굽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듯이 21장 바벨론에 대한 경고에도 선지자의 떨리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관한 경고_타작의 도구에서 타작의 대상으로

- (1)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바람 같이 몰려왔도다

‘해변 광야’는 20장 6절의 ‘해변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해변 광야’는 9절을 보면 ‘바벨론’의 통치 영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겝’은 고유명사로 보면 남 유다의 한 지명이라 말할 수 있지만 일반 명사로 보면 단어의 뜻대로 ‘남방’이므로 특정 지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절의 ‘네겝’은 남 유다의 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남쪽 지방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네겝 회오리바람’이란 남쪽 지방에서 발생하는 회오리바람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네겝 회오리바람이라고 들었을 때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쪽 태풍이라고 듣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태풍은 적도 부근에서 발생하는 열대성저기압으로써 강한 폭풍우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남

쪽 태풍이 올라온다고 일기 예보를 듣는다면 긴장하며 태풍에 대비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인공위성과 슈퍼컴퓨터의 도움으로 태풍의 경로를 예상하며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이사야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예보라는 것은 전무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날의 일기예보관처럼 강한 모래폭풍이 동반된 남방 회오리바람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당시 사람들에게 전했다면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긴장감만 감도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는 바벨론에게 두려움을 주는 강한 나라가 바벨론에 몰려올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2) 흑독한 목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목시’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탄식’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이사야서 다른 장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탄식’으로 번역 하였습니다(사35:10, 사51:11). 바벨론에 대한 경고는 13장과 14장에 있었는데 이때와는 달리, 이사야 선지자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에 바벨론에게 나타날 일을 환상으로 보며 그 환상 속에 자신도 등장인물이 되어 하나님의 경고를 바벨론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속이는 자가 속이고 약탈하는 자가 약탈하도다”는 심판을 받을 바벨론의 죄악상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속이고 속고, 뺏기고 뺏는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거짓된 방법으로 빼앗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세상은 정상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사기 사건이 빈번하고 그 사기로 뺏기고 뺏는 일이 끊이지 않게 발생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경고를 하시겠습니까?

‘엘람’은 에스겔서와(겔32:24)와 다니엘서에서도(단8:2) 나옵니다. 다니엘서에는 “엘람 지방 수산 성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엘람은 바사 왕국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당시에는 엘람은 바사 왕국 국호를 사용하기 이전 단계 이름으로 보됩니다. 나중에 엘람은 바사 왕국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엘람과 메대는 바벨론을 무너뜨릴 신흥 강대국입니다. 이 두 나라의 발생지는 카스피 해 아래, 오늘날 이란 영토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사와 메대 신흥 강대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면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주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유다의 탄식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든 아니든 세상의 나라와 민족을 그들의 역사를 통해 움직여 가시고 때로는 각 나라 사람들에게 환난을 겪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죄악상을 깨닫고 죄악에 벗어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범죄한 사람들을 탄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탄식을 그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3) 이따금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다 4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3절의 ‘나’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혹독한 목시로 인해 선지자의 마음은 괴롭습니다. 허리의 통증이 매우 심하여 출산 바로 직전의 임산부가 느끼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선지자가 더 이상 참혹한 심판의 영상을 보고 듣지 못할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 자료나 영화 또는 뉴스를 통해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인류의 비참한 장면을 볼 때에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자료나 영상에 감정이입이 되어 현실감을 많이 느낄수록 괴로움은 심해질 것입니다. 과거 바벨론이 유다의 패망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바사와 메대 나라가 바벨론을 심판할 도구가 되었습니다. 유다를 패망시킨 바벨론이 사라지는 것을 기뻐하기에는 바벨론이 겪을 환난이 참혹하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의 서광을 보고 마냥 기뻐할 수 없었고 오히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보고 마냥 기뻐한다면 어찌 그

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원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5)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이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바벨론은 곧 있을 바사와 메대의 공격, 그리고 그로 인한 비참한 결과를 모르고 태평성대를 누리 듯 일상을 보냅니다. 바벨론은 국가 방어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복무규정에 따라 방위군에게 일상적인 식사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좀 더 철저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위급 사람에게 방패에 기름을 바를 것을 권합니다. 방패에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적군이 칼이나 창으로 공격할 때 그 공격력을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6~9)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7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8 파수꾼이 사자 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9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파수꾼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9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파수꾼에게 명령하고 보고받는 장면이며, 파수꾼의 보고 내용은 바벨론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마병대와 나귀 떼와 낙타 떼를 지어 바벨론을 공격하는 바사와 메대 군사들을 보면 긴장감을 가지고 공격의 결과를 자세히 관찰하고 보고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병대가 왔고 그 결과 바벨론의 성은 함락되었고 바벨론의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는 파수꾼의 결과 보고입니다. 파수꾼의 보고는 미래에 일어날 바사와 메대의 바벨론 침공과 바벨론의 함락의 장면입니다. 파수꾼의 보고의 특징은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상 신상들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벨론을 지키는 수호신은 바사와 메대의 공격으로부터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한낱 조각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이외 이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우상들은 인간이 만들어내 조각물에 불과합니다. 그 조각물들은 사람이 직면할 환난을 결코 막아주지 못합니다.

(10)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10절에서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청자(聽者)가 전환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왜 내가 짓밟은 너, 내가 타작한 너라고 말하였겠습니까? 바벨론의 손에 의해 이스라엘을 짓밟고 타

작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니 타작의 시간은 끝이 났다는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바벨론 포로 시기는 끝이 나고 귀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사와 메대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고국으로 되돌리는 조서를 발표하였고(B.C. 538년) 유다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타작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타작의 도구인 바벨론이 선한 나라가 아니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하지 못한 세력으로부터 받는 어려움에도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에돔에 관한 경고_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11)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12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두마’는 침묵을 뜻하며, 에서의 후손이 이룬 나라 에돔을 일컫는 말입니다. ‘세일’은 지명으로써 구약성경을 보면 에돔 전체를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3절 상반절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라고 기록

되어 있습니다. 두마에 대한 경고는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에서 어떤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 묻습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여기고 질문합니다.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밤새 아무 일이 없었느냐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파수꾼의 대답은 앞서 바벨론의 파수꾼의 관찰에 따른 보고와는 달리 상징적 의미의 보고입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는 광명의 좋은 시절이 있었지만 언젠가는 어둠의 때, 멸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멸망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가라는 경고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12절의 마지막 3개 단어는 명령형 동사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물으라. 돌아오라. 오라. ‘돌아오라’와 ‘오라’는 합쳐서 ‘돌아올지니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어둠의 때, 멸망이 올 것인데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광명의 길로 돌아오라는 경고입니다.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물으라는 찾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회개하라는 의미로, 오라는 빛 되신 하나님께로 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에돔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랍에 관한 경고_수풀에서 유숙

(13)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아라비아를 줄여서 아랍이라고 부릅니다. 드단은 에돔보다 아래에 위치한 아라비아 부족입니다. ‘대상’은 무리를 지어다니는 상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서쪽 해변인 두로까지 가서 아라비아의 산물들을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처소에서 머무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으로 일종의 징벌입니다. 즉 드단 대상들이 외부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14~15) 데마 땅의 주민들이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뺨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라

데마 역시 아라비아의 부족 중 하나입니다. 데마 사람들에게는 목마른 자와 도피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드단의 대상이며 13절의 수풀에 유숙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외세의 공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그 땅에 전쟁이 발발했으며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도망한다고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으로 곤경에 처해질지라도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벌 여부를 떠나 전쟁 난민 또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도와야 합니다. 비록 범죄자를 만나더라도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16~17)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 같이 일 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품꾼의 계약 종료기간이 있듯이 일 년 내, 곧 짧은 시간 안에 종말의 때가 닥친다는 의미입니다. 게달은 아라비아 유목민을 뜻하며 그들의 부귀영화 시대는 곧 끝날 것이라고 합니다. 게달 유목민은 활을 잘 쏘는 민족인데, 활 쏘는 용사가 적게 됨은 곧 유목민의 세력이 약화됨을 의미합니다.

아라비아는 바벨론처럼 군사적 강국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던 나라가 아닙니다. 아라비아는 무역과 목축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던 부족 국가들입니다. 이 세상은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한 나라가 세계 패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이든 국력이 우상신의 힘이나 자력으로 일구어낸 것이라고 교만에 빠지면 반드시 패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라들을 세우셨습니다. 국가간 외교를 통해 힘의 균형과 견제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어느 나라이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학대하는 나라는 흥할 수 없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과 개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가정과 개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베벨론과 에돔과 아랍에 관한 경고가 이 시대 나라들과 국민들에게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빛되신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사야 선지자의 해산하는 고통보다 더 하심과, 욕망과 이기심으로 자기 왕국의 성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심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나를 학대하거나 괴롭히거나 곤경에 빠트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까?
2. 만약에 나를 학대하거나 괴롭히거나 곤경에 빠트린 사람이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환난 중에 있다면 그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3. 범죄한 사회와 나라를 보며 그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이사가 선지자처럼 해산의 고통과 같은 허리통증을 느껴 본 적이 있습니까?
4. 12절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라는 말씀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5.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없는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사야 22:1~25

1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이고 2 소
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3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4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음
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5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밟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
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6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
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7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8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기매 그 날에야 네가 수풀 곳간의 병기
를 바라보았고 9 너희가 다윗 성의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10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
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11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
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
라 12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
털을 뜯으며 굵은 베를 띠라 하셨거늘 13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14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
 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15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썩나를 보고 이르기를 16 네가 여기
 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을 자기를 위하여 처
 소를 쫓아내었도다 17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 같이 세
 계 던지되 18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 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
 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 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
 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19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
 위에서 낮추리니 20 그 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
 러 21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띠워 힘 있게 하고 네 정
 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22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
 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23 못이 단단한 곳에 박
 힘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24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
 과 족속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25 만
 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으리
 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1~14)

이사야 13~23장은 유다와 그 주변의 10개 나라들에 대한 심판

을 연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23장에서 두로와 시돈에게 심판의 경고를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중단하고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예언(1~14절)과 예루살렘의 두 관료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15~25절)로 화제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미 1~5장에서 타락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음에도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나라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시선을 돌린 것은, 이전에 심판의 경고를 이미 하였음에도 여전히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그 삶을 돌이키지 않아서 최후 통첩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심판이 임할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a)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뜻하는 말입니다. 서울에 있는 남산의 해발고도는 약 260m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약 750m나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예루살렘의 해발고도가 높다는 것은 그 주변에는 낮은 곳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은 ‘흰놈 골짜기’, ‘티로

포에온(Tyropoeon)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1~4절은 흥청망청 거리던 예루살렘의 허망한 함락을 예언하는 선지자의 애끓는 심정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4)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이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언이 모두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현재(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지붕에 올라가 있음을 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집들에서 지붕은 평평하였고, 집의 공간 중에서 가장 넓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지붕에서 쉬는 것 뿐만 아니라 잔치를 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히브리 어성경에는 ‘전부’라는 단어가 있음.)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떠들썩하게 떠들며, 즐거워했던 것은, 아시리아 군대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히스기야왕이 다스리던 때에 아시

리아의 왕 산헤립은 셀 수 없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 왔습니다. 유다는 바람 앞의 등불과 같았고,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 군대를 하룻밤에 185,000명이나 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역사에 감사하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완악하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결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승리 자체에만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주민들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관원(지도자)들은 도망치게 바빴고, 활 한 번 쏘지 못하고 사로잡혔고, 또 도망가다가 포로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 예루살렘이 망해서 내가 통곡할 때에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 말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군대가 그렇게 몰살한 것이 저절로 된 것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되면 내 탓이고 못되면 하나님 탓’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속이 상하신 하나님께서는 5~7절에서 엘람과 기르의 이방인 군대를 일으켜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라고 합니다.

(5~7)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리와 밧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르 사람은 병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5절 상반절에서 ‘소란과 밧힘의 혼란의 날’, 5절 하반절에서 ‘성벽이 무너짐과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 계속해서 6~7절에 ‘화살통을 맨 병거 탄 자와 마병’, ‘골짜기에 가득한 병거’, ‘성문에 정렬된 마병’ 등 환상의 골짜기, 즉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된 모습을 통해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것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루살렘은 해발이 약 750m의 고지에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성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생각에 정문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때라도 돌이켜야 했었는데, 8~11절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8~11)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매 그 날에야 네가 수풀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 성의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겼다’는 것은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예루살렘의 방어선이 풀리고, 예루살렘(다윗) 성벽

의 일부가 뚫린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덮였던 것’은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 ‘성막을 덮는 휘장’이나 ‘성소에 있던 휘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이 말씀은 성전이 점령당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제야 ‘수풀 곳간(무기고)’에서 병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집을 허물어서 구멍 나고 무너진 성을 보수하고, 비상급수를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것이라고 합니다. 11절의 ‘저수지’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혼 샘의 물을 끌어다가 모아놓은 실로암 못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않았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탄식합니다. 만약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아이에게 힘든 일이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여가기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라가 외적들의 침입으로 만신창이가 된 것이 우연히 된 것 같지? 그러나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나 여호와인 것을 잊지 말라. 그러니 어서 빨리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12~13)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베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하나님께서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더 문자적으로 정확하게는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는 것은 굉장히 친근함과 따뜻함의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통곡하며 애곡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많은 양의 눈물을 흘려가며 큰 소리로 올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나라를 잃었을 때, 하나 뿐인 자식을 잃었을 때에 우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한 중동에서 ‘머리카락’은 ‘수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뜯는 것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겨서, 이전 삶에서 돌이키라는 의미입니다. ‘베옷을 입는 것’은 ‘회개’를 뜻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범죄와 허물을 깊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은 동화 속에 나오는 엄마 개구리의 말을 반대로 들었던 청개구리처럼 정 반대로 했습니다. 특히 13절에 우리 성경에는 없는 감탄사 ‘히네(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좀 더 실감 있게 번역하면, “꿀 좀 보쇼!”입니다. 그들은 통회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소와 양을 잡아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이면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포자기를 뜻하기도 하고, 조롱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네. 어차피 죽을 거 배부르게 한 번 먹어보자.”의 의미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겠어? 선

지자들을 통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말을 한 번 두 번 들었어? 아무 일 없어. 내일, 내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 죽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속이 몹시 상하셨습니다.

(14)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 죄는 너희가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리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셉나와 엘리야김에 관한 경고(15~25)

15~25절은 예루살렘의 고위 관리인 셉나와 엘리야김에 관한 경고입니다. 그중에서 15~19절은 셉나에 관한 경고입니다.

(15~16)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셉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셉나는 왕궁에서 국고를 맡은 관리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로 하면, 그는 국무총리의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 장관’입

니다. 그는 유다에서 2인자, 왕 다음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썬나가 무슨 일을 자행했는가 하면, 왕들의 무덤보다 더 높은 곳에 자기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시신이 오랫동안 보존되게 하기 위하여 바위를 뚫어서 만들었습니다. 왕들보다 높은 자리에 무덤을 만들면, 왕보다 더 큰 권력을 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18) 나 여호와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 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 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 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썬나를 공같이 만들어서 장사같이(난폭하게) 광야로 던지겠다고 하십니다. 추수가 다 끝난 늦가을이나 겨울에 보면 농부들이 만들어 놓은 ‘곤포 사일리지’가 논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흰색 비닐에 싸인 곤포 사일리지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마시멜로 같습니다. 그 비닐 안에는 벳짚이 들어 있습니다. 소 먹이용으로 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썬나를 곤포 사일리지처럼 돌돌 말아서 광야로 굴러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썬나는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자기만 생각하다가 서기관으로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서기관은 지금의 공무원으로 하면 4급입니다. 4급도 꽤 높은 자리이지만, 국가의

재정을 관리하는 전권을 가진 기획재정부 장관을 하다가 4급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 자리는 엘리야김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19~22)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 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띠워 힘 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셉나가 입었던 옷과 찢던 띠는 엘리야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다윗의 집’은 ‘유다 왕궁’을 의미하고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둔다’는 말은 국가의 중책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에는 열쇠가 짧은 것은 15cm 정도였고, 긴 것은 60cm 정도였습니다. 열쇠가 무겁고 길었기 때문에 손에 들고 다니지 못하고 어깨에 둘러매고 다녔습니다. 왕궁의 열쇠는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야김은 다윗의 가문인 유다왕국의 국고를 관리하는 열쇠를 가진 자가 됨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은총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5)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으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처음에는 엘리야김이 벽에 박힌 못처럼, 그의 권세가 높고 견고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벽에 박힌 못도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고 부식이 되어 결국은 부러지고 말듯이, 엘리야김의 가문도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나라든, 한 도시든, 한 가문이나 개인이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가진 것을 믿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워진 것은 사상누각(沙上樓閣), 아니 공중에 세워진 성, 공중누각(空中樓閣)_스카이캐슬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고도 진실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환상의 골짜기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치는 이사야 선지자의 소리가, 아니 하나님의 애절한 음성이 우리의 심장을 아리게 할 정도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표적을 행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치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썩어나 엘리야김처럼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느 곳,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도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높아 보이는 자리, 좋아 보이는 자리에 있을 때, 더욱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어두움을 걷어내는 사람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과거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셨음에도 돌이키지 않았던 적은 없었습니까? 그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2. 당신이 처했던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적이 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3. 셉나와 엘리아김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당신이 앉아 있는 자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어느 정도 순종하고 있습니까?
4.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사야 23:1~18

1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어요 이 소식이 깃딤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2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3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4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5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으리도다 6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7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나 8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9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0 딸 다시스여 나일 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11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12 이르시되 너 학대 받은 처녀 딸 시돈아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13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앗수르 사람이 그 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14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15 그 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 같이 칠십 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칠십 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 같이 될 것이라 16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17 칠십 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18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 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오늘 본문은 13장부터 증거 되고 오고 있는 유다 주변 10개 나라들에 대한 심판 중 그 마지막 대상인 두로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두로의 멸망에 관한 경고이며, 8절부터 14절까지는 그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과 뜻, 15절부터 마지막절인 18절까지는 두로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로의 멸망 경고(1~7)

(1)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깃뎀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두로는 예루살렘 북서 방향으로 약 160킬로미터 떨어진 지중해 동부연안에 위치한 연안 도시 국가로 당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본문의 ‘다시스’는 ‘두로의 식민지 중의 하나’를 뜻하기도 하지만 ‘두로의 모든 식민지’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 ‘다시스의 배들’이란 ‘두로를 왕래하던 모든 식민지의 배들’을 의미합니다. 두로의 멸망으로 인해 더 이상 왕래할 항구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스의 배들을 향해 ‘슬피 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이 잠잠하라

시돈은 두로의 북쪽으로부터 40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또 다른 항구도시로 본문은 두로가 그 시돈 상인들로 인해 부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두로 선단’은 시돈 상인들을 고용하여 경제적인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가 올 파멸 앞에 잠잠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3) 시홀의 곡식 곧 니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었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홀’은 ‘나일강’을 가리키는 것으로 애굽인들은 수출할 곡식을 나일 강 입구까지 운반해 왔습니다. 그러면 두로의 상인들은 그것을 배에 싣고 지중에 연안에 있는 각 나라에 매매했습니다. 그런 중개무역을 통해 두로는 ‘열국의 시장’, 곧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4)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시돈 또한 두로를 통해 경제적인 부를 누렸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두로의 멸망과 더불어 몰락하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자녀를 낳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하는 것’ 같이 ‘많은 곡식은 있으나 팔지 못하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5)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으리하다

두로의 패망은 시돈 뿐 만 아니라 애굽에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사실 두로는 애굽의 번영에 기여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국가의 멸망은 애굽에게 분명 경제적인 타격일 것입니다. 아울러 동방 국가의 위협으로부터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던 두로의 멸망은 곧 애굽에게 군사적인 긴장감으로 다

가 올 것이 뻔했습니다.

(6)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인들은 멸망으로 인해 식민지였던 다시스로 곧 건너가야 할 형편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나라의 패망은 그들에게 곧 슬픔이 될 것입니다.

(7)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나

두로는 ‘희락의 성’, 쾌락과 욕망으로 가득 찬 ‘스카이 캐슬(sky castle)’ 이었습니다. 한편으로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정도’로 많은 식민지를 건설하고 통치했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것처럼 영속할 것 같던 두로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당 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두로는 바벨론에게 침략 당하고 이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완전히 멸망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두로가 멸망 당하게 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8~14)

(9)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로의 멸망을 계획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두로인들은 온갖 영화를 누리며 으스스대던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자고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고 결국 ‘교만한 자를 비천하게 유명한 자를 볼품없이’ 만드시는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는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며 교만한 눈은 낮추시는 분이십니다(시18:27).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는 분이십니다(시31:23). 부와 명성이라는 스카이캐슬에 도취 되어 스스로를 높이며 오히려 높여드려 할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범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두로는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교만에는 멸망을 거만에는 파멸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의 결과입니다.

‘교만’은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가 이런 삶의 성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임을 잊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 아니 마치 내가 잘 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자고함에 빠져 살아갈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런 우리를 낮아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심령에 늘 교만이 싹 나지 않도록 겸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견고

하게 다져나가야 합니다. 이제 두로의 멸망으로 인해 변화를 겪게 될 주변국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10~14) 딸 다시스여 나일 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 받은 처녀 딸 시돈아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앗수르
사람이 그 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두로의 멸망으로 인해 그의 지배하에 있던 다시스, 그리고
다시스로 대변되는 두로의 식민지들은 자유와 풍요를 맛 보게
될 것입니다. 두로와 더불어 번영했던 시돈은 두로의 패망과 더
불어 쇠락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 그 어느 곳에서도 평안을 얻
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바벨
론이 앗수르에 의해 굴욕적으로 파괴되었던 것처럼 두로의
종말 또한 그렇게 확실하게 진행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며 굴복시키시는 하나
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허무할 정도로 굴복을 당하게 하
시는데 그 어떤 철용성도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서는 교만하고 악한 자를 의지하며 그에게 기대어 사는 자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몰락과 더불어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죄와 타협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14)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먼저 자신의 뜻을 추구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계획을 우선시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로 귀결되게 됩니다.

그런 사람과 멍에를 같이 메고 살아 갈 때 우리의 삶은 빛과 어둠이 사귀는 형국이며 자기와 물질을 이상시하는 죄악의 길로 걸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그들의 몰락과 더불어 우리 또한 수치와 치욕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현재 누구와 삶을 공유하며 생각과 가치관을 교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재차 숙고해야 할 이유입니다.

두로의 회복(15~18)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두로의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15) 그 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 같이 칠십 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칠십 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 같이 될 것이라

두로에 대한 심판은 심판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전제된 심판이셨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칠십년’은 두로가 멸망한 뒤 70년 뒤에 회복된다는 것으로 실제로 두로는 바벨론에 의해 침공 당한 후 70년 뒤에 페르시아에 의해 해방되고 회복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두로를 기생에 비유한 것은 돈을 얻기 위해 정절을 포기하는 기생처럼 그들 또한 풍요를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와 욕망이라는 우상을 택한 까닭이었습니다.

(17) 칠십 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심판 후에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은 두로는 다시 무역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열방과 음란하는 이전 상태로 회귀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18)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 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바로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 곧 여호와 앞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십니다. 두로의 이윤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것이 되도록 사용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우리는 욕망의 스카이캐슬을 쌓아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물질과 이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통로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망기할 때 우리 또한 물질을 목적 삼는 물질의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곧 허물어 쓰러질 탐욕의 벽돌을 집적해 나가며 죄악의 성을 쌓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것이기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청지기답게 물질을 바르게 관리하시므로 하나님께서 허무실 욕망의 캐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호가 하늘 끝까지 맞는 진정한 스카이캐슬, 하나님의 도성을 삶의 현장

에서 쌓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시되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하지 않는 순결함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오늘도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됨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순결함으로 빛다운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도성을 쌓아올리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빛으로 삼아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불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9절)?
2.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하는 자의 삶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12절)?
3. 물질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18절)?
4. 오늘 나는 어떤 종류의 성(城)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에워싸고 있는 죄의 성(城)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도록
이 아침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남은 자’로서 담대히 살아가기

이사야 24:1~23

1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엎으시고 그 주민을 흠으시리니 2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 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3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4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5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6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7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8 소고 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9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10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11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12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13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들 같고 포

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14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15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16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17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울무가 네게 이르렀나니 18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울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19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20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 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죄악이 중하므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21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22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 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23 그 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이사야 말씀은 1~1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을, 13~23장까지는 ‘이방 열국’에 대한 심판을 나라별로 선언하였습니다. 이제 24~27장까지는 ‘온 땅과 그 주민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종말론적인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사야 24~27장을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24~27장 속에 ‘세계적인 종말’, ‘최후의 심판’, ‘죽은 자의 부활’ 등의 주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24장의 1~13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온 땅이 황폐해지고, 그 백성들은 큰 슬픔에 잠길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1)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엎으시고 그 주민을 흠으시리니

먼저 “보라”로 시작하여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곧 ...하고자 하신다”라고 말하며 심판의 긴박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심판의 무서움을 드러내기 위해 네 개의 동사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공허하게 하다’(바카크)는 ‘텅 비게 하다’라는 뜻이며, 둘째 단어인 ‘황폐하게 하다’(발라크)는 ‘초토화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이어 나타나는 세 번째 단어인 ‘뒤집어엎다’(아와)는 ‘굽게 하다’ ‘왜곡시키다’라는 뜻으로 온 세상이 뒤틀리고 뒤집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동사인 “그 주민을 흠으시며”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3)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 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이제 1절의 결과가 2~3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에는 “같을 것이라”가 여섯 번이나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는 메시아 시대가 가져오는 평화와 평등의 축복이 아니라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파괴와 멸망으로 하향 평준화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의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말씀에서 ‘온전히’라는 단어를 두 번 반복하여 표현하면서, 현재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질 것을 강조합니다.

‘바자즈’라는 원어로 쓰여 있는 “황무하게 되다”는 동사는 ‘약탈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온 세상이 황무하게 된 것은 단지 천재지변 같은 자연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전쟁과 억압과 탐욕’때문에 세상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 성서학자는 주전 677~668년 앗시리아가 팔레스틴과 애굽을 침공함으로써 이런 약탈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 합니다.

(4~6)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4절은 “땅이 슬퍼하고”로 시작합니다. 황량해진 세상을 더욱 상세하게 묘사하며, 5절에서는 세상이 황폐해진 이유, 즉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우리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땅이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라고 합니다. ‘주민 아래서’는 ‘주민에 의해서(NIV)’ 혹은 ‘주민 때문에(표준새번역)’로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주민들이 온갖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죄’를 땅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 사람들은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고 합니다. 이 언약은 기본적으로 ‘창조의 언약’으로서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약속입니다. 창조주는 피조물에게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고, 피조물은 창조 질서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언약을 파기한 겁니다. 그들은 폭력과 살인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전하시기로 한 세상의 질서를 깨뜨리고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 사람들의 죄가 저주를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3절까지 사람들의 죄로 인한 일곱 가지의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서 땅이 저주를 받아 포도나무가 말랐고 결과적으로 포도주가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죽음을 포도 수확의 노래와

축제가 중단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포도 수확이 없어지자 악기의 음악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또한 9절에서 이제는 노래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10절에서 도시가 폐허가 된다고 말하며, 11절에 땅의 기쁨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12절에서는 성읍과 성문이 황폐해지고 13절에서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감람나무를 흔들어 마지막 열매까지 다 따 버리는 것처럼, 철저하고 비참해 진다고 합니다.

1~13절까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온 땅이 황폐해지고, 이에 주민들은 슬픔에 잠길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14절부터는 갑자기 온 세상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무리’는 누구를 지칭하겠습니까? 세계 민족의 심판 중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포악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소리를 높여 크게 외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7장과 19장 말씀을 보면 환난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여호와의 권능을 보면서 그에게 경배할 것을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16B)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즐거운 분위기가 16절 후반부에 와서 다시 급격하게 절망과 탄식의 분위기로 바뀝니다. ‘나는 쇠잔하였고(16B)’ 이것은

개인의 문제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팽배한 배신과 다가오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견하면서 남은 자가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죄에 대해 ‘배신하다’를 반복하면서 배신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16B).”

(18)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울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두려운(하파하트)’, ‘함정(하파하트)’, ‘울무(바파흐)’ 발음이 서로 유사합니다. 이것은 아무도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려운 소리로부터 아무리 도망쳐도 결국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올라와도 결국 울무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1~23)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 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 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21절, 22절에서 다시 한 번 선지자는 이 세상의 파멸은 단

순한 천재지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의 신들’과 ‘왕들’을 모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23절에서 드디어 주님의 영광이 완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해와 달은 고대 근동에서 중요한 신들이었는데, 그때가 되면 해와 달이 부끄러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결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견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심판의 날인 ‘그 날’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고 심판 속에서도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당당히 ‘남은 자’가 되어 ‘그 날(21)’이 와도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라면 ‘그 날(21)’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담대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날(21)’이 올지라도 14~16절의 사람들처럼 담대히 하나님을 찬양 할 수 있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언약을 깨뜨리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남은 자'로서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주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2.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 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3. 우리들이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남은 자'로서 빛을 비추어야 하는 상황들은 어떠한 상황들이 있습니까?
4. 지금 우리는 '그 날(21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사야 25:1~12

1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 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의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2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3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박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4 주는 포박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의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5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 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 같이 포박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6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7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8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9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10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

니 모압이 거름물 속의 초개가 밟힘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11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 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니라 12 네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 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심판에 대한 이사야의 찬양(1~5)

이사야 24~27장까지의 너 장을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과 심판, 부활, 하나님의 영광 등에 대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에 이어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천상의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에 대해 신앙고백하는데, 1인칭 단수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긍휼히 여겨 주심,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흥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때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출 15:1~2)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애굽은 모세 혼자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정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 해도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모세 혼자서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분을 찬송’하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분을 찬송한다’고 고백합니다.

시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도 하나님을 언제나 1인칭으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 이시로다(시 18:2)”이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1인칭 단수’로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도마가 예수님께 말한 것(고백)을 제 신앙고백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후에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말을 하여도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지 마”가 도마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8일 후에 도마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때 도마는 탄식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주’ 즉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의미는 ‘나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나는 주님의 피조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고백은 바른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1)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자기 조국의 역사를 돌아보니, 역사 속에 있었던

여러 기적 같은 일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성실하고도 진실하게 행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약속을 수백 년이 지났을지라도 잊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또한 애굽에 재앙을 내려서라도 바로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으며,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은총도 누리게 하셨고, 사사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부모가 되어 아기를 갖게 되면, 부모는 그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부모가 자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키워가며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장성하게 되면, 또 자신이 부모가 되면 자기 부모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성실함, 진실함을 무한대로 확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기사(奇事)가 됩니다.

(2~3)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획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크게 보이는 나라도, 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도, 하나님께서 “훗!”하고 바람 한 번 부시면 그 나라는 돌무더기가 되고, 황폐하게 되어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못하게 하셨으므로...’ 등의 동사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는 아주 크고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무리 크고 강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사람이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은 세상과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만 해도 세상과 우리는 점점 소멸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할 첫째 태도도 ‘겸손’이고, 둘째 태도도 겸손이며, 셋째 태도도 겸손입니다. 아니 억 만 번째도 겸손입니다.

(4~5)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반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의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 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 같이 포학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가난한 사람들, 환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요새가 되시며, 휘몰아치는 태풍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시고, 작열하는 태양빛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폭풍, 환난, 폭양 등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불청객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경제적인 문제로도 찾아오고, 건강의 문제로도 찾아오고, 관계의 문제로도 찾아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찾아오면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초강대국은 미국입니다. 중국이 인구로는 미국보다 4~5배나 많지만, 경제력으로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초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초강력 태풍이 불면 속수무책입니다. 그 피해가 천문학적입니다. 태풍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거나 소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형 산불이라도 나면, 진압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게다가 바람까지 불면 더 어렵습니다. 그 산불을 잡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에 부는 바람과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도 동일합니다. 그것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잔치와 모압의 심판(6~12)

6~12절은 마지막 때의 잔치와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증거합니

다.

(6)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게 될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산’은 ‘하늘의 시온~새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잔치가 배설되는데, 초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초대를 받는 사람은 세계 만민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는 먹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먹는 모습에 대해서도 많이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먹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성도들이 누릴 기쁨이, 땅에서 잔치로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잔치에 등장하는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입니다.

‘기름진 음식’이라고 하면, 다양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맛있겠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느끼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흔히 튀김이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은 최상의 음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하지만 당시에 유대에는 맑은 물이 귀

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곤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포도주를 담은 지 6주 정도된 것을 음료로 마셨습니다. 물론 오래된 것일수록 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면서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를 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는 그 잔치를 최고의 것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서 베풀어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7~8)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가리개’는 중동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으로부터 얼굴과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덮개’는 일종의 담요와도 같습니다. 가리개와 덮개를 제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하는 것이 모두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의 표현을 빌면, 땅에서 구리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과 같이 되고,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이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참 소망이 되는 것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고 말씀

하십니다. 사망은 곧 멸망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죽으면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망을 사망시키시겠다고 하십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눈물과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눈물은 기뻐서 흘리기도 하지만, 고난이나 불행, 당황스러움 등의 일로 흘립니다. 그리고 수치를 느끼게 되는 것은 패배와 책망을 들음에서 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인간이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9)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1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의_1인칭 단수’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의_1인칭 복수’입니다. 하나님을 1인칭 단수로 고백하는 사람은 언제나 1인칭 복수로도 고백합니다.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건져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다른 사람도 건져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다린다’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기다리

는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소원,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심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12) 여호와와 그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개가 밍힘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밍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 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네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모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비신앙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나온 아들의 후손이 1000년이 지나도록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바른 삶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일뿐 아니라 후에 태어날 자기 가문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박태환 선수가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도 누군가가 그 앞에서 그를 꼭 누르고 있다면 제대로 앞으로 나가기 힘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눌러 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휘몰아치는 폭풍이 있고,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찾아오는 크고 작은 환난도 있고, 모든 것을 태울 듯이 내리쬐는 폭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제

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은 그런 일을 겪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의 수치를 제해주시는 분도 계시며, 궁극적으로 사망에게 사망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시며, 참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빛이라 말씀하시며, 우리가 있는 곳을 온전히 밝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를 밝힘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은총을 누리며 사시는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방나라들을 징계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이야기인지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우리가 정하려고 하는 어리석고도 불신앙적인 태도를 버리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성숙한 자녀가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 우리 삶의 자리를 온전히 밝히는 빛으로 살며,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빛의 전달자의 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된 적은 언제이었습니까? 또한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라는 말씀이 가장 깊이 와 닿았던 적은 언제이었습니까?
2. 하나님은 ‘요새’와 ‘피난처’, 그리고 ‘그늘’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한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지금의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3. 마지막에 모압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름진 것과 맑은 포도주가 나오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삶과 믿음이 후손들에게 수백 년 후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지금 새롭게 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4.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답게,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묵상한 날 :

26

구원 받은 백성

이사야 26:1~21

1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2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이다 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4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5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엮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6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7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8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9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10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와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11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12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

다 13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지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
 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4 그들은 죽었은
 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
 서 별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의 모든 기억을 없이하셨음이니이다 15 여호
 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였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이다 16 여호와
 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이다 17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
 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
 으니이다 18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
 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
 다 19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이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
 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20 내 백성이 같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21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니라 땅이 그 위에 잤
 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 불리는 24~27장에 들어
 있으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마지막 날에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먼저 1~7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며, 8~15절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며, 16~21절은 흑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 해서 그 범죄로 인한 징벌을 받을지라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1~2)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이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 날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그 날’은 주님의 날, 최후의 심판날을 의미합니다. 그 날에 주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을 벌하십니다. 그 날은 악한 자들에게는 벌 받는 날이지만, 의로운 자들에게는 상 받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에 의로운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래할 것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3절 이하에는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 곧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첫째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 곧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심지가 견고하여 주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나 행위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심

지가 견고해야 한다거나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 삶에 환난이나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그 심지가 주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합니다. 읍처럼 고난을 받아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견고한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견고하시기에 내 심지가 견고해져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내 삶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4) 너희는 여호와의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이로다

둘째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 곧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주 여호와의 영원한 반석으로 신뢰하는 자입니다. 돈으로 인생의 반석을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로 인생의 반석을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을 인생의 반석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을 반석으로 삼은 인생은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처럼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내 인생의 반석으로 삼은 자는 흔들리지 않으며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5~6)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엮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셋째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 곧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빈
궁한 자, 곤핍한 자입니다. 여기서 빈궁한 자, 곤핍한 자는 물질
적 가난을 포함하여 주님을 갈망하는 가난을 의미합니다. 주님
은(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은 빈궁한 자,
곤핍한 자가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광야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볼 것 없고 아무것도 붙
잡을 것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
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곧 빈궁한 자, 곤핍한 자는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입니
다.

(7)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넷째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 곧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정직한 자입니다. 정직한 자는 주께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하시니
다. 지금은 정직하다는 이유로 환난과 시험을 당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그의 길을 평탄케 해 주십니다.

여기(3~7절)까지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 곧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의 조건으로 이와 같은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면 결코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에 구원받은 자는 이와 같은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8~15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8~10)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니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그 날, 주님의 날, 최후의 심판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 주님의 날, 최후의 심판 날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현실의 삶을 부정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종종 이단들은 잘못된 종말

론을 주장하면서 만사를 재치고 오직 신앙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떠나 직장을 떠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산속으로 들어가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집단생활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 삶의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은 24장 40~41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고 했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고 했습니다. 산속에 들어가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취함을 받거나 버림을 받는 장소가 내 삶의 자리 즉, 밭에서 그리고 맷돌을 가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1~15절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 되었을 때에 애굽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내 용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묘사하면서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받게 될 영광스러운 나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4~15)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시라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시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악인을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떠올리며 그 날, 주님의 날, 최후의 심판날이 되면 악인은 심판은 받고 의로운 자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징벌을 당하는 환난 속에서 구원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6)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기서 환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죄로 인해 당하는 징벌을 의미합니다. 환난 중에도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기도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돌이키게 하시는 방법이 고난일 수 있고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을 걷게 하십니다.

(17~18)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산기가 임박한 잉태한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산고를 겪으면서 출산하였는데 낳은 것이 바람 같다고 합니다. 생명을 출산한 것이 아니라 바람을 출산했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출산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민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채 살다가 징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19)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 놓으리로다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지만, 그들을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의 이슬, 곧 빛난 이슬이라고 말씀합니다. 빛난 이슬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메마른 대지를 적셔 새 생명을 일으키는 이슬이라는 의미입니다.

(20~21) 내 백성이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젖었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잠깐 숨을지어다’ 이는 심판의 날에 ‘피난처’를 제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숨어 있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보라’ 말씀하심으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악인은 심판을 당하고 의로운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 핍박 받으면서도 진리의 빛을 전하는 도구로, 통로로 살았던 의로운 자를 살려주십니다. 그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둘째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셋째 설사 우리가 범죄했더라도 그 징벌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아니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중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택하시기로 결정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그분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으로 진리의 빛을 전하는 도구로,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의로운 자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맛을 잃어버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빛의 자녀로서 어두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 소금이 되어 맛있는 세상으로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빛의 자녀로, 맛있는 소금이 되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구원받은 백성의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기쁨을 노래한 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습니까? 지금도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2.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맛을 잃어버려 무미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고 계십니까
3. 주의 날, 주님의 재림이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 날이 속히 오리라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4.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세상에 맛을 내기 위해, 오늘은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묵상한 날 :

27

그 날에

이사야 27:1~13

1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2 그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3 나 여호와 는 포도원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4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찢 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 리라 5 그리하지 아니 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 할 것이니라 6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 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의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7 주께서 그의 백 성을 치셨던들 그의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 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8 주께서 백 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 을 옮기셨느니라 9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수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10 대저 견 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 받아 광야와 같았은즉 송 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하리라 11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리라 12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따
 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13 그 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
 리니 앗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
 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사야의 소묵시록’으로 불리는 마지막 장(24~27장)입니다.

그 날에(1)

26장에 이어 오늘 본문도 ‘그 날에’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
 위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위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
 을 죽이시리라고 증거합니다.

리위야단으로 상징되는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
 며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에 대한 26장의 말씀을 다
 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위야단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무시무
 시한 바다 괴물이라고 여겨지던 존재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다에 용 또는 거대한 뱀으로 여겨지는 무시한 괴물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에서 볼 수 있는 거대한 회오리 바람
 인 토네이도의 일종인 용오름 현상을 보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리위야단을 크고 강한 칼로 죽이실 것이라는 말씀은 리위야단의 존재를 인정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리위야단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멸하실 대상을 나타내는 문학적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 역사의 과정 가운데 특정하게 한 날을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야에 거듭 등장하는 단어, ‘그 날’은 반복되는 인간의 역사 중의 한 날이기보다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는 종말론적 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 날’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 임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추측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감을 잡는 것으로 알 수 있는 날은 더더욱 아닙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님을, 그 날은 오직 아버지의 권한임을 사도행전을 통해 증거합니다(행1:7).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증거합니까? ‘그 날’에 아버지께서 벌하신다고 합니다. ‘벌하시며’라는 단어에는 어떤 사람을 직접 찾아가 방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에게는 은혜의 날이지만, 교만한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심판하시며, 징벌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악인을 심판하실 도구로 ‘칼’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칼’의 위력을 강조하기 위해 형용사를 세 개나 사용하여 수식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심판하실 칼은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입니다.

‘견고하다’는 것은 몹시 사납고 거친 상태를 나타냅니다. 구약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노동의 강도가 매우 혹독하거나 도덕적으로 매우 패역하거나 금지 사항이 매우 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전투가 매우 맹렬하고 소식이 매우 흥할 때, 사람이 감당하기에 힘들 정도로 매우 포악함 등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크다’는 것은 양과 수효와 크기가 대단할 뿐 아니라 매우 중요함을 나타낼 때 쓰였습니다. ‘강하다’는 것은 매우 막강하여 절대로 굽혀지지 않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수식어들은 여호와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칼이 매우 거칠고 혹독하며, 크고 무서운 것이어서 그것에 걸리는 자는 결코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칼은 문자적인 의미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넓게는 심판 자체를 의미하며, 좁게는 여호와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온 천지를 만드신 창조의 권능입니다. 동시에 여호와의 말씀은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권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신실한 백성에게는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지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불보다 더 파괴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포도원지기(2~6)

리위야단으로 상징되는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후,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상징되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포도원지기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포도원을 보호하시고, 대적을 멸하실 것임을 노래하게 합니다. 또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크게 번성할 것임도 노래하게 합니다.

(6)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한 그루의 나무로 표현된 야곱과 이스라엘의 성장을 다섯 단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박히고, 움이 돋우며, 꽃이 피고, 결실을 하며, 지면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정직했기에 지면에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음은 구약성경 전체가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이 신실해서 이렇게 번성해 간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장벽을 넘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며,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뿌리 내려주시고, 움이 돋게 하시며, 꽃이 피고, 결실을 맺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홀로 누리지 마시고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가족과 이웃과 나누는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 날에(7~13절)

하나님의 종말적인 심판과 메시아 왕국의 승리를 예언하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 대한 징계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겠지만 택한 백성을 다시 귀환시키시고 회복시키심으로 예루살렘 성산에서 예배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2~13)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따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리라. 그 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앗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31절에서 하신 말씀으로 실현이 될 것입니다.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한 자리에 모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무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하나 모으실 마지막 날의 그 무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큰 나팔이 울릴 그 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는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빛 된 존재로 살아 주님 만날 준비로 함께 지어져 가는 오늘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씀이 여전히 지식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나팔이 울릴 그 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무리 안에 우리 모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해 언젠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지 하는 나태와 안일함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빛 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리워야단이 있습니까?
2. 내 안의 두려움과 어둠을 물리칠 도구는 무엇입니까?
3.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하나하나 모으실 때 그 무리에 속할 자신이 있습니까?
4. 만약 자신이 없다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5.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기쁨으로 드릴 예배가 현재 나의 예배입니까?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사야 28:1~29

1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해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2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 같이, 파괴하는 광풍 같이, 큰 물이 넘침 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3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밭에 밟힐 것이라 4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의 쇠잔해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5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6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7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8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9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젓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10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11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

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12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패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13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14 이따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15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고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 도다 16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17 나는 정의를 측량 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18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밝힘을 당할 것이라 19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20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피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 21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시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22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23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24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25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26 이는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27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28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니 29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에브라임의 면류관이 밝힘 (1~6)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 불렸던 24~27장이 끝나고, 28~35장은 ‘회와 복의 노래’라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평화가 가득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구원의 성으로 불러 모으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1~6절은 사마리아의 멸망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히브리어 성경에는 ‘화 있을진저(호이, woe to-)’라는 감탄사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부터가 ‘복과 화의 노래’이기 때문에, 28장, 29장, 30장, 31장, 33장의 시작이 모두 ‘화 있을진

저'로 시작됩니다. 29장은 '슬프다'라는 감탄사로 시작되는데, 히브리어로는 '화 있을진저'와 같은 단어(호이)입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46번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이사야서에만 21번이나 나옵니다. 그 의미는 재앙이 내려 반드시 참상을 당할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려 바르지 못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며 쇠잔해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에서 중간부분에 해당합니다. 산지가 많은 곳이라 주변의 골짜기와 높은 곳들이 있어서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면류관이라고 하지 않고, '술 취한 사람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당시 잔치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당시에 사마리아가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도 술에 취한 것과 같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술에 빠진 자의 성'이라고 합니다. 특히 '빠지다'는 단어는 '망치로 때려눕히다'의 의미입니다. 즉 사마리아는

술이라고 하는 망치에 맞아서 완전히 뺨은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는다’는 말처럼 지금 사마리아는 술이라는 펀치를 맞고서 KO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성은 ‘쇠잔해 가는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붉음이 10일 가는 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꽃은 자기가 필 수 있는 기간 동안 피고 집니다. 더 피어 있겠다고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누림을 통해서 바른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2~3)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 같이, 파괴하는 광풍 같이, 큰 물이 넘침 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3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쏟아지는 우박’인데, 출애굽 전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인 ‘우박재앙’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 우박이 애굽 전역을 초토화하였습니다.

둘째는 ‘파괴하는 광풍’인데, 시속 200km의 속도로 불어대는 사막의 돌풍인데, 욥의 자녀가 살고 있던 집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7남3녀의 목숨을 하루아침에 빼앗아 가는 바람을 연상

하게 합니다.

셋째는 ‘큰 물이 넘침’인데, 노아시대의 홍수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처럼 아시리아의 사마리아를 향한 공격은 엄청난 것이며, 그 결과는 참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교만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과 멸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이 사마리아에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5~6)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니

주변 지형이 면류관과 같았던 사마리아는 교만하여 패망의 길로 갔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 남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온의 기초석(7~22절)

1~6절이 교만한 사마리아에 대한 예언이라면 7~22절은 남유다의 타락하고, 교만한 지도자들에게 전하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7~8)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 걸음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 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남유다의 지도자들도 술에 취한 인생을 살기는 사마리아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옆 걸음 치다’는 ‘옆길로 새다’, ‘길을 잃다’, ‘방황하다’ 등의 의미입니다. 미국 영화에서 음주단속을 할 때에, 의심이 가는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길에다 곧게 금을 그어 놓고, 똑바로 걸어가 보라고 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하게 했더니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도자들만 비틀거리지 않고, 선지자들도 비틀거리며 옆걸음을 치고, 제사장들도 비틀거리며 옆걸음을 쳤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포도주에 빠졌다’는 표현을 우리말로 하면, ‘술독에 빠져 산다’인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러하였다고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술독에 빠져 사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환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바른 재판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환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혼란이라고 한다면, 바른 재판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와 제

사장이 이러하였다면, 일반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설 제목처럼 <술 권하는 사회>를 넘어서, ‘술 취한 사회’, ‘술 독에 빠진 사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9~10)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짓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형편없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젓 떼는 아기들이나 가르치라”며 조롱했습니다.

10절이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제 막 말을 배우는 아이들이 하는 말을 흉내 내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성경이 히브리어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하는 소리를 좀 들어보세. 사울라사우, 사울라사우! 카울라카우, 카울라카우! 즈에르삼, 즈에르삼!”

이것은 아이들이 상대의 말을 듣기 싫을 때, “에에에에에에 ~...”라고 말하며 귀를 막는 것과 유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사람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말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텃에 걸리고,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15) 이따르모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파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하셨는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는 ‘오만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사람들은 ‘넘치는 재앙이 다가와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넘치는 재앙’은 ‘아시리아의 공격’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왕이 통치할 때에 중동의 전통 강대국은 애굽(이집트)이었고, 신흥 강대국은 아시리아였습니다. 유다는 애굽과 손을 잡았습니다. 애굽과 손을 잡으면, 애굽이 아시리아를 막아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시리아가 침공해 왔을 때에 애굽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애굽이 도와주기는커녕 자국을 공격해온 아시리아도 감당하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굽을 ‘상한 갈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견고하게 보여도 그 속은 썩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위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18~20)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유다가 애굽과 한 약속이 아무리 맹약(盟約)이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유한하기는 애굽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잠자리를 편안하게 해 주는 킹사이즈 침대와 같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누워서 다리도 제대로 펼 수 없을 정도로 좁고 짧은 나무토막과도 같았고, 또 애굽은 온 가족이 다 덮고도 남을 초대형 담요와 같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실제로는 한 사람도 제대로 덮을 수 없는 천조각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Do-Nothing, 30:7)’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23~29절)

23~29절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씨뿌림과 추수에 비유하여 교

흔하고 있습니다.

(23~28)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니

제대로 된 농부라면, 땅을 갈아엎지 않고 맨 땅에다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 씨가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이 뻥합니다. 그 씨가 아무리 튼튼하였다 할지라도 새
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거나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해 말라
죽을 것입니다. 또한 제대로 된 농부는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리지 않는 농부도 없습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어야 결실을 맺
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부가 밭(땅)을 갈아엎었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아
무 씨를 막 뿌리지 않습니다. 농부는 갈아엎은 밭에 소회향과
대회향을 뿌린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미나리과의 식물인데, 일
종의 ‘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도리깨나
수레바퀴로 타작하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

면, 이것들은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짓이겨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맥은 밀을, 대맥은 보리를 뜻하며, 귀리도 벼과의 식물입니다. 이것들은 수레바퀴를 굴려서 타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타작하기 위해서는 여러 식물을 섞어서 심지 아니하고, 각자의 자리에 심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9)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농부가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은 학문적으로 깊지도 않고, 세상의 물정도 잘 모르는 농부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땅을 어떻게 기경해야 하는지도 알고, 여러 씨앗을 어디에 어떻게 뿌려야 하는지도 알고, 추수하는 방법을 달리하여 거둘 줄도 아는데, 유다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만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믿는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와 유다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우매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망하는 길로 몰고 갔던 사람들이 농부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삶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결말을 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세상에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속적 가치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있는 가정과 삶의 자리를 온전히 밝히는 삶을 살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는 것이며, 어두움에 갈 바를 몰라 하는 우리 사회를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감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도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또한 지형적으로도 사마리아는 외적이 침입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오판하여, 술독에 빠진 것과 같은 삶을 삶으로 아시리아의 발굽에 짓밟혀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유다의 지도자들, 선지들과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을 너무도 좋아하였습니다. 농부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순종할 줄 아는데, 스스로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리석은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각자를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을 온전히 밝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빛을 비추는 진리의 등대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사마리아는 스스로가 안전하다고 착각하다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당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방심하다가 낭패를 당한 적은 없습니까?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2.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며, 무시하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함으로 얻은 유익이나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3. 농부는 땅을 갈아엎고, 파종하고, 농사지어 수확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느낀 것은 언제이었습니까?
4. 오늘도 함께 지어져 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삶의 자리를 밝히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렇지라도, 말미암아

이사야 29:1~24

1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 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2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3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4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껄이리라 5 그렇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 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6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7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 같이, 밤의 환상 같이 되리니 8 주된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 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9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리임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10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11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

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12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13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14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15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16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 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빛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빛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17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18 그 날에 못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19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20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 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21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울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라 22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23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

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24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지라도(1~14)

누가복음 19장 41~44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방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셨고, 그들과 함께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이후 바로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곧 다가올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이사야 선지자도 소명과 역할을 상실한 예루살렘을 보며 탄식하고 슬퍼합니다.

(1~2)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 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이란, ‘사자’를 뜻하는 ‘아리’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합성된 단어로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절의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리엘은 에스겔 43장 15절에서 ‘번제하는 바닥’으로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마지막의 아리엘은 번제단의 바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온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고 증명해야 할 이스라엘이 죄악 속에서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있게 되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십니다. 번제단 바닥이 제사를 드림으로 피가 흐르고 불에 타오르듯,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다윗 시대의 옛 영화를 잃어버리고 불타오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다가 5~8절에서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 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 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 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주린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

는 것 같이 시온 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그럴지라도’.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도록 두려울지라도, 눈앞에 닥친 환난과 고통에 잠 한 번 편하게 자지 못할지라도, 계속되는 낙심과 좌절로 인해 눈물 마를 날이 없을지라도, 숨 한 번 크게 쉬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없고 어둠만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분명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이었으나 하나님은 금세 그 심판을 돌이키사 예루살렘을 둘러싼 열방의 무리들을 향해 징벌을 내리십니다.

뉴욕 양키즈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 베라가 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 이 말은 1973년 뉴욕 메츠의 감독직에 있던 요기 베라에게 팀이 최하위로 처지자 당시 한 기자가 이미 끝난 것이 아니냐는 조롱 섞인 질문에 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츠는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며 지구 우승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원리는 신앙에도 적용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럴지라도’의 신앙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였던 대적의 무리, 강포한 자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이나 날려 가는 겨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하며 부시는 숨결은 믿는 자들에게는 생기로 다가갈 것이며, 대적들에게는 강력한 심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영적 암흑의 시

대임을 분별해야 합니다. 선지자와 선견자들은 잠들게 하는 영으로 인해 봉해진 말씀을 입을 자가 없고,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하여도 마음은 멀어져만 가는 시대를 버티고 견뎌내야 합니다. 다시 기이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 어둠의 시대를 이겨내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와 총명자이기 때문입니다.

(14)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말미암아(15~24)

아리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들의 이중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15~16)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 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그러나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음부에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
시고, 바라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 139: 7~10)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므로 참 신앙인들은 당장 눈앞에 드러난 어두움에 안
주하여 어둠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가올 그 날을 준비
하며 빛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어둠의 시대라고 하여 실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욕망의 울무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
었습니다. 말씀이 들려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기에 무시
하였고, 은혜 속에 맛보던 일상이 평범하고 반복적이라고 하여
감흥을 잃었으며, 맛을 잃어 사람에게 밝히고 있었음에도 부끄
러움과 수치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지워주실 것이며, 세속적이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혼미하고 미련하던 우리를 지혜롭고 총명하게 변화시켜주실 것
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리엘, 하나님의 사자, 빛의 자녀로
서 불러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22~24)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아굽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굽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아굽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의 기도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캄캄하여 더듬으며 살아가던 인생, 좁은 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려던 어리석은 마음, 어떤 맛도 향도 없는 무색, 무취, 무미의 의미 없던 삶을 오늘도 따뜻한 품에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등대지기 되시는 주님을 따라 어둔 세상에서 빛 된 사명 다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기대하며 하루의 보석들을 꿰어가 생명의 역사 한 줄 놓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현재 내 삶에 흐르고 있는 눈물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2. 나의 신앙에 의미도 감흥도 없는 껍데기뿐인 모습이 있었는지 묵상해봅시다.
3.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그렇지라도’의 관점으로 재해석해봅시다.
4. 우리가 하나님을 피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사야 30:1~33

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풀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2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도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3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4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5 그들이 다 자기를 유약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약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6 네겟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7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8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9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 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10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11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기록

하신 이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12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13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14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
 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15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어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16 이르기를 아
 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17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의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18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공홀
 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
 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9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이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20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
 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21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
 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22 또 너희가 너희 조
 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
 한 물건을 던짐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23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

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네 가족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24 발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
 을 것이며 25 크게 살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준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26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
 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27 보라 여호와의 이름
 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뻘뻘한 연기가 일어나
 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28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자갈을 물리시리니 29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와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30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
 한 진노로 그의 팔의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
 박으로 하시리니 31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
 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32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
 어 그들을 치시리라 33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
 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와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이사야 28장에서 35장까지 이어지는 화와 복의 노래 중에 오늘
 본문 30장은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의 영적 타락을 책망하며 죄
 에 대한 징계를 경고함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은 신흥강대국인 앗수르의 서진 정책으로 민족들이 서로 동맹을 맺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친 앗수르정책이 그들의 살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앗수르는 유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왕이 된 히스기야와 일부는 앗수르의 위협 앞에서 애굽과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BC 701년, 산헤립이 앗수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하였을 때, 애굽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애굽은 앗수르를 상대할 힘이 없었습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의 모습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책망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문 30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는 것에 대한 책망과 징계의 경고를, 18절부터 26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복에 대한 약속을, 이어서 27절부터 33절까지는 민족들을 위협하던 앗수르가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은 라합, 애굽(1~7)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이며, 그것

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결과를 예언합니다. 1~3절입니다.

(1~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도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거절하고 애굽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애굽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또한 유다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고 거짓 영의 인도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는 수치와 수욕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에만 보이는 세상의 것만 따오르게 됩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나 스스로 길을 찾고 방법을 구하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는 유다의 모습과 그 결과를 추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5)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소안은 출애굽의 출발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소안에서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멸하신 여호와와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 후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런 힘도 없는 바로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던 애굽은 유다에게 오히려 수치와 모욕만 가져다줄 뿐입니다.

그렇게 애굽을 향해 손을 뻗는 유다의 모습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으로 사신을 보냅니다.

(6~7)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당시에 해안 길로 내려가는 길이 앗수르의 통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사신들은 위험하고 험난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아무 쓸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수고해서 얻은 동맹이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라합과 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고대 근동의 신화에 등장하는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무서운 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라합의 상태를 무기력하고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결국 힘없는 애굽은 유다와의 동맹을 지키지 못했고 유다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외면하고 세상을 의지할 때,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치욕을 입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날 수많은 영적인 위협과 공격이 찾아올 때 우리가 찾아 헤매는 영적인 애굽과 같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얼마나 무익하며 무력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힘이 있어 보이는 영적인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도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반역(30:8~17)

8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책망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패역은 마치 신약의 바리새인들같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고 겉사람만 치장하며 속사람을 가꾸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습니다. 패역한 백성이 되어 말씀을 거부하고 바른 길을 떠났습니다. 이어서 패역한 유다 백성의 결과를 무너지기 직전의 담과 깨진 그릇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12~14) 이렇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담을 무너뜨리는 압박과 허망을 믿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금이 갈대로 간 성벽, 그것도 중간 부분이 불룩해져 있는 성벽입니다. 그 벽이 순식간에 무너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의지했지만, 의지하던 존재가 결국 자신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허망한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는 전혀 쓸모없이 산산조각 난 그릇과 같게 됩니다. 유다는 산산조각이 난 그릇처럼 전혀 쓸모없이 철저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조각이 너무나 작아서 불을 붙일 수도 없고, 물을 뜰 수도 없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던 유다의 처참한 그리고 수치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선지자는 잠잠히 여호와의 بار라며 그분을 신뢰하여 힘을 얻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15)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나라를 의지하던 것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잠잠하고 신뢰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그
들을 불쌍히 여기시기에, 잠잠히 그를 바라는 자는 복이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죄악을 애통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던 백성들도 잠잠히 기다리며 7일 동안 같은 길을 걸었
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온
전히 신뢰하며 잠잠히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
린다면, 우리 삶은 항상 최선의 삶이 될 것입니다.

내 삶에 잠잠히 기다려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를 조여 오는 압박과 어려
움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살 길을 열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실 것
입니다. 돌이켜, 조용히, 잠잠히, 신뢰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
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원 약속(30:18~26)

이샤야는 이어서 심판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심판의 경고 후에 18절에서 26절은 예루살렘의 구원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림이 끝나면 일어나셔서 절망에 빠진 당신의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구원해 주십니다.

(18)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분의 정의가 심판을 주시기도 하지만, 정의로 구원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얻게 될 복에 대해서 길게 설명합니다. 19절에는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고, 20절에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영적 스승을 붙여주셔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십니다. 또한 22절에는 우상이 사라질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 눈을 가리고 있던 세상의 우상들을 던져버리는 참된 회개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참된 풍요로움에 대한 약속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그동안 우상들을 통해 풍요로움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물질적인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상처를 어루만져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상처를 그분께서 직접 싸매 주십니다.

(26)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전보다 일곱 배나 더한 은총의 빛으로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해가 그를 갈망하고 기다리던 자들 머리 위에 크게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역시 구원의 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원히 다스리시는 날에 그 빛 앞에서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참된 기쁨과 평안만이 우리 삶을 덮을 것입니다.

민족들과 앗수르의 심판(27~33절)

유다를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민족들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27절부터 33절 말씀에서 유다를 향했

던 진노가 이제는 열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진노가 불붙는 것 같으며 하나님의 입김에 민족들이 날아가 버립니다. 남김없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여호와께서 직접 막대기로 앗수르를 치십니다. 그분의 진노의 막대기였던 앗수르(10:5)가 이제는 하나님께 매를 맞습니다.

(31)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앗수르와 그 왕을 불에 태워 버릴 도벳 즉, 소각장이 이미 오래전부터 마련되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호흡’이 소각장의 불을 사르기에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앗수르는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존재도 없이 소각될 것입니다. 도벳은 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몰록에게 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앗수르는 결국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오늘 총 33절로 된 긴 본문에서 애굽과 앗수르가 등장했습니다. 앗수르의 공격 앞에서 유다는 애굽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때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다가오는 앗수르와 같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운 순간들, 인생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에 손을 내밀지 말고, 우리를 지으시고 가장 잘 아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풍성

한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우리 안에 애굽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우리 눈을 향해야 하겠습니다.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고자 했던 어리석음과 같이 우리도 겉사람의 인도를 따라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날마다 우리 속 사람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집어넣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작은 등대로 드러지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조금이나마 밝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 인생길에서 만나는 앗수르의 위험과 같은 위기와 고난 앞에서 영적인 애굽을 찾아 의지하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한 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고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주님과 관계가 우리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겉사람의 욕망대로 애굽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속에 집어넣음으로 세상을 비추는 작은 등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지어저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로 드러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1. 우리가 두려워하는 영적 앓수르는 무엇이며, 그럴 때 의지하고자 했던 애굽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 돌아봅시다.
2.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던 경험이 있었다면 언제였으며 그 때 하나님을 향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4.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함께 지어저가며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 잠잠히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너희는 돌아오라

이사야 31:1~9

1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2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3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4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5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6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7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8 앗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9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와 말씀이라 여호와와 불은 시온
에 있고 여호와와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재경고(1~3)

오늘 본문은 이사야 28~35장까지의 ‘화와 복의 노래’ 중에서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30장도 애굽을 의지하려는 남유다에 경
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0장의 반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용이 적어서 ‘30장의 축소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3절은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의 불신
앙을 지적하며,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에 대
해서 증거합니다.

(1상)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단지 그 의
미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대국과 동맹을 맺는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
드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무시하는 배교행위와도 같았습니다. 당

시에도 유다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빌로니아로 포로가 되어 갈 때까지 제사를 그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중)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유다의 지도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은 애굽에 말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이 많다고 하는 것은 곧 병거(兵車)와 마병(馬兵)이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병거와 마병’을 지금으로 하면, 탱크(전차)를 주축으로 하는 엄청난 ‘기갑부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만 해도,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사울왕과 요나단의 손에는 칼과 창이 있었지만 백성들의 손에는 없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만큼 열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왕의 아들 르호보암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에 애굽왕 시삭이 유다를 침략했는데 예루살렘까지 거침없이 쳐들어왔습니다. 애굽왕 시삭에게는 병거(탱크)가 무려 1,200대나 있었고, 마병도 60,000명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에는 병거가 없었습니다.

특히 ‘말을 의지하며’에서 ‘의지하다’는 몸이 한쪽으로 쏠려서 어떤 것에 기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지팡이나 바퀴가 달린 수레에 몸을 기대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

들이 서 있을 수가 없을 때에 의자에 털썩 주저앉듯이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애굽을 바퀴가 달린 수레나 의자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것들이 없다면 결코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1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신앙은 일상적인 상황에는 드러나지 않고, 결정적인 경우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구해야 할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합니다. 유다가 철석같이 믿었던 애굽의 실상을 어제 본문인 30:7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7)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애굽이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음을 말하며,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라합’은 여호수아에 나오는 기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라합’은 창조 질서에 대적하는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다괴물인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서 물리치신 사건과 관련하여 애굽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영화 <늑대와 함께 춤을

_Dances With Wolves)>>에 나오는 인디언들의 이름이 ‘발로 차는 새’, ‘주먹 쥐고 일어서’ 등이었습니다.

‘늑대와 함께 춤을’도 그 영화 주인공(케빈 코스트너)의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애굽의 이름이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Rahab the Do-Nothing’입니다. 애굽은 가만히 앉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합니다. 유다는 병거가 있는 애굽이 자신들을 도와주어서 아시리아의 공격에서 지켜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애굽을 의뢰하러 가는 사람들의 불신앙을 지적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하십니다.

(2)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시다’고 하십니다. 당시 유대의 지도자를 머리를 맞대고 아시리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서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다고 서로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난국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익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

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시거든!” 이것은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직격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재앙’은 좋지 않은 일의 총체인데, 본문에서는 아시리아의 공격을 당한 유다가 애굽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나라가 심각한 상태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신 말씀을 반복하지도, 취소하지도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흔히 ‘두고 보자는 사람치고 무서운 사람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할 때는 꼭 그렇게 할 것처럼 생각이 되어도, 사람은 유한한 존재라 잊어버리기도 하고, 의지가 약해지기도 하고, 능력이 없거나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정하신 일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 그 뜻을 바꾸시기도 하시지만, 말씀하신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다가 그토록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이 얼마나 무력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사람(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약함과 허무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당시 애굽에서 최고의 신은 태양신인 ‘라(Ra)’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왕 바로는 그 태양신(라)의 아들이라 여겨 신처럼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애굽왕이 그저 연약하기 짝이 없는 흙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막강한 군사력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육체’, 즉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툭 치시면, 돕는 사람도, 도움을 받는 사람도 함께 멸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_Rahab the Do-Nothing’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보호의 약속(4~9)

4~9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과 유다를 향한 회개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4~5)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을 ‘사자’와 ‘새’의 비유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큰 사자’와 ‘짧은 사자’는 동격을 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짧은 사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자는 백수의 제왕이라고 불립니다. 게다가 사자는 무리를 지어서 다닙니다. 그래서 치타나 표범, 하이에나가 잡은 먹잇감을 사자가 빼앗을 수 있어도, 사자의 먹이를 그 어떤 짐승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자를 그리스도에 비유하는 일이 없지만,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하고, <나니아 연대기>에서 ‘사자’가 그리스도를 뜻하듯이, 서양에서는 사자를 그리스도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굽은 병거가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사자가 먹잇감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온산(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미새는 새끼를 지키는 보호본능이 강합니다.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제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웁니다. 만약 그 새가 독수리와 같은 맹금류라면 더욱 더 강하게 새끼를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보호본능을 4개의 동사를 써서 표현합니다.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으며’, ‘구원하리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히브리어 성경에는 ‘너희는 돌아오라’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회개하다’의 뜻입니다. 즉 유다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7)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회개하는) 표징으로 우상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범죄한’에서 ‘범죄(हे테)’를 헬라어로 바꾸면 ‘하마르티아’입니다. 죄인데, 과녁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우상숭배가 잘못된 것은 우상은 바른 과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르지 않은 과녁에는 아무리 조준해서 활을 쏘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쏘지 않을수록 이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신이신데, 그 사람이 자기를 만든 신을 만들어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어불성설입니까? 그래서 우상숭배는 언제나 허탈하고, 허무하고, 허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8~9) 앓수르는 칼에 얹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유다는 아시리아가 두려워서 애굽과 맹약을 맺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렵게 보이는 아시리아가 사람이 휘두르는 칼에 무너지지 않고, 그냥 칼 앞에서 도망을 갈 것이고, 그들은 노예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히스기야왕 때 아시리아왕 산헤립의 군대가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유다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군대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룻밤 사이에 아시리아 군인 185,000명이 송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시리아는 급격하게 몰락의 길을 갔습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과 풀무가 시온(예루살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풀무’도 불을 담는 그릇이므로 불과 같은 의미입니다. 불의 가장 큰 기능은 ‘태우는 것’입니다. 소독할 때나 더러운 것을 없앨 때,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금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할 때도 불에 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있는 예루살렘의 죄를 태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 또 중요한 기능은 ‘빛’을 내는 것입니다. ‘빛’은 ‘소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이시라는 것은 당신의 백

성들에게 끝까지 소망이 되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제사(예배)를 드리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래야 겉사람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은총을 누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유다는 국난의 위기에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고, 애굽이 자신들을 지켜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유다를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자기 먹이를 지키는 것과 새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나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지켜 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병거가 있는 애굽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여겼지만 실상은 애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에서 낭패를 당한 적은 없습니까? 그 때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2. 사자가 먹이를 지키고, 새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언제이었습니까?
3.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은 우상, 금 우상을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당신이 던져버려야 할 하나님의 대용품은 없습니까?
4.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이사야 32:1~20

1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2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3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4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5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6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주린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애지게 함이며 7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8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9 너희 안일한 여인들이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0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일 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11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베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12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

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13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14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
 가 즐기는 곳과 양 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15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
 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
 로 여기게 되리라 16 그 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
 에 거하리니 17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18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
 으려니와 19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20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남유다의 현실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앗수르 제국의 위협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당시 힘이 사라졌지만 전통적인 대국인 애굽에게 계속
 도움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의 지도
 자들을 끝까지 믿으며 기다릴 것인가? 결국 이 문제는, 궁극적
 으로 어떤 왕을 믿고 신뢰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앗수르
 왕인가? 애굽왕인가? 아니면 유다의 왕인가? 바로 그때 이사야
 는 말합니다.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진
 정한 왕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새로운 왕의 통치(1~4)

(1~4)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1절에 이사야는 “보라”라는 말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한 왕'은 유다의 위기를 벗어나게 했던 히스기야로 추정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실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며, 기쁨과 참 평안이 넘치는 나라를 다스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에 소개된 “광풍, 폭우, 마른 땅, 곤비한 땅”은 생명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사막과 광야란 죽음의 조건들입니다. 그러나 “한 왕”인 예수님은 이런 죽음의 사막과 광야에 오아시스와 같은 생명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도 “광풍, 폭우, 마른 땅, 곤비한 땅”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즐비하여 괴롭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 오아시스와 같은 분이 되셔서 생명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3~4절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문맥 전후를 살펴 볼 때 이들은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바르게 말하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정상일지라도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바르게 말하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어눌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의의 실현(5~8)

(5~8)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주린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애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나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어서 5~8절은 예수님의 통치로 인하여 과거에 왜곡되었던 가치관과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됨을 예언합니다.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리기 전까지만 해도 유다 사회는 가치관의 붕괴가 심한 곳이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고상함과 존귀함의 기준이 사람의 인격과 연계시키기보다는, 사람의 외적 조건으로 연계시켰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외모와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들을 현실에서 많이 보니

다.

악인을 악인이라고 부르며, 어리석은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는 것은 세상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증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역사가 시작 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상에는 단 한 번도 온전한 공의가 시행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어리석은 자들을 어리석은 자로, 그리고 우둔한 자를 우둔한 자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공의로운 통치가 시행되지 않는 곳은 언제나 힘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도 힘만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불리고, 죄인도 힘이 있으면 의인으로 불립니다.

반면 의인도 힘이 없으면 죄인처럼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임하여 공의로 세상을 통치를 할 때, 힘의 논리가 사라집니다.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진리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8절에 나오는 ‘존귀한 자’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생각과 하는 일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 나의 학업, 나의 직장 등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것만’을 간직하고, ‘나쁜 것’을 버리는 사람이며, 나쁜 사람은 ‘나쁜 것만’을 간직하고 ‘좋은 것’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존귀한 자의 비결은 ‘존귀함’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존귀하다는 히브리어 어근인 ‘나다브’는 ‘베풀다’는 뜻

입니다. 베푸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따스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따스함의 말과 행동으로 존귀함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심판의 본질(9~14)

예수님의 통치를 예언했던 앞의 단락과는 다르게, 9~14절은 완전히 상반된 내용인 심판을 설명합니다. 이 이유는 거듭되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부녀’로 상징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영적 무지와 무관심에 빠져 계속하여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9~14)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일 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베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 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이사야는 ‘안일함’과 ‘염려 없는’이란 표현을 다섯 번이나 사용합니다. 안일함과 염려 없는 것은 그 원어는 다르지만 모두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평안과 안식이 아닌,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가 주는 거짓과 안락에 찌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다를 깨우치고자 13~14절에 유다의 황폐화를 자세히 묘사합니다. 사람들이 잡혀가서, 성읍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고, 군사들이 보초를 섰던 오벨 즉 성채와 망대는 쓸모없게 변합니다. 성읍에 들나귀들과 양 떼들이 살게 된다는 것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환경으로 될 것을 예언합니다. 재개발을 위하여 사람들이 떠나고, 건물들이 철거 된 현장을 가면 그렇게 황량하고 을씨년스러우며 적막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물가로(15~20)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철저히 파괴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그들을 바로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과 징계의 본질은 다시 세움입니다. 허문다는 것은 다시 세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황폐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죄악 된 모습을 심판과 징계로 철저히 허무시고, 다시 새롭게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마침내”라고 이사야는 외칩니다. 이는 상황의 전환입니다. ‘끝내 기다렸던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우

리의 신앙에도 ‘마침내’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15~20)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에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 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사건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광야는 죄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인간의 심령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까지 인간의 심령은 광야처럼 황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산을 낼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의 심령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남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와 찔레’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에스겔 36:26~27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르는 삶이 아닌 주의 율례를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 율례를 따

르는 삶은 화평과 평안과 안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부터 오는 영’을 사모해야 합니다.

마지막 20절을 보면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가 회복되어 농촌의 소박하고 평화로운 목가적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복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와 나귀를 모든 물가로 인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물가’는 생명이 있는 곳이며, 시편 1:3의 ‘시냇가’와 동일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와 나귀를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힘이 들고 수고가 동반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주의 영을 의지하며, 힘들고 지칠지라도 다른 이들을 ‘모든 물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광풍과 폭우와 같은 인생에 참 안식을 얻었고, 말라 비틀어진 심령에 새로운 생기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사막 같은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늘 안에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의 그 은혜는 우리를 향해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도 여전히 탐욕의 습관을 놓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세상을 의지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 하여주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영을 사모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직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물건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내 삶의 ‘광풍, 폭우, 마른 땅, 빈곤한 땅’과 같은 어려움은 무엇이었으며,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2. 성경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말했던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봅시다.
3. ‘주님의 말씀’과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영’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을 말해봅시다.
4. 생명의 말씀인 ‘모든 물가’로 인도해야 할, 나의 소중한 이들은 누구며, 어떻게 그들을 이끌 것인지 말해봅시다.

학대와 속임을 당하는 자에게 은혜를

이사야 33:1~24

1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2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3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4 황충의 때 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략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5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준공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6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7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부터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8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9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하고 마르며 사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10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라 11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12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

는 가시나무 같으리다 13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
 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14 시온의 죄인들이 두
 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
 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
 리요 하도다 15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
 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
 아 피 흘리려는 피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16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7 네 눈은 그의 아름
 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18 네 마음은 두려워
 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19 네가 강포한 백
 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20 우리의 절기의 시온 성을
 보라 네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
 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21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 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22 대저 여호와와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와 우리
 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와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
 하실 것임이라 23 네 뚝대 줄이 풀렸으니 뚝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
 고 뚝을 달지 못하였느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
 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24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패망하기 전 유다 왕 웃시아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패망이후 남유다 왕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의해 패망하였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는 앗수르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중동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학대와 속임 당함, 이 가운데 기도(1~6)

(1)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33장은 히브리어 어순으로 “화 있을진저”로 시작됩니다. 매우 안타까워 슬퍼할 때 사용하는 감탄사입니다. 32장을 제외하고 28장부터 33장까지 제일 첫 단어가 동일하게 “화 있을진저”입니다. 33장에서 ‘화’의 대상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위협하는 앗수르입니다.

2차적으로는 학대하고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학대나 속임을 당하고 상대를 학대하고 속이는 것이 고대사회에서 정당화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행해서는 안될 것이지만 학대나 속임을 당하지 않고도 상대를 학대하고 속이는 행위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가해자는 언젠가 뿌린 대로 거두는 진리대로 학대와 속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앗수르처럼 약

자를 학대하고 속이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2)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어제 살펴본 32장에서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다스릴 왕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33장은 이전과는 달리 선지자의 예언 선포 형식보다 마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듯이 시 형식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구원을 간구합니다. 억울하게 학대나 속임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3)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요란한 소리’란 전쟁으로 인해 난리가 난다는 의미입니다. ‘민족들’에는 앗수르가 포함됩니다. ‘주께서 일어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포함해서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앗수르를 신흥 바벨론을 도구 삼아 흩으셨습니다.

(4) 황충의 때 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략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앗수르가 과거 뿌린 대로 미래 거둘 것에 대한 비유적 예언입니다. 앗수르가 약한 나라들을 학대하고 속여 탈취한 것처럼 학대당하고 속임을 당할 것입니다. 황충이나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서 곡식과 잎사귀들을 모두 먹어 싹쓸이 하듯이 앗수르의 소유물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5~6)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앗수르의 소유물이 사라지도록 하심으로, 불의한 자들을 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로 잡고, 공의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때에 앗수르에 의해 학대와 속임을 당한 이스라엘은 평화가 올 것이며, 학대와 속임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심과 하나님을 믿음이 보배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불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7~16)

(7~9)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앗수르에 의해 짓밟히게 됨으로 절규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도저히 항거할 수 없을 정도가 될 때에 앗수르에게 형식적으로 평화협정을 위한 평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 굴욕적인 항복입니다. 이 때 사신들은 마치 항복조인서에 서명하는 사람들처럼 슬퍼 애곡할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으니 군사적 상업적 용도의 큰 도로가 황폐화 되어 사람이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대적이 자기 나라를 잘 섬기면 해치지 않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평화협정 조약을 파기하는 기만을 저지를 것입니다. 항복을 하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보장한다고 약속하겠지만 그것은 속임수일 것이고, 결국 성읍 주민들의 인권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말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학대와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는 악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자유와 평화가 사라질 것이고 심지어 좋은 자연환경도 황폐해 질 것이라고 합니다. 레바논은 갈릴리 호수 북쪽 험몬산 아래 산맥으로 백향목이 유명한 좋은 곳입니다.(신 3:25, 왕상5:6) 이외 사론, 바산, 갈멜 역시 좋은 땅과 산, 좋은 방목지와 목초지, 좋은 삼림지를 대표하는 지역인데 이곳이 제

대로 관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10)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일어나실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이유는 3절에 일어나시는 이유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앗수르보다 더 강하시고 높으신 분임을,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리실 것입니다.

(11~12)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다

여기서 ‘너희’는 앗수르처럼 사람들을 학대하고 속이는 나라들과 민족들입니다.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한다는 것은 그들이 가치 없는 결과물을 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호흡이 불이 되어 자신을 삼킬 것’이라는 것은 생존을 위한 무의식적인 신진대사조차 자기생존을 위협하는 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호흡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대와 속임을 일삼던 자들은 자기 호흡조차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돌은

석회입니다. 건축을 위해 석회를 불에 굽고 땀감으로 가시나무를 불에 태우듯이 학대와 속임을 일삼던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3)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이와 같은 경고의 대상은 원근 각처에 있는 학대와 속임을 일삼던 모든 자들입니다. 그리고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오늘날 학대와 속임을 일삼던 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학대와 속임을 일삼던 자가 있다면 그들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삶 속에 작은 학대나 작은 속임수라도 연루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14)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도라

시온의 죄인들은 거룩한 영역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거룩한 영역, 교회에 속해 있다고 말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시온의 죄인들’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지역, 시온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죄인들과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앗수르의 불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 떨며,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고 외칩니다.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15)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피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견딜 수 있는 자란 죄인들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참아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견딜 수 있는 자란 과거 옳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그 삶에서 돌이켜 의의 길을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15절의 사람들입니다.

(16)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악을 일삼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죄악 된 행위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환경은 불의, 부정직, 불의의 재물, 뇌물, 술수, 악행으로 넘쳐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

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악한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눈과 마음은 어디로(17~24)

(17~19) 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권이 회복되어 자기 나라의 왕을 볼 것이고 주권이 회복된 나라의 영토를 볼 것입니다. 눈으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회복을 볼 것이며 마음으로는 과거의 학대 받았던 시절을 떠올릴 것인데, 그 시절 자신을 감시하며 무거운 세금을 징수하던 사람들, 19절 상반절의 ‘강포한 백성’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며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식민 백성으로서 지배국의 언어를 강제적으로 배웠는데 회복 이후는 그 말조차 잊어버려 그 나라 말이 외국 방언에 불과하여 알아듣지 못해도 무방한 태평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학대와 속임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때에 과거 어려운 시절을 회고하며 격세지감을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20~21) 우리 절기의 시온 성을 보라 네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 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나니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태평의 시대가 오면 사람들이 즐거워할 절기에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이 안정적인 성읍으로 회복될 것이며, 그곳은 다시는 옮겨지지 않고 뽑히지 않고 끊어지지 않을 장막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15절에 언급한 사람들과 함께 계시서, 강이나 호수로 침범하는 각종 군함들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22) 대저 여호와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이런 분을 어떻게 찬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나라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정의를 외치지만 재판을 맡게 하는 재판장을 찾기가 힘든 때, 공의의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신다면 분쟁 중에 있는 어떤 재판도 기꺼이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법부가 법대로 아무리 재판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입법이 정의롭게 진행되지 않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입법자들이 곧지 못하다면 정의로운 법을 제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셨으니 그 법은 완전하기에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사법부의 수장이요 입법부의 수장이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와 우리의 왕이시니”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이 완전하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23) 네 뚝대 줄이 풀렸으니 뚝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뜻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학대와 속임을 일삼는 자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배의 뚝대를 무력화하심으로 더 이상 강한 자가 되지 못하게 하시고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시킬 것이기에 그들의 모든 재물은 다리를 저는 사람들에게조차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4)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이제 학대와 속임을 당했던 거주민들이 건강하게 회복될 것이며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사함을 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33장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오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없어서 누리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이 물음에 답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저희들의 팔이 되어 주시고 극심히 어려울 때에 구원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학대를 당하고 속임을 당할 지라도 가해자나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위해를 가하거나 속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학대를 당하고 학대하고, 속임을 당하고 속이는 것이 만연한 이 시대에서 공의롭게 행하는 사람, 정직히 말하는 사람, 불의의 재물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는 술수를 듣지 않는 사람, 악행을 즐겨보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의 틀에 가두지 않는 사람, 길을 가꾸려 하는 바리새인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학대를 당하거나 속임을 당하는 것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가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2.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6절)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 이 시대의 “시온의 죄인들”(14절)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들과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4. 나를 삼키는 불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5.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고, 율법을 세우시고, 왕이시기에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